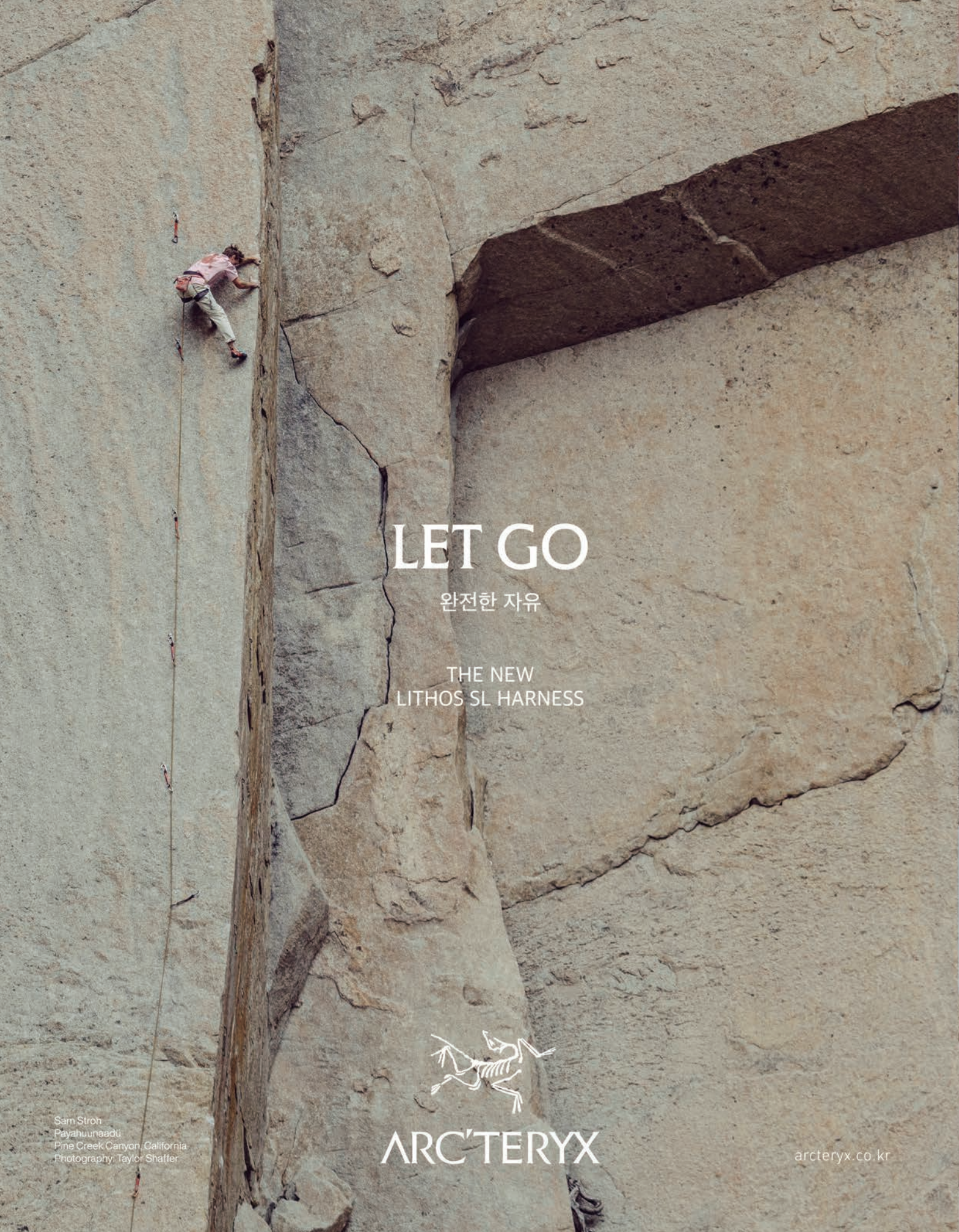


시간의 층위 광명



LET GO

완전한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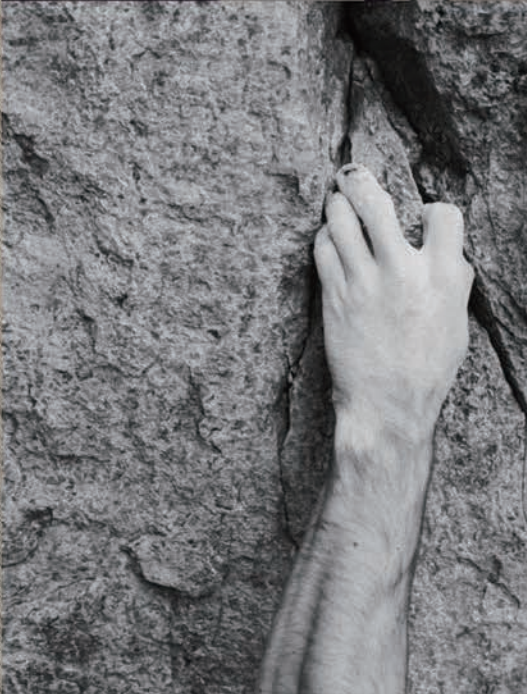
THE NEW
LITHOS SL HARNESS



ARC'TERYX

Sam Stroh
Payahuu-naadü
Pine Creek Canyon, California
Photography: Taylor Shaffer

arcteryx.co.kr





이달의 여행
040
**시간의 총위
광명**

빠른 변화 속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도시,
경기 광명이 지나온 시간을 살폈다.



표지 이야기

경기 광명 도덕산 출렁다리

도덕산공원 입구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나 아늑한 녹지에 발을 들였다. 아트막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가파른 계단이 나타나고, 그 끝에서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는 인공 폭포를 만난다. 거친 돌을 깨던 채석장 부지가 숲속 공원으로 변모한 것이다. 높이 20미터에 이르는 절벽 위에는 도덕산 출렁다리가 놓였다. Y자형 현수교로 교각 없이 세 방향의 다리가 한 지점에 모여 균형을 이룬다. 광명 3경에 선정된 다리 중앙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인공 폭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긴다. 인공 폭포가 만들어 낸 잔잔한 물결 위로 도덕산 출렁다리가 노을과 함께 춤을 춘다.



**A2
전용목장**
**100%
A2우유**



플러스1.
체세포수1등급
세균수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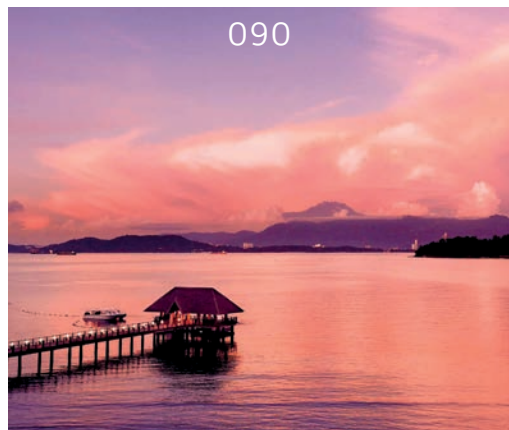
플러스2.
EFL공법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 016 듣는여행
고요함을 깨우는 청개구리
어둠이 내린 경기 양평 세미원 연잎 위에서 청개구리가 요란하게 운다.
- 018 촬영지여행
윤슬처럼 반짝이는 섬마을 로맨스
드라마 <닥터 셉보아> 속 두 주인공이 만나는 편도동 장면은 경남 거제 가조도에서 촬영했다.
- 020 여행자의공간
예술이 된 거장의 아틀리에, 김창열 화가의 집
김창열 화백의 집이자 작업실이 모두에게 열린 문화 공간이 됐다.
- 022 여행자의방
도심 속 트리하우스, 수락휴
서울 노원구의 자연휴양림에 소설 속 트리하우스가 생겼다.
- 024 한국의멋
물결치는 쪽빛 바다
천연 염색 공방 예빛의 신재범 대표가 하늘하늘한 레이온 원단에 쪽물로 파도를 새겼다.
- 026 한국의맛
파란만장한 토마토의 항해
여름마다 즐겨 먹던 토마토 설탕 절임은 달콤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간식이다.
- 030 시절, 풍경
광활한 연잎의 어깨 너머로
소금쟁이의 시선으로 한여름 백련꽃을 카메라에 담았다.
- 036 전국 행사 달력
7월의 전시·공연·축제 소식
무더위를 잊게 해 줄 시원하고 경쾌한 행사가 연이어 펼쳐진다.
- 062 여행의발견
유쾌한 여름 놀이터, 목포
놀이와 체험, 배움이 어우러진 전남 목포에는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이 풍성하다.
- 078 여름방학 안내서
강진·해남·영암의 천연 워터파크
'강해영 프로젝트'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자연 물놀이장을 추천한다.
- 090 기차안세계여행
코타키나발루에서 보낸 자연주의 휴가
자연 친화적인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온전한 심을 경험했다.



made in

GANGNEUNG

no.19

BOOK in BOOK

made in GANGNEUNG

강릉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강원 강릉의 자연유산과 이색 놀거리, 여름 축제와 힙한 공간을 소개한다.

Panasonic

신개념
헤어드라이어 탄생,

이제
건조와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nanocare 시리즈



114 함께 여행

나의 오랜 나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을 만나 식물 친구를 소개받고, 800년 세월이 깃든 장수동 은행나무와 짧은 교감을 나눴다.

120 전시 보러 갑니다

미술관에서 노는 법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다른 공간 안으로: 여성 작가들의 공감각적 환경 1956-1976>을 조명했다.

128 이계절엔 여기

대자연의 선물, 울릉도를 걷다

신비의 섬 울릉도에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140 KTX타고 도보 여행

익산 레트로 여행

전북 익산의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감각적인 공간을 찾았다.

146 트렌드 읽기

카드 끌고 약 사는 시대

창고형 약국의 확산과 함께 새 국면을 맞은 약국 유통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 본다.

148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7월의 소식

강렬한 액션과 서스펜스, 드라마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울여름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160 플레이리스트

여유와 설빈과 떠나는 음악 여행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의 시 같은 노랫말이 기차 안에 유유히 흐른다.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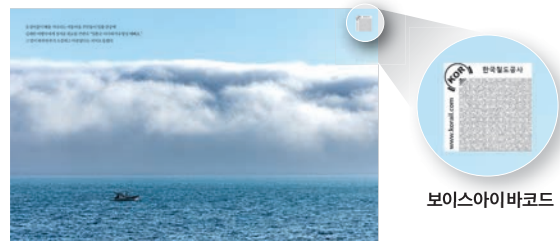
코레일 소식·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열차 이용 안내·비상시 행동 매뉴얼

+일러두기

<KTX매거진>은 대한민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약칭으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라는 표현을 생략합니다.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바코드



114



120



128



140

Panasonic

nanocare 시리즈

“스타일은 살리고, 손상은 줄이고”

스타일은 살리면서 수분은 지켜 주는 새로운 헤어 케어 루틴. 나노케어 시리즈로 소중한 머릿결을 지키자.

“열 스타일링에도 수분 케어”

고데기 EH-HS0J

nanoe™ 기술을 적용, 단순히 머리를 펴 주는 것을 넘어 모발 속부터 수분을 채워 건강한 머릿결로 가꿔 준다. 일반 음이온보다 약 1000배 더 많은 수분량, 스트로크 한 번으로 스타일 완성, 5단계 온도 조절 및 히터 온도 감지 센서로 균일한 열 분포, 100~240볼트 전압 지원 등 차원이 다른 성능을 발휘한다.

“건조와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헤어드라이어 EH-NA0K

파나소닉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명품 헤어드라이어. nanoe™보다 18배 더 많은 nanoe™ MOISTURE* 기술로 모발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공급하고, 큐티클 접착력을 높여 마찰 손상을 방지한다. 두 개의 센서가 바람과 주변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열을 조절하고, 기존 제품 대비 낮은 온도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한다. 나이트캡 노즐로 아침에도 영김 없는 정돈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손상은 줄이고, 5 in 1으로 멀티 스타일링”

헤어스타일러 EH-KN9L

매일 아침 솜에서 막 나온 듯한 스타일링을 완성해 주는 혁신적인 헤어스타일러. nanoe™가 모발 깊숙이 침투해 손상된 머릿결을 보호하고 윤기를 되살려 준다. 뿌리 볼륨을 강화하는 볼륨 리프터, C컬을 텐션감 있게 살려 주는 살롱 블로우, 말기만 하면 S컬이 완성되는 롤 브러시 등 5 in 1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 고데기 EH-HS0J와 헤어스타일러 EH-KN9L은 100~240볼트 호환 지원으로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판매처 유명 백화점 및 온·오프라인 파나소닉 판매 대리점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2026년 07월호

KTX MAGAZINE

제23권 제7호 통권 제265호
2026년 7월 1일 발행

발행인 김태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이미선 editorwhy@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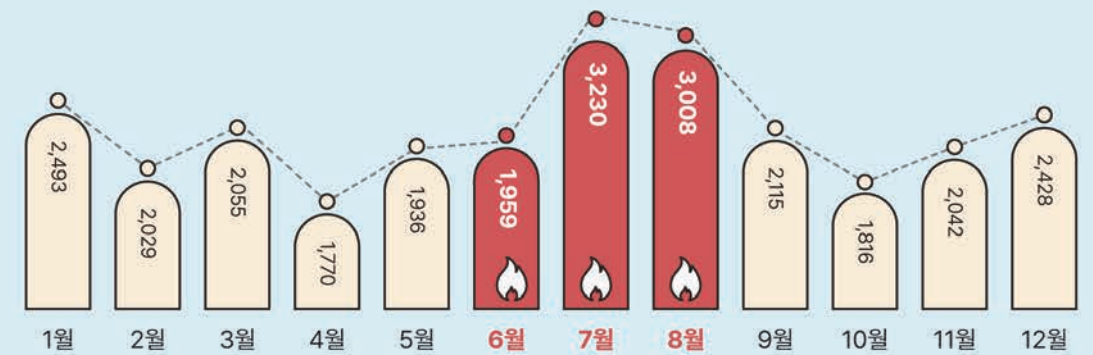
인쇄 효성인쇄사 hspri.com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최근 3년간(2023~2025년) 월별 전기화재 현황



출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집

- 멀티탭 사용 주의**
제습기, 인덕션 등 고용량 제품은 멀티탭에 동시에 연결하지 마세요.
- 냉방기 사용 시 주의**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열 방출이 원활하도록 환기 상태를 확인하세요.
- 전선 손상 주의**
피복 절연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선을 햇빛에 장시간 노출하지 마세요.
- 침수·누전 주의**
침수된 전기제품은 물기를 제거하고 전문가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세요.
- 여름 휴가 전 주의**
장기간 부재 시 전기제품 전원을 차단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화재를 예방하세요.

곁에 두고 심취하는 자유

국내의 어디든 미술관에 가면 엽서나 포스터, 도록을 하나쯤 사곤 합니다. 100호가 넘는 작품을 손바닥만 하게 프린트한 엽서, 그자그마한 그림 하나만 손에 쥐어도 집으로가는 길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두고두고 보고 싶은데 다시 미술관에 가긴 어렵고, 작품 구매는 꿈도 꾸지 못하니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소중히 지통에 넣어 가져온 포스터는 집이나 사무실의 빈 벽을 장식하고, 그 자체로 작품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작가와 작품명, 방문 날짜를 적어 붙이는 것도 잊지 않죠. 그리하여 저희 집 거실과 서재의 벽은 리크바우터스의 '책 읽는 여자', 잭슨 폴락의 '수평적 구조', 나탈리 카르푸센코의 '미라클 넘버 2', 이응노의 '군상', 안충기의 '비행산수' 등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중에는 <KTX매거진> 표지와 '이달의 여행' 사진을 도맡아 찍는 안홍범 작가의 사진도 여럿입니다. 송광사 달력에 실린 그의 사진을 오래 붙인 것인데, 이보다 근사한 사진전이 없습니다. 흠뻑 빠져들어 오래 보고 싶은 것이라면 도배를 하듯 벽에 붙이는 습관 또는 집착. 저에게 이런 벽(癖)이 생긴 건 20여년 전 한 작가와의 만남 '덕분'입니다. 단순한 선과 강렬한 색채로 말 그림을 그렸던 고 김점선 작가. 상상이 멈추지 않아 오장육부가 부글거리고 종이와 연필이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다던 그는 '그림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소모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제 막 눈을 뜬 어린애들이야. 무의식의 상태에서 그림을 봐야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자립심도 생겨. 달력에 있는 그림이라도 찢어서 눈높이에 붙여 줘야 한다니까. 난 오십견 덕에 디지털 그림을 그리게 돼서 너무 행복해. 2000억 장을 찍어도 선명도가 첫 장과 똑같잖아." 실제로 당시 작가의 디지털 관화는 사인과 함께 아크릴 액자에 넣어 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것도 비싸다며 마뜩잖아하던 작가는, 경계 없이 자유롭고 명쾌한 철학으로 제 고정관념을 와장창 깨부수었습니다. 스멀스멀 가슴이 벅차오르던 2007년 여름의 그날 이후 제 공간의 벽에는 사진과 그림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고, 나름의 방식으로 예술을 향유하는 기쁨이 날로 커졌습니다.

이달 <KTX매거진>은 한여름의 열기와 싱그러움을 동시에 전하는 여행 칼럼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경기 광명을 찾아 거대한 문화 공간이 된 광명동굴과 도심 속 생명의 보고인 안터생태공원, 도덕산 출렁다리를 걸었고, 한반도 동쪽 끝 울릉도에서는 새 등지처럼 자리한 코스모스 울릉도에 묵으며 동해의 일몰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으로 전남 목포의 목포플레이파크,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을 찾았고 영암의 월출산 기차랜드, 해남의 송호해수욕장, 강진의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 등 자연이 만든 워터파크도 두루 살폈습니다. 여름 피서지로 첫손에 꼽는 강원 강릉을 찾아 야시장과 해안 트레일, 야간아트쇼, 여름 축제 등 최신 여행 정보를 꼼꼼히 소개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나무와 사랑에 빠진 고규홍 작가와 함께 인천을 찾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령 800년의 은행나무를 만났고, 인천수목원을 걸으며 인간보다 먼저 지구에 살기 시작한 나무의 유구한 세월과 생명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다른 공간 안으로: 여성 작가들의 공감각적 환경 1956-1976>도 주목해 주세요. 철저한 고증을 거쳐 56년 전 작품을 재구성한 정강자의 '무체전', 무려 136킬로그램의 거위털로 백색 공간을 채운 주디 시카고의 '깃털의 방', 붉은 우주에 침잠하는 듯한 아마자키 쓰루코의 '빨강' 등 시대를 앞서갔지만 주목받지 못한 여성 작가 11명의 기묘한 공간이 활기찬 놀이터가 되어 전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7월호 마감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편집실 책상에 앉아 눈을 30도만 돌려도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르네 마그리트의 '인간의 아들'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고 심취하는 자유. 올여름 여러분도 무언가에 푹 빠져들면 좋겠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시원한 동굴 탐험
자연이 만든 특별한 피서지



인생샷 명소
빛나는 순간을 담아요



즐거운 여름 시간
음악과 함께 힐링 가득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smilla_95



역방향좌석에앉아가는기차안, 항상우연을꿈꾼다. 가끔이지만 지금이 참 좋을 때도 있다. <KTX매거진>과 함께 하는 서울출장길, 신발 끈 천천히 묶고 편하게 가 보려다. #KTX매거진 #서울 #출장 #여름날만

@soohorangi



<KTX매거진> 뒤표지에서 발견한 강원의 추억. 반가운 마음에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수호랑이 인형과 6월호를 나란히 놓고 카메라에 담았다. #강원 #평창 #수호랑이 #KTX매거진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권철 전남 나주시 우정로

출장길 기차 안에서 손이 제멋대로 <KTX매거진>을 집어 들었다. "강해영 프로젝트." 이 한 줄에 덜컥 마음이 발을 헛디뎠다. 읽는 동안 잠깐 출장길을 이탈했다. 활자 사이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에 손을 찌고, 별을 안주 삼아 캔맥주를 탄다.

이현정 대전시 유성구 노은서로

객실 내 모니터에 <KTX매거진> 이벤트 참여 광고가 나와 잡지를 펼쳤다가 다른 페이지도 넘겨 봤다. 천근성 작가 인터뷰가 특히 인상 깊었다. 참여자가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그림을 그려서 비용을 지불한다니! 예술노동의 가치를 알리는 유쾌한 접근법이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7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주소 KTX@bandicom.com 기간 7월 15일까지

소셜 미디어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돌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아이돌로 물레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소노호텔앤리조트 '뉴멤버십' 출시 소노러스라임 신규회원모집

더 가벼워진 입회금액

20년 만기 입회금 반환
3,000만원대 멤버십

더 매력적인 혜택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창립 혜택 최대 50%

20년간 부대시설 할인

워터파크·골프·스키 등
주중 최대 70%



▲ 쓸비치 남해



이용 가능 사업장 전국 18곳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삼척·진도·남해 | 소노캄 고양·경주·거제·여수·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천안·단양·청송·변산·제주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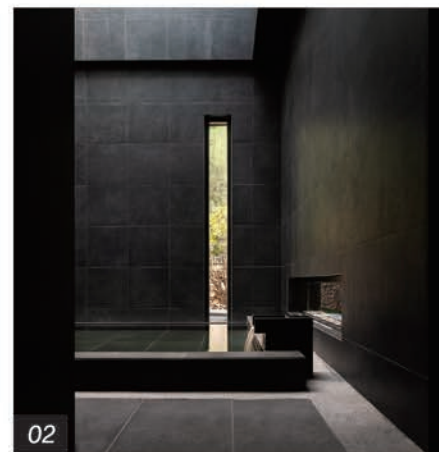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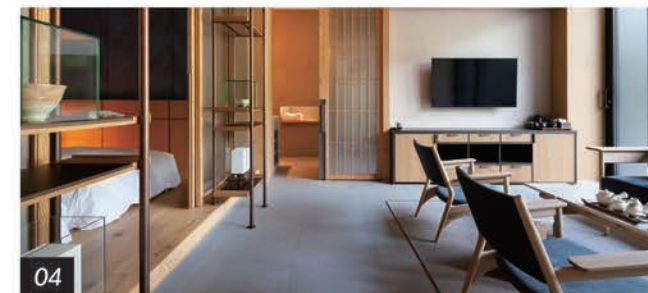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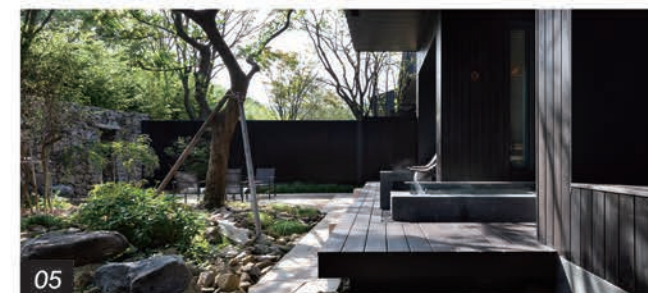
02



03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고요함을 깨우는 청개구리

어둠이 내려 연꽃마저 잠든 시간이면 청개구리가
적막한 연못의 주인이다. 울음주머니를 한껏 부풀려 요란하게
우는 걸 보니, 곧 큰 비가 내릴 모양이다.





윤슬처럼 반짝이는 섬마을 로맨스

섬에서 도망치고 싶은 공중보건의와 도시에서 도망쳐 온 간호사가 편동도에서 만났다. 과거의 섬에 갇힌 남자와 현재의 섬에서 도망치고 싶은 여자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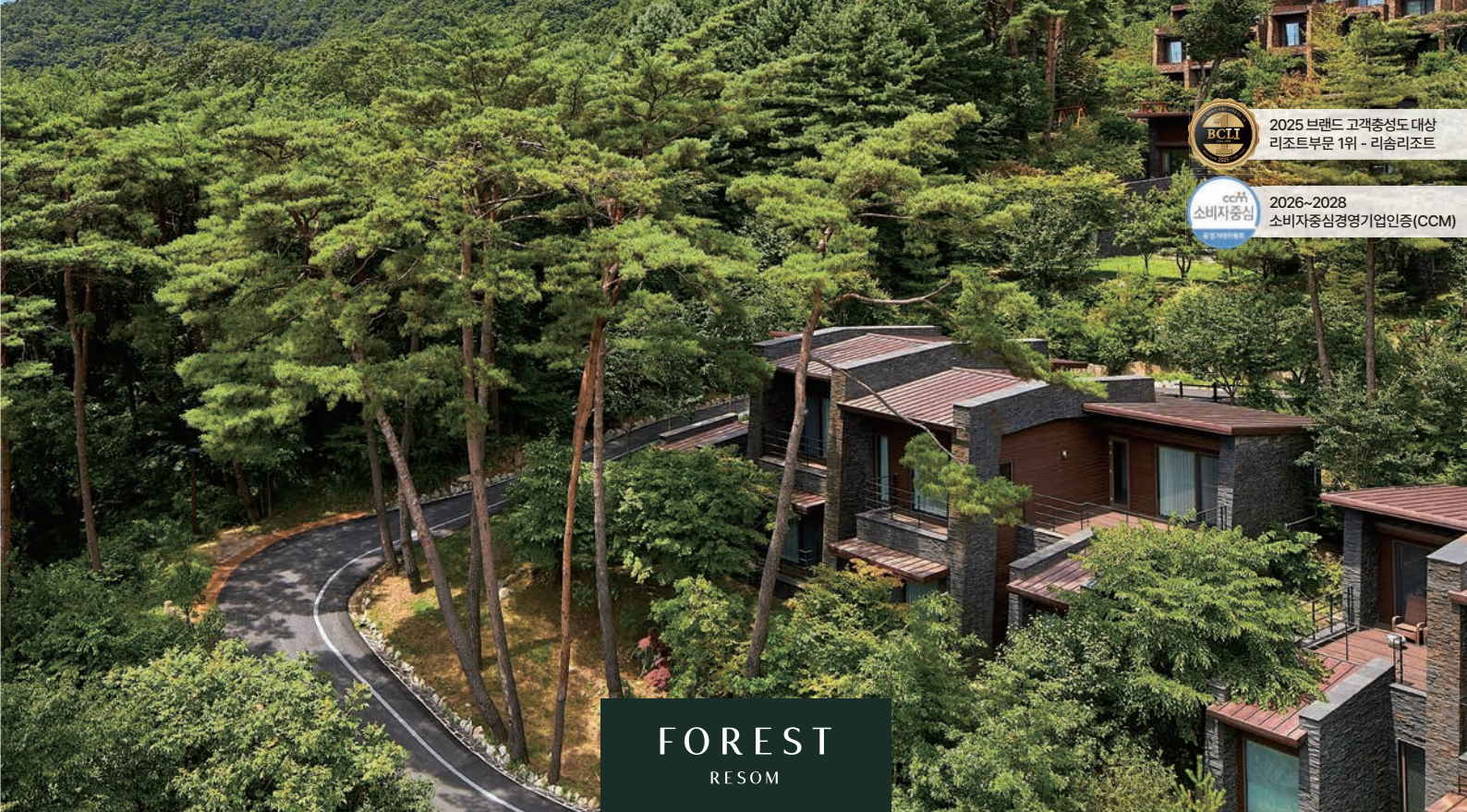


윤슬처럼 반짝이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메디컬 휴먼 로맨스 드라마다. 웹툰 <준버닥터>를 원작으로 한 <닥터 심보이>에는 이재욱, 신예은, 홍민기, 이수경, 김윤우 등 주목받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모두가 기피하는 섬 편동도에 발령된 공중보건의 도지의. 바다는 그에게 원인 모를 공포이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다. 지옥 같은 섬에 들어오는 배에서 육하리를 만난다. 상냥한 미소 뒤에 미스터리한 비밀을 품은 간호사다. 편동보건지소에서 함께 일하게 된 두 사람. 육하리는 도지의가 바다로부터 오는 공포에 압도되는 순간마다 나타나 그를 돕는다. 보건지소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소화제를 처방받으러 왔던 이장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당뇨로 발가락이 썩는 데도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와 30일 치약을 처방해 달라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어르신도 등장한다. 직원들의 사연도 만만찮다. 도지의는 바다에서 사고로 친구를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육하리는 누명에 가까운 불명예를 안고 대학병원을 떠났다. 또 다른 공중보건의 현치연은 편동도에 오기 전 치료했던 주민에게 소송당한 뒤 매사 수동적이다.

드라마 <닥터 심보이>는 모두가 꺼리는 편동도에 입도한 공중보건의 도지의의 고군분투를 그린다. 메디컬 휴먼 로맨스라는 장르에 맞게 환자를 치료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드라마의 배경인 편동도는 경남 거제 가조도다. 거제도가 품은 섬 중 두 번째로 큰 곳으로, 제작진은 가상의 섬 편동도 특유의 서정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전국의 섬을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드라마 속 설정과 달리 실체는 2009년 거제도와 가조도 사이에 가조연륙교가 개통해 차로 들어갈 수 있다. <닥터 심보이>는 도지의의 군사훈련 장면으로 시작된다. 훈련생들은 섬 발령을 기피하고, 섬으로 가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공유한다. 사건, 사람, 사랑. 도지의는 금지 조항과 엮이지 않고 무사히 섬을 탈출할 수 있을까.

© ENA



BCIT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리조트부문 1위 - 리솜리조트

CCF 소비자중심 2026~2028 소비자중심경영기업인증(CCM) 우수기업인증

FOREST
RESOM

일생에 단 하루만이라도 머물고 싶은 곳 리솜리조트 통합 특별회원 모집

*분양가 인상 임박

한 곳 한 곳 제대로 테마가 다른 리조트

제천, 안면도, 덕산, 제주에 위치한 리솜리조트는 각기 다른 천혜의 자연환경과 콘셉트로 다양한 휴양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한 곳 한 곳 특별한 테마를 가진 식음, 문화, 휴양 콘텐츠로 가는 곳마다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회원의 만족도가 높다.

바다·호수·설악산 풍광이 어우러진 고성 화진포 리솜(개발예정)

리솜리조트의 다음 프로젝트로 주목할 만하다. 동해 최북단, 바다·호수·설악산 풍광이 어우러진 '고성 화진포'에 약 450실 규모의 웰니스 리조트를 준비중이다. 아울러, 제주 퍼시픽리솜 또한 향후 특급 호텔을 갖춘 복합 해양리조트로 거듭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분양회원의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호반그룹(재계순위 35위) 계열사 안정성 1위 '리솜리조트'

리솜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호반호텔&리조트는 2025년 기준 국내 재계 순위 35위 호반그룹의 계열사로서 기업 신용평가 A+ 등급 등 우수한 신용도를 갖고 있다. 또한, 회원권 분양 및 회원서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회원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리조트부문 1위 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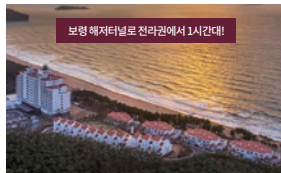
리솜리조트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리조트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였다. 리솜리조트는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재구매 의도 등 5개 조사 항목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소비자의 직접 투표로 평가 받아 보다 객관적인 고객만족 평가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리솜리조트 통합회원권 신규혜택

1. 회원가의 최대 50% 할인(1~2년)
2. 스파/워터파크 이용 무료(1년)
3. 스파 등 부대시설 최대 60% 상시할인



문화강성형 휴양리조트 포레스트 리솜&레스트리[제천]



로맨틱 산셋리조트 아일랜드 리솜[안면도]



해양문화테마파크 퍼시픽 리솜[제주]



사계절 온천리조트 스포러스 리솜[덕산]



동해 최북단 휴양지 화진포 리솜(개발예정)[고성]

프라이빗 에코리조트 포레스트 리솜

'이런 곳에 어떻게?' 처음 오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평균 해발고도 500m 원시 숲길에 자리한 한 동의 고요한 빌라 객실, 숲에서 즐기는 스파, 쏟아지는 별빛, 새소리에 잠깨는 아침까지 자연이 허락한 지상의 천상휴식을 경험하세요.



예술이 된 거장의 아틀리에, 김창열 화가의 집

김창열 화백의 집이자 작업실이 모두에게 열린 문화 공간이 되었다.
캔버스와 난로, 물감 자국이 남아 있는 작업실에서 거장의 삶과 예술을 마주한다.

지난 5월 개관과 동시에 화제가 된 공간이 있다. 서울 평창동 경사지에 자리한 김창열 화가의 집이다. '물방울 화가'로 알려진 김창열 화백이 1988년부터 2021년 작고할 때까지 30여 년간 가족과 생활하며 작업하던 곳으로, 생전에 시민들에게 작업실을 공개하길 바란 작가의 뜻에 따라 2022년 종로구가 매입해 공공 문화 시설로 조성했다.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며 관람하도록 설계됐다. 신발을 벗고 1층으로 내려가니 개관 기념전 <김창열, 물방울의 흔적>이 관람객을 맞는다. 회화 19점, 판화 4점, 드로잉 1점 등 총 24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화백의 작품 중에서도 보기 어려운 종이 판화와 한지 작업에 주목한다. 멀리서 보면 실제 물방울이 맺힌 듯 생생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형체가 모호해지며 추상화 같은 인상을 남긴다. 지하 1층 아카이브실에서는 지폐나 신문지, 전시 팸플릿 등 일상적 소재에 그린 물방울 드로잉도 선보인다. 관람의 하이라이트는 지하 2층 작업실이다. 1층의 천창과 지하 1층의 측창을 통해서만 은은한 자연광이 스며드는 이곳은 창문 없는 동굴 형태의 작업실을 원했던 화백이 직접 구상했다.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 둔 캔버스와 난방이 되지 않아 작가가 늘 불을 피우던 난로, 이젤 옆에 탐처럼 쌓인 유화물감, 크기와 모양이 저마다 다른 붓, 작업 구상을 위해 오려 둔 물방울 스케치 등에서 김창열 화백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관람을 마친 후에는 2층도 꼭 살펴보자.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북한산 자락에 폭 안긴 평창동 풍경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이곳이 원래 화백의 생활 공간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지하에서 작업에 몰두하다가 올라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돌리는 화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7길 74



PICASSO CERAMICS A SUMMER IN VALLAURIS



2026 MMCA 지역동행 피카소 도예 발로리스의 여름



도심 속 트리하우스, 수락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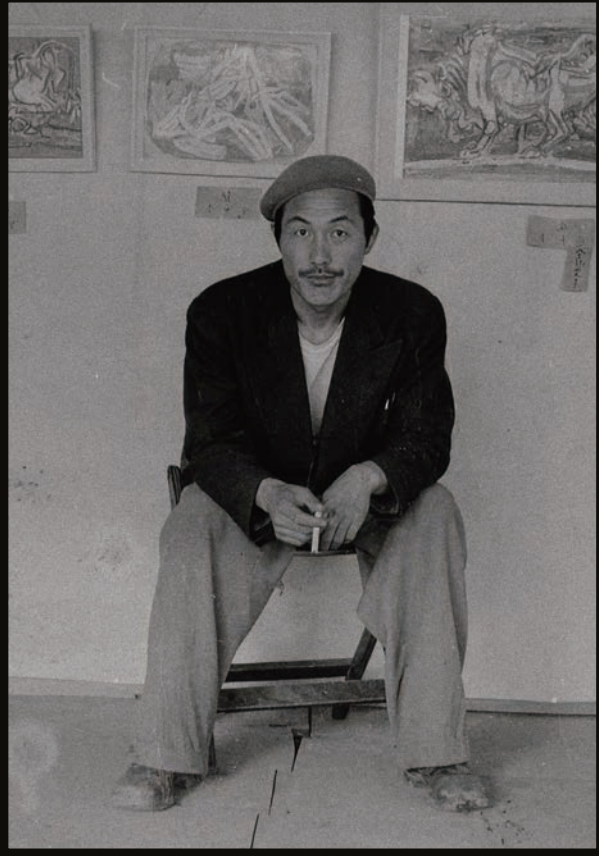
굴참나무 숲속, 유리 천창 위로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하룻밤을 보내는 트리하우스가 있다.
서울 노원구에 자리한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가뿐하게 출근할 수 있는 숲속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 노원구에 자리한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라
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노원구청에서 문을 연 수락휴는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에서 불과 1.6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
규모는 약 9800제곱미터. 아름답리 굴참나무 서식지와 맑은 물이 흐르는 수락
산 계곡이 주위를 감싸고 있어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진다.
수락휴의 객실은 총 25개. 본동과 개별동, 트리하우스로 나뉘며 2인실, 4인실, 6
인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은 트리하우스. 지상 14미터
높이에 철골 구조를 세우고 그 위에 목조건물을 올렸는데, 마치 소설 <툼 소여의
모험> 속 아지트를 현실로 옮겨 놓은 듯하다. 트리하우스를 찾은 날 '운 좋게' 비가
내리면 천창에 부딪히는 빗소리에 스르르 잠에 빠져든다. 객실의 베딩도 남다르
다. 5성급 호텔 수준의 침대를 들고 '1일 1침구류 전면 교체'라는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덕분에 숲속 특유의 눅눅함 없이 사각거리는 감촉을 느낄 수 있다.
부대시설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숲을 둘러싼 산책로가 완만한 목재 데크
으로 이루어져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방문자 센터에서는 디지털 디톡스를
돕는 LP와 보드게임을 빌려준다.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유아숲체험원도 있
다. 자연휴양림에 자리한 만큼 수락휴에서는 객실 내 취사가 불가능하다. 대신 흥
신애 요리 연구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씨즌 서울'이 건강하고 다채로운 메뉴로
아쉬움을 달래 준다.
주소 서울시노원구덕릉로145길 108

© 노원구청

조지프



조지프



물결치는 쪽빛 바다

초록의 풀에서 쪽빛을 깨운다. 꽃대가 올라오기 전 쪽을 베어 줄기째 발효시켜 쪽물을 얻는다. 쪽물로 염색한 직물은 산소에 노출되고 맑은 물에 씻기며 녹색, 옥색, 청록색, 청색으로 변한다. 염료량에 따라 색이 정해지는 화학 염색과 달리 천연 염색은 오로지 자연과 장인의 손에 결과물이 달렸다. 천연 염색 공방 예빛의 신재범 대표가 하늘하늘한 레이온 원단에 쪽물로 파도를 새겼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랑, 보라, 연두, 청록, 파랑, 남색 등 쪽이 발효되며 지나온 모든 색이 담겼다. 쪽염색숄 스카프는 크기가 넉넉해 커튼이나 가리개로 사용하기도 좋다.

다른 공간 안으로
: 여성 작가들의 공감각적 환경
1956-1976

2026.5.5-11.29

I n s i d e O t h e r S p a c e s

알렉산드라 카슈바, 〈스펙트럼 통과(Spectral Passage)〉, 1975 © Estate of Aleksandra Kasiba, Photography: Cinzia Capparelli, Courtesy Fondazione MAXXI | Museo nazionale delle arti del XXI secolo

LEEUM 

The original exhibition, *Inside Other Spaces. Environments by Women Artists 1956-1976*, was conceived and produced by Haus der Kunst Münche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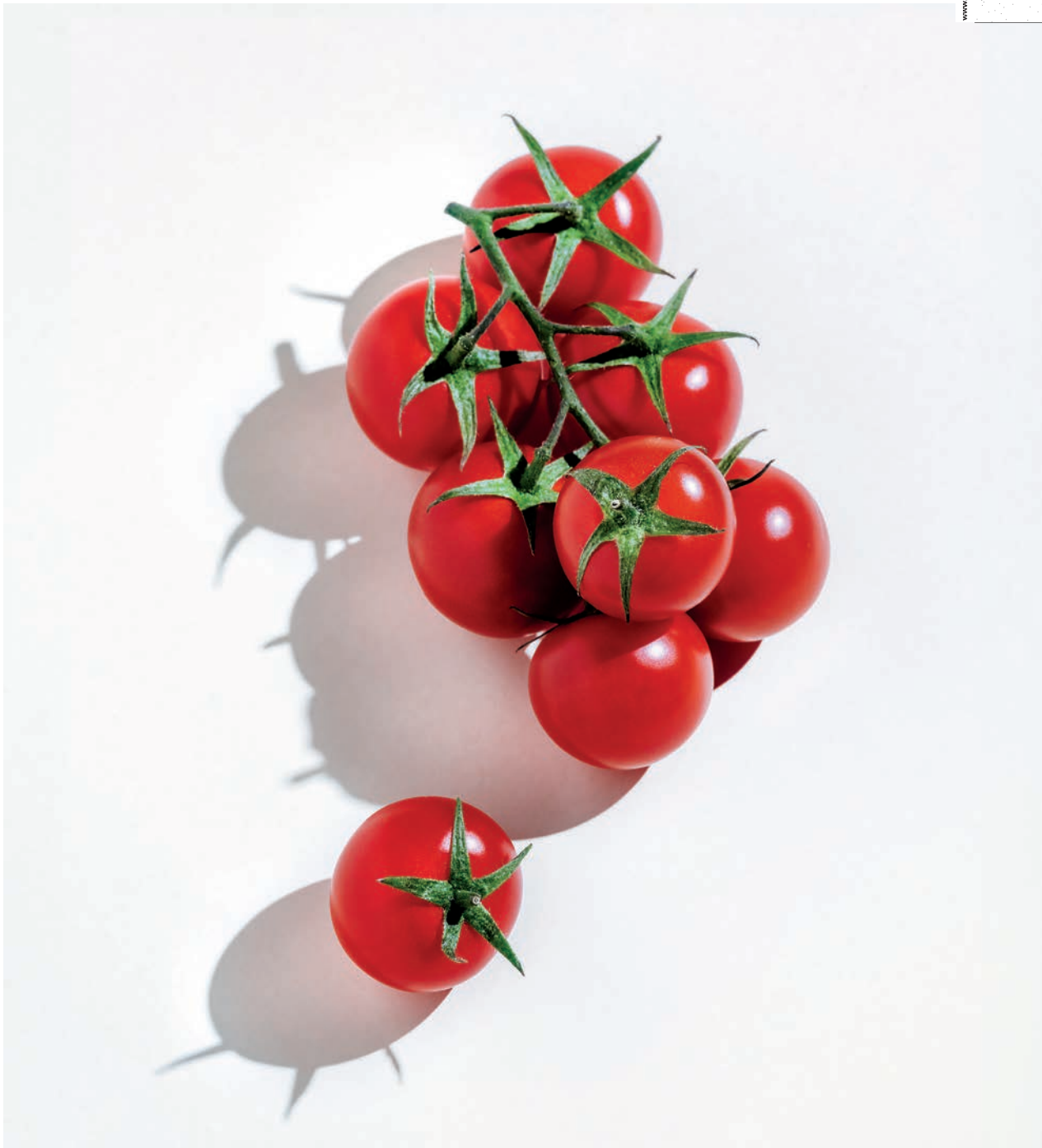
This exhibition is made possible by the generous support of our partners:

Lead Sponsor

 KB Financial Group

Presenting Sponsor

 BOTTEGA VENETA



파란만장한 토마토의 항해

이 빨간 토마토는 남미 페루 출신이다. 16세기 초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유럽에 전파됐고, 붉은 빛깔과 낫선 향 때문에 '마녀의 열매'라 불리기도 했다. 토마토가 식탁에 오른 건 17세기 무렵이다.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포도로, 영국에서는 러브 애플로 불렸다. 비슷한 시기 <지봉유설>에도 토마토가 언급된다. 남만시, '남쪽 오랑캐의 감'이라는 뜻이다.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C와 리코펜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항산화 효과가 좋은 토마토는 7~9월이 제철이다. 조리법이 다양하지만 여름에는 설당을 술술 뿌려 먹는 토마토 설탕 절임만 한 게 없다.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 이시형 명예원장

줄기세포로 자연 치유력을 높이다

단순히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 방법은 없을까.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과 이시형 명예원장을 만나 건강 수명을 늘려 젊게 사는 비법을 들었다.

웰빙 트렌드가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항노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줄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에 특화된 청담셀의원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선 면역력을 해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과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명예원장과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스페셜리스트 조찬호 대표원장에게 자연 치유력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다.

두 분 모두 안티에이징의 핵심 개념으로 '자연 치유력'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힘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은 본래 항상성과 재생력, 면역력을 갖고 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이 자연 치유력의 근간입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항노화 의학도 결국 자연 치유력과 회복 시스템이 더욱 잘 작동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학을 설명할 때 자연 치유력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연 치유력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이시형 명예원장** 누구나 움직이고 활동하는 '행동 체력'과 병을 막고 극복하는 '방어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행동 체력만으로 건강을 판단하지만, 방어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지치고 잔병치레가 잦아지며 회복도 느려집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결국 면역력, 자연 치유력과 연관된 방어 체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피로가 오래 지속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몸의 회복 기반이 흔들린 분이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는 큰 이상이 없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른바 '건강 회색 지대'에 있는 거죠. 방어 체력을 살펴야 한다는 이 명예원장님 말에 공감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면역과 재생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치료에 앞서 생활 습관을 먼저 파악합니다.

장수 비결도 생활 습관에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맞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 꾸준한 명상과 운동, 그리고 만성피로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력을 해치지 않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게 중요하죠. **조찬호 대표원장**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미 회복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노화가 누적됐을 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치나 면역력의 개인차도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학적 관리를 병행하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들 수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줄기세포 치료는 본래 몸이 가진 회복 시스템을 돕는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담셀의원은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를 종합해 개인별 건강 패턴을 다시 설계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부터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 관리 '활셀(活Cell)'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도 수차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방식이지요. 이 같은 관리는 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시형 명예원장** 내 몸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식사와 수면, 마음가짐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티에이징 출발점이 아닐까요. **조찬호 대표원장** 줄기세포 기반 접근은 회복력이 떨어진 몸의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재생의학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회복 기반을 끌어올려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료 소비자들에게 늘 '시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유리공예의 무한한 가능성, 2026 청주글라스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 공예주간을 맞아
2026 청주 글라스 윅이 7월 7일까지 충북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선우용 작가의 'CUBE Series'.

유리공예의 가장 큰 매력은 상반된 물성에 있다. 뜨거울 때는 액체처럼 유연하게 흐르지만 차가워지면 단단하게 굳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 빛을 반사하고 굴절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시간대와 주변 환경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점도 흥미롭다. 이러한 유리의 독특한 물성과 무궁무진한 표현의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바로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열리는 2026 청주 글라스 윅이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유리공예의 세계

2026 청주 글라스 윅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된다. 먼저 7월 7일까지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전시실에서 연거 전시 <HOT GLASS 2026: SPECTRUM>이 열린다. 블로잉 기법을 따르는 '핫글라스 작가회'의 기획

전으로, 조형 언어와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른 작가 9명이 참여한다. 빗방울 모양의 유리구를 만드는 서명수, 정육면체 유리 큐브 안에 다채로운 색과 무늬를 담아내는 선우용, 유리 표면에 맥(脈)을 그려 넣는 이기훈, 조선 시대 백자 달항아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이정원 등 개성 넘치는 작가의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유리라는 하나의 재료가 작가의 손을 거쳐 얼마나 다양한 조형 언어로 확장되는지 잘 보여 주는 전시다. 두 번째는 해외 작가 초청 교육 프로그램이다.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호주를 대표하는 유리공예가 듀오, 벤자민 에돌스와 캐시 엘리엇이 시연에 나선다. 블로잉을 맡은 벤자민 에돌스는 섭씨 1000도가 넘는 열로 녹인 액체 상태의 유리를 블로 파이프 끝에 문힌 뒤 숨을 불어넣어 형태를 만든다. 반면 콜드 워킹에 특화된 캐시 엘리엇은



곽동준 작가의 'Look in'.

굳은 유리를 정교하게 깎고 연마해 작품에 섬세한 디테일을 더한다. 방문객은 뜨거운 유리가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는 전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한다. 시연이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이 유리공예 기법을 체험하는 실습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작가의 작품 세계와 창작 과정, 작업 철학을 공유하는 '작가와와의 대화'가 열린다. 유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 2026 청주 글라스 윅에서 유리공예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보자.

청주 공방 거리의 중심,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2024년에 개관한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지역 공예 문화의 새로운 거점이다. 유리·금속·섬유 공방을 비롯해 교육 공간인 다목적홀, 공예상품을 전시하는 쇼룸과 갤러리 등으로 구성된 6개 동을 운영한다.

각 공방에는 램프워킹 토치, 금속 절단기, 공업용 미싱 등 전문 장비를 구비해 청년 공예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과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유일의 유리공예 특화 센터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블로잉과 램프워킹, 연마 등 공정별 작업 공간을 갖춘 점도 눈에 띈다. 또 예비 공예가와 전공자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입주 작가들은 공예트렌드페어와 공예주간 기획전, 시민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공예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공예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 플랫폼 역할도 한다. 유리·금속·섬유 분야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를 오감으로 즐길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7월에는 라탄공예와 가죽공예 클래스를 운영한다. 각 클래스는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섬유 공방 입주 작가인 송슬기가 이끈다. 오랜 라탄공예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제작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라탄공예 클래스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죽공예 클래스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각각 4회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7월 1일까지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작 지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OT GLASS 2026: SPECTRUM>

기간 7월 7일까지
장소 충북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문의 043-219-1105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

광활한 연잎의 어깨 너머로

망원경이 아닌 현미경의 시선으로, 인간이 아닌 소금쟁이가 되어.

해가 뜰 때 꽃봉오리를 열고 해가 지면 오프리는, 순백의 태양 찬양자.

2025년 7월 경북 상주



드넓고 오목한, 물에 젖지 않아 보송한 연못 곤충들의 여름 놀이터.

2025년 7월 충남 부여



월평균 800만 명이 보는 최고의 광고 효과
 <KTX매거진> 광고주를 모십니다.

일평균 27만 명, 월평균 800만 명이 <KTX매거진>을 만납니다.
 국내 최고의 열독률을 자랑하는 고품격 문화 여행지,
 <KTX매거진>이 광고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2-2276-1190, jony2@bandicom.com

신나는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GRAND OPEN

2026. 7. 11. 토 ~ 8. 17. 월

개장행사 7. 11. 토 ※7.13 / 7.20일은 휴장입니다.

운영시간 9:00 ~ 17:00 실내물놀이장 10:00 ~ 16:00

주요시설 자연계곡형풀장, 기찬광장, 실내물놀이장, 산림욕장, 기찬뽕길, 매점, 농특산물판매관



FESTIVAL



제6회 금산 삼계탕 축제

금산 07.10~12

여름철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주제로 금산에서 삼계탕 축제가 개최된다. 인삼의 고장답게 큼직한 인삼이 들어간 금산 전통 삼계탕은 물론 지역별 특산물을 더한 전국의 다양한 삼계탕을 선보인다. 인삼과 닭을 재료로 한 이색 간편 음식도 준비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약초를 활용한 건강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금산터미널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행사장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에 도착한다.

장소 충남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
문의 041-750-2316



제28회 동강뗏목축제

영월 07.31~08.02

지역 고유의 생활 도구이자 운송 수단이던 뗏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축제가 열린다. 동강뗏목축제는 영월의 대표 생태 자원인 동강과 수상 레저, 래프팅, 뗏목 체험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연계한 특색 있는 여름 축제다. 올해는 불꽃놀이와 뗏목 드론 쇼가 행사의 열기를 더하고, 나만의 뗏목 소원등 만들기, 친환경 뗏목 제작 및 경주 대회, 수영장 내 DJ 음악과 함께 즐기는 워터 파티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영월역에서 영월 동강둔치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장소 강원 영월 동강둔치
문의 033-375-6364



FESTIVAL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래

전주 07.17~18

'전주책래'는 조선 시대 서적 중개상을 뜻하는 '책래'에서 이름을 따온 독립출판 북페어다. 올해는 조선 후기, 완판본을 직접 찍어 내고 유통하며 전주의 책 문화 발전에 앞장선 서포(서점)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출판사·서점 94개 팀이 신작 홍보와 도서 판매를 하고, 전주의 옛 서점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서포의 방> 전시도 연다. 전주역에서 119번 버스를 타고 전동성당·한옥마을 정류장에 내려 5분 정도 걸으면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 닿는다.

장소 전북전주문화공판장작당및로컬
공판장 모이장 문의 063-230-1859



EXHIBITION



〈OCEAN: 가장 거대한 기록〉

서울 06.06~10.11

인류 탐험의 역사와 함께해 온 내셔널지오그래픽이 6년 만에 체험형 전시로 돌아왔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탐험가들이 심해에서 포착한 해양 생물 사진과 탐사 영상을 비롯해 XR(확장 현실),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결합, 관람객을 신비로운 바다 한가운데로 안내한다. 디즈니 캐릭터 아리엘, 모아나, 니모를 각 챕터의 가이드로 내세워 몰입도를 높인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하차해 10분 정도 걸으면 충무아트센터 건물이 나온다.

장소 서울 충무아트센터
문의 02-2230-6600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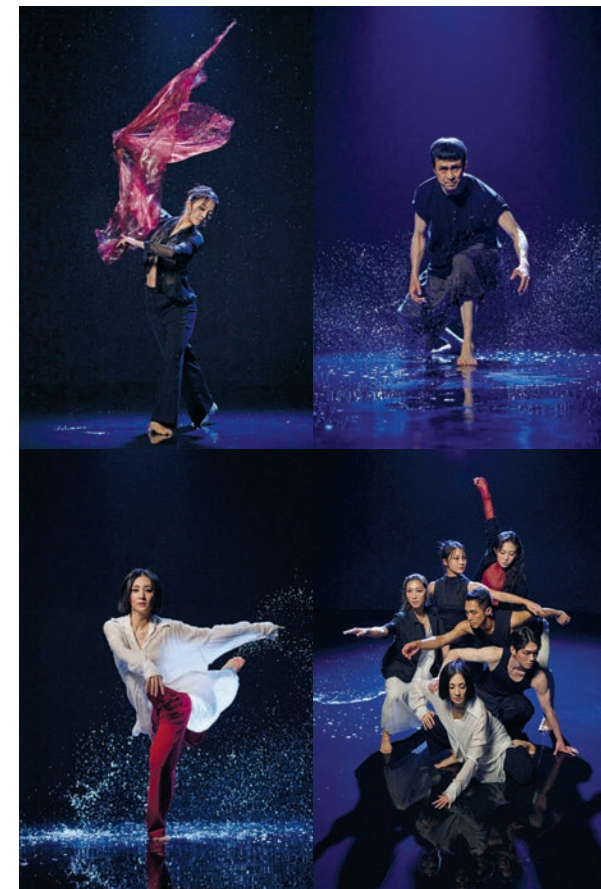
© (주)아이엠컬처

<더 헬멧>

서울 07.09~10.11

연극 <더 헬멧>이 4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스물 룸'과 '빅 룸'으로 나온 독특한 무대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진다. 민주화 운동 시기에 신념을 지키려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룸 서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룸 알레포'를 통해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혜화역에 내려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된다.

장소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문의 02-3485-8700



© 국립정동극장

<몸 4개의 강>

서울 07.12~14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대표작 <열하일기>에 수록된 '일야구도하'가 창작 무용으로 재탄생했다. '일야구도하'는 연암이 열하에 도착하기 위해 하룻밤에 무려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는 여정을 기록한 이야기다. 이러한 서사를 바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무용 언어로 풀어냈다. 인간의 몸이 지닌 존엄성에 주목한 공연으로, 몸이 과시와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시대적 현상에 질문을 던진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시청역에 하차하면 도보 3분 거리에 국립정동극장 세실이 있다.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세실
문의 02-751-1500



전국 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기차 타고 가는 전국 축제 총정리

기차와 연계 교통을 이용해 찾아가는 7월의 전국 축제를 총정리했다.

1

제29회 보령머드축제

기간 7월 24일~8월 9일

장소 충남 보령머드엑스포광장

찾아가는 법 대전역에서 102번 버스를 타고 해수욕장·만남의 광장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2

제24회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기간 7월 24일~26일

장소 세종 도도리파크 일원, 세종시민운동장

찾아가는 법 도도리파크 조치원역에서 도보 20분
세종시민운동장 조치원역에서 12번 버스를 타고 세종시민체육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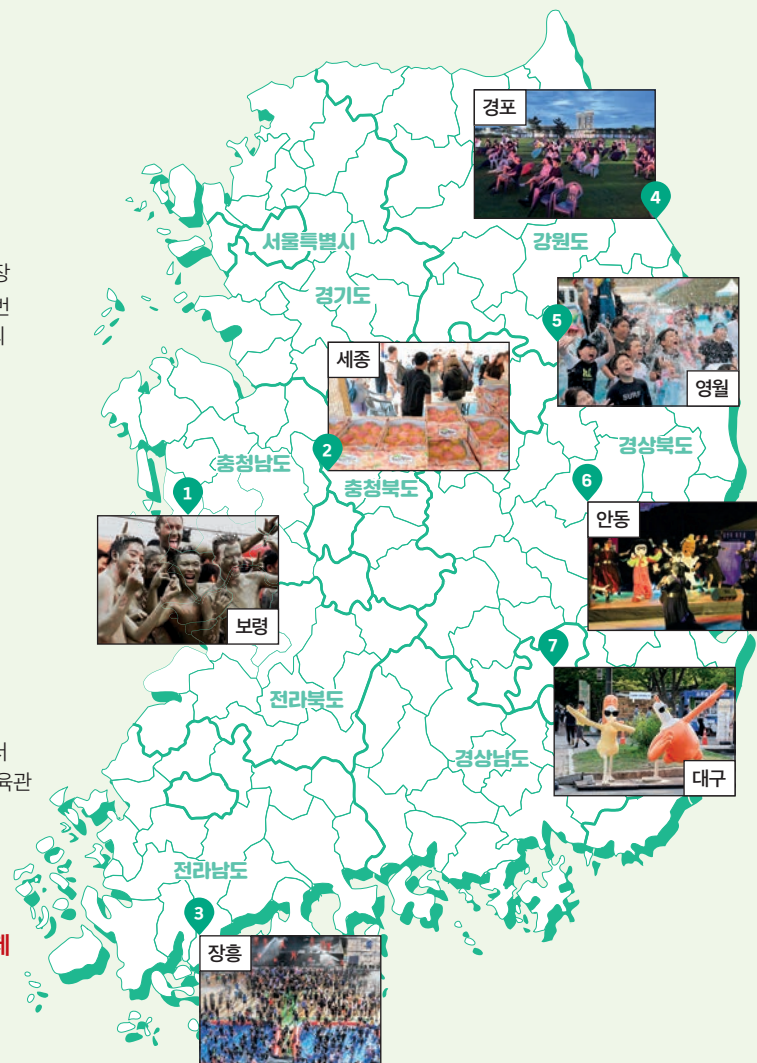
3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 7월 25일~8월 2일

장소 전남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장

찾아가는 법 전남장흥역에서 도보 25분



제주도

4

2026 경포여름해변축제

기간 7월 3일~8월 22일

장소 강원 강릉 경포해변

찾아가는 법 강릉역에서 202-1번 버스를 타고 경포해변(종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4분

5

제28회 동강뱃목축제

기간 7월 31일~8월 2일

장소 강원 영월 동강둔치

찾아가는 법 영월역에서 도보 20분

6

2026 안동 국가유산 아행 월영아행

기간 7월 31일~8월 9일

장소 경북 안동 월영교 일원

찾아가는 법 안동역에서 112번 버스를 타고 월영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4분

7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기간 7월 1일~5일

장소 대구 두류공원 일원

찾아가는 법 대구역에서 653번 버스를 타고 상서고등학교 앞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EVENT

퀴즈 풀고 KTX 할인 쿠폰 받자!

응모 방법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응모 기간 7월 1일~20일

상품 KTX 운임 10퍼센트 할인 쿠폰 10명(1인 2매)

당첨자 발표 8월 7일, 기차여행 홈페이지 (korail.com/tour/main)에 공지



시간의 층위, 광명

복잡한 도로에서 몇 걸음만 벗어나면 산책로가 나오고,
길 끝에서 숲과 강을 만난다. 빠른 변화 속에 과거의 정서가 중첩된 도시,
경기 광명이 지나온 시간의 단면을 살폈다.
눈에 보이는 풍경보다 그 이면의 기억을 응시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광명역까지 20분 정도 걸린다. 수도권 전철 1호선도
광명역에 정차한다.

빛으로 기록된 도시의 서사

거대한 문화공간이 된 동굴부터 도심 속 생명의 보고가 된
내륙 습지까지, 도시가 겪은 시간의 충위를
그대로 품은 곳들을 찾아다녔다. 반짝이는 빛 아래
숨 쉬는 오래된 시간을 찾아서.

한여름에도 도톰한 점퍼를 입어야 할 정도로 서늘하다는 얘기가 떠오른 건
순전히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이다. 지난여름 광명동굴에 다녀온 동료는 “입
구에서부터 시원한 자연 바람이 불어 땀이 식었다”라며 자연은 지구 온도 조
절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시원한 자연 바람’과 ‘지구 온도 조절’이
라는 말이 매혹적이었지만 도시 생활자에게 광명은 그리 매력적인 여행지가
아니었다. 일상의 연장이 될 것이 뻔했다. 올해도 여름 초입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가볍게 넘겼고, 최악의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뉴스가 연일 들려왔
다. 오가는 말 속에 습도가 더해져 물 먹은 솜처럼 한없이 아래로 침잠하던 날,
광명동굴이 떠오른 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광명동굴은 광산 개발로 생긴 인공 동굴로 현재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
바꿈했다. 광명에는 비슷한 공간이 더 있다. 산업이 변화하면서 쓸모를 잃은
저수지는 내륙 습지가 되어 도시에 숨을 불어넣고, 기피 시설인 하수처리장은
공원으로 바뀌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을 피운다. 폐채석장 절벽 위에 출렁다
리가 놓이면서 숲의 풍경도 달라졌다. 신도시라는 수식에 가려진, 광명이 지
나온 시간의 충위를 되짚어 볼 때가 됐다. 일정을 정하고 광명시청 홈페이지
(gm.go.kr)에서 문화관광해설을 예약했다.

폐광에서 캐낸 희망, 광명동굴

동굴 입구가 가까워지자 서늘한 바람에 땀이 식는다. 바람길을 따라 줄줄 흐
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광명동굴의 중심인 원형광장까지 걷는다. 네 개의 동공
이 만나는 이 광장을 중심으로 옛 갯도를 따라 볼거리가 이어진다.
“광맥은 암석이 틈을 따라 길게 이어져요. 발견하면 엄청난 부를 얻는다 해서
‘노다지’라 하죠. 그런데 이게 순우리말이 아니에요. 한국 광산은 대부분 외
국인이 개발했어요. 광맥을 발견하면 ‘컨드리지 마라는 의미로 “노 터치(No
touch)”라 했는데, 영어를 모르는 노동자들이 이 말을 ‘노다지’로 들은 거죠.”
1950년에 발행한 광명동굴에 관한 첫 기록 <금천지>에 따르면, 1903년 5월
2일 경기 시흥군 가학리에 시흥광산이 개광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
인 이름으로 광산 설립 허가가 났고 19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채굴





1

한 금, 은, 동, 아연, 구리 등의 광물은 일본으로 보내 태평양전쟁의 무기가 됐고, 해방 전까지 엄청난 양을 수탈했다. 광복 이후 광업권이 해결되지않은 채 폐업 상태로 방치됐으며 6·25전쟁 중 마을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기도 했다. 폐광이 된 건 1972년이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나 광산 아래 쌓여둔 광석 찌꺼기가 마을을 덮치면서 보상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광산은 문을 닫았다. 이후 40년간 새우젓 보관 창고로 쓰이며 잠들었던 동굴의 시간을 깨운 건 광명이다. 토지를 매입해 관광지로 개발하고 2011년 일반에 공개했다.

가학산 상단의 노두부터 이어지는 갱도의 총길이는 7.8킬로미터로, 0레벨부터 지하 7레벨까지 연결된다. 이 중 관광객의 발길을 허락한 곳은 0레벨과 1레벨의 2킬로미터 구간인데, 재미집처럼 갱도를 따라 동공이 이어진다. 대부분의 공간은 어둠을 밝히는, 희망을 찾는 빛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꾸몄다. 뽀빠이 광장에서 '빛의 공간'을 지나 복싱 경기부터 패션쇼, 콘서트, 미디어 파사드 쇼 등이 열린 '동굴 예술의전당'과 암반수를 활용한 수족관 '동굴아쿠아월드', 방문객의 황금빛 소원으로 장식한 '황금길'을 거쳐 지하 1레벨로 내려갔다. 만지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금괴 모형이 있는 '황금궁전'과 동전을 던져 보물 상자에 넣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황금의 방', 그리고 지하 2레벨에 있는 호수까지 돌아왔다. 0레벨로 올라오는 길에는 영화 <반지의 제왕> 팀이 제작한 41미터 길이의 용과 골룸이 전시된 '판타지 웨타 갤러리'를 감상했다.

동굴을 나와 전망대로 향하는 길, 선광장이 눈에 들어온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다. 당시 사용하던 기계는 사라졌지만, 그것을 고정하던 기초석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간직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선광장 앞 건물은 2016년에 문을 연 '라스코전시관'으로, 현재 <광명동굴 공룡탐험전>이 진행 중이다.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다양한 공룡을 만날 수 있다. '동굴전망대'에 이르자 푸른 숲에 둘러싸인 도시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청량하다. 어두운 동굴에서 시간을 잊은 채 금맥을 찾아 헤맸을 광부의 오랜 기억에도 이 장면이 청량하게 남았을까.

폐기된 자원에 가치를 더하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동굴을 장식한 설치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소망의 초신성'이었다. 방문객들의 소망이 적힌 황금 패로 만든 것으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레지던시 출신 김희준 작가의 작품이다. 2015년 6월에 문을 연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국내 최초 업사이클 예술 공간이다. 광명동굴 자원회수시설 홍보동에 있던 것을 2024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광명시민체육관 옆으로 옮겼다. 1층 전시장에서는 2026년 상반기 기획전 <업사이클 인터랙티브>전이 열리고 있다.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업사이클 아트, 기계적 움직임이 빛내는 역동적인 키네틱 아트, 관람객의 반응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미디어 아트가 만난 전시로,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움직이며 작품의 일부가 되는 체험을 한다. 전시는 10월 18일까지다. 주말에는 체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빈병과 자투리 천을 활용한 업사이클 조명, 자투리 가죽으로 제작하는



2

1 광명동굴 '동굴 예술의전당'에서는 10분마다 3분 길이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상영된다. 2 방문객들의 소망이 적힌 황금 패로 만든 설치 작품 '소망의 초신성'. 3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역사부터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자원 공급 역할을 했던 광명동굴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근대역사관.



3

카드 지갑,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만드는 미니 키링, 자투리 원목이나 폐목재를 활용한 소품 및 가구 제작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upcycle.gm.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멸종 위기 금개구리가 사는 내륙 습지, 안터생태공원

나무의 나이테로 그해의 특징을 분석하듯 시간의 증위를 잘라 해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광명에서는 망설임 없이 안터생태공원부터 봐야 한다.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어요. 이곳은 본래 논과 밭에 물을 대던 저수지였고요. 도시 기능이 바뀌면서 논밭이 사라지자 물웅덩이만 남았죠.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쓰레기를 마구 버려 악취가 심했어요.”

안터생태공원의 옛 모습을 설명하는 생태해설사의 미간에 주름이 잡힌다. 버려진 저수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적 수질 정화 시스템으로 오염원을 처리해 수질을 개선했다. 물 순환이 원활하도록 실개울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안터생태공원은 7종의 양서류와 파충류를 비롯한 다양한 습지 식물과 어류, 조류, 곤충의 집으로 바뀌었다. 과거를 떠올리면 천지개벽 수준이라는 말 뒤로, 규모는 작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습지 생태계가 발견될 거라는 얘기가 이어진다.

“금개구리는 등에 두 개의 줄무늬가 있어요. 물에 젖어 햇빛을 받으면 줄무늬가 금색으로 반짝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울음소리도 독특해요. 울음주머니가 없어 뽀뽀하는 것처럼 ‘쭉쭉쭉’ 하고 우는데, 안터생태교육센터 1층 전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1 일찍 깨어난 금개구리가 노랑어리연꽃잎 위에서 쉬고 있다. 2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1층에서 2026 상반기 기획전 <업사이클 인터랙티브>가 진행 중이다. 3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로 음식을 만드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4 쓸모를 잃고 버려진 저수지를 생태계의 보고인 내륙 습지로 복원한 안터생태공원.



1 폐채석장 부지에 설치한 도덕산
출렁다리, 초록빛 숲과 인공 폭포,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과
화합을 상징한다. 2 도덕산공원
초입에 위치한 연못의 야경.
수생식물 위로 다양한 빛깔의 LED
조명이 은하수처럼 반짝인다.
3 KTX 광명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새빛공원. 멀리 떠나지
않아도 여유로운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 좋다.

1

시판에 개구리 소리를 비교해 듣는 키오스크가 있으니 방문해 보세요.”
안터생태공원에서는 매달 다른 주제로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7월에는
개구리 관찰 수업이 예정돼 있다. 프로그램은 광명시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gmecolearn.or.kr)에 1개월 전에 공지하는데, 광명에서 수준 높은 생태 수업
을 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채외수정을 하는 개구리는 배
속에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는 것과 무당벌레는 진딧물
을 먹고 진딧물이 풀잎 위에 흘린 액체는 개미의 먹이가 되므로 진딧물이 있는
곳에는 무당벌레와 개미가 공생한다는 사실, 그리고 미세한 털이 방수 기능을
하는 연잎은 곤충의 우산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
로 기획했지만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는 생태해설사의 얘기가 납득된다.
내륙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다. 빗물을 저장해 홍수를 조절하고, 수
생식물이 자라 수질을 정화하며,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기후변화를 억
제하는 것은 물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한 가지 고민은 습지를 복원하면서
식재한 식물의 번식력이 너무 강해 물보다 습지식물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
이다. 공원이 육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중이다.

과거의 시간이 나이트처럼 새겨진 공원

새빛공원은 KTX 광명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도시 정원이다. 기피 시설
인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면적이
축구장 25개에 달하는 공원에는 플라워가든, 새빛광장, 뱃나무길, 이팝나무
길, 사색의 정원, 메타세콰이어길 등 다양한 테마로드가 있어 산책하기 좋다.
공원 중심의 커다란 호수는 집중호우 때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해 침수 피
해를 줄이는 저류지다. 잔잔한 호수 위에 나무 텍으로 길을 내고 주변에 다양
한 꽃과 나무를 심어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 준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
는 청년, 아빠와 해먹에 누워 노는 아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생활체육 동호
인까지, 평화로운 풍경에 이곳이 하수처리장 위에 조성됐다는 사실을 잊게 된
다. 저녁이 되면 호수에 조명이 켜지고 빛을 따라 분수가 춤을 춘다.
거친 돌을 깨내던 채석장 부지가 숲속 공원으로 변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덕
산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뻥뻥한 숲 같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 아늑한 녹지에
발을 들였다. 도덕산공원 입구부터 경사가 완만한 길을 오르며 어린이 놀이터
와 분수대, 정자, 야외 음악당 등을 차례로 만난다. 경사가 제법 가파른 계단
을 오르니 그 끝에서 시원한 물소리가 들린다. 폐채석장 터에 설치한 인공 폭
포다. 높이 20미터에 이르는 절벽 위에는 Y자형 현수교인 출렁다리가 놓여 있
다. 다리 중앙부에 서자 바위 절벽에서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와 호수가 한눈
에 들어온다. 바닥이 메시구조로 뚫려 있는 곳에 다다르자 하늘을 나는 느낌
마저 든다. 출렁다리를 지나 도덕산 정상으로 향했다. 푸른 숲 너머로 도시가
살아 있다. 도덕산 출렁다리에 조명이 켜지고 숲 너머 아파트와 주택가에도
하나둘 불빛이 들어온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 광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선 느낌이다.



2



3

A wide-angle photograph of a vibrant green field filled with tall grass and numerous yellow flowers. In the lower-left foreground, two people wearing hats are crouching down, looking at the plants. In the background, a wooden suspension bridge with railings stretches across the field, surrounded by dense green trees. The scene is bathed in bright, natural light, creating a fresh and lively atmosphere.

Gwangmyeong Cave and Dodeoksan Suspension Bridge

Cool enough to require a jacket even in midsummer, Gwangmyeong Cave is a man-made cavern created through mining operations. Develop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extract mineral resources, it yielded vast quantities of ore before Korea's liberation. Afterward, unresolved mining rights left the site abandoned, and during the Korean War it served as a refuge for local residents. The mine ultimately ceased operations in 1972. That summer, severe flooding caused piles of mining waste stored below the site to spill into nearby villages, leading to compensation disputes and the mine's permanent closure. For the next four decades, the cave found an unlikely second life as a storage facility for salted shrimp. Its long slumber ended when the City of Gwangmyeong acquired the site and transformed it into a tourist attraction, opening it to the public in 2011. Today, it has evolved into a cultural and arts complex that draws on the history of both the cave and the city. Visitors follow a maze of tunnels lined with exhibits, many of which explore themes of light, hope, and renewal emerging from darkness.

A short distance away, on the site of a former quarry where stone was once extracted, stands Dodeoksan Suspension Bridge. Opened in August 2022, the Y-shaped suspension bridge rises 20 meters above the ground, connecting the upper section of Dodeoksan Artificial Waterfall with two mountain trails. Dodeoksan Suspension Bridge has quickly become one of the city's most recognizable landmarks. The center of the bridge is especially popular with visitors seeking photographs framed by the dramatic waterfall backdrop.

Address 142, Gahak-ro 85beon-gil, Gwangmyeong-si, Gyeonggi-do (Gwangmyeong Cave), 86, Dodeok-ro (Dodeoksan Suspension Bridge)

시대를 초월해 빛이 된 사람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광명에 새겨진 두 이름, 오리이원익과 시인 기형도의 자취를 쫓았다. 빛이 된 그들이 못다 한 말에 귀 기울였다.

지난 가을 광명문화원 2층에 광명역사관이 개관했다. 광명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시대별로 보여 주는 곳으로 시민이 기증·기탁한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한다. 광명역사관을 건립하면서 광명문화재단은 사람에 주목한 듯하다. 광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남긴 삶의 족적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신문화를 기반으로 전시실을 구성했다.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 조선 중기의 문신 이원익이다. 왜란과 호란을 수습하고 대동법을 시행해 백성의 어려움을 줄여 준 명재상이다. 그의 호인 오리(梧里)는 지금도 광명 곳곳의 지명에 남아 있다. 이원익의 정신을 계승하는 오리서원 맞은편에 2017년 기형도문학관이 개관했다. 스물아홉 살에 요절한 시인과 미수(米壽)까지 장수한 조선의 문신이 이웃이 된 거다. 앞서 공간에 남겨진 시간의 층위를 살폈다면, 이제 시대를 초월해 공간에 머무는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차례다.

조선 시대 종택에 들어선 박물관

낮은 건물이 촌촌히 들어선 주택가 골목, 흙담을 치마치럼 두른 한옥이 빼꼼히 고개를 내민다. 이원익 종가에서 설립한 충현박물관이다. 이원익은 조선 태종의 열두 번째 아들 익령군의 4대손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까지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다. 13대 중부 황금자 관장은 신혼생활을 시작한 1960년대에 먼지 쌓인 대가옥 곳곳을 뒤져 1800여 점의 유물을 모아 보관했고, 400년 넘는 집안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해 2003년 박물관을 개관했다. 이 일대는 이원익이 말년에 여생을 보낸 곳으로, 인조가 하사한 관감당과 사당인 오리영우, 종택 등이 모여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원익 선생은 문신임에도 불구하고 평안도순찰사 제수가 돼 군사를 지휘했어요. 선조의 어가를 모시는 한편 왜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공적을 드러내지 않고 병사들에게 포상할 것을 청했죠. 평안도관찰사로 재임할 때부터 부역을 줄이고 폐단을 없애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박물관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가장 귀한 유물은 이원익의 초상화 네 점이다. 동시대 인물인 서애 류성룡과 충무공 이순신의 초상





1 인조가 하사한 집인 관감당. 충현박물관 내에 위치한 관감당의 단아한 모습이 청백리 이원익을 닮았다. 2 계절의 변화를 섬세하게 감각하는 기형도문학관 북카페. 3 기형도 시인의 누나인 기형도문학관의 기형도 명예관장.

화가 단 한 점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특별한 일이다. 지하 전시관에서는 후손들이 남긴 고문서와 목가구, 제기, 집기 등의 생활용품을 볼 수 있다. 충현관 마당을 지나 종택에 들어섰다.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문간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 ㄹ자형 배치를 이룬다. 후손들이 살던 주택 내부에는 그들이 사용했거나 수집한 반상과 장롱, 뒤주, 절구 같은 생활 유물이 전시돼 있다. “이원익 선생은 65년간의 공직 생활 중 44년을 재상으로 지냈지만 평생의 재산은 두어 칸짜리 오두막이 전부였어요. 인조는 벼슬에서 물러난 선생이 비가 새는 초가에 산다는 말을 듣고 지위에 맞는 정당을 지어 주도록 명했지만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고사했어요. 그러다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은 불충이라는 임금의 말에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관감당이에요. 신하와 백성 모두 이원익의 청렴한 삶을 ‘보고 느끼게 한다’는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종택 옆 관감당은 병자호란 때 훼손된 것을 1916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앞마당에는 이원익이 거문고를 타던 탄금암과 400년 수령의 측백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 관감당 뒤편에는 이원익의 영정을 모신 사당 오리영우가 자리한다. 위패만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에는 감실을 따로 만들어 영정을 함께 모신다. 현관은 숙종이 내려 준 것으로 인조가 하사한 관감당 옛터에 이사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현박물관 맞은편에는 별관인 죽서관이 있다. 이곳에서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6년 기획전 <전통과 환영-이을 런(連), 맺을 결(結)>이 열린다. 종가의 유물과 14대손인 이종혁 작가의 현대 예술 작품이 조우하는 자리다.

빈집을 채우는 청춘의 언어, 기형도문학관

기형도문학관에 도착해 시인의 누나 기향도 명예관장을 만났다. 한국을 떠났다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돌아왔는데, 얼마 전 어머니도 하늘로 보내 드렸다는 그에게 시인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다.

“문학관을 찾은 분들이 종종 저에게 동생 기형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요. 저는 간단하게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답하죠. 문학관에 전시된 시인의 유품을 통해 그의 성격과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 성적이 우수했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어요. 음악을 사랑했고, 굉장히 꼼꼼했어요. 동료와 후배 문인들이 시인에 대해 회고하는 영상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섬세한 언어로 담아낸 기형도 시인은 1960년 연평도에서 태어나 1964년경 광명(당시 경기 시흥군)으로 이사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렸고, 중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누이를 잃으면서 적극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뒤 이듬해 신춘문예에 ‘안개’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그리고 시집 발간을 준비하던 1989년 3월 7일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시인이 남긴 여러 편의 시와 노트 기록을 정리해 같은 해 5월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이 발간됐다.

기형도문학관 1층 상설 전시실은 시인의 생애와 작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인 기형도’,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과 시편으로 구성된 ‘유년의 윗

목, 등단작 '안개'의 시어가 강처럼 흐르는 감각적인 공간 '안개의 강', 문학상 수상 관련 작품을 전시한 '은백양의 숲', 등단 후 활발한 문단 활동과 신문기자로 일했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저녁 정거장' 등으로 구성됐다. 나희덕 시인과 성석제 소설가 등 시인을 추억하는 지인들의 인터뷰 영상이 흐르고, 후배인 강성은·김행숙·오은·최하연 시인이 낭송한 기형도 시인의 시를 청취하는 공간도 있다. 시인의 시를 필사하거나 낭독을 녹음해 개인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애기에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보다 귀한 기념품은 없을 듯해서다. 전시관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왔을 때 "기형도문학관에 시인의 정서적 풍경이 담긴 듯하다"라고 하자 기향도 명예관장이 활짝 웃어 보인다. 문학관 2층 북카페와 강당, 창작체험실에서는 '기형도 시인학교'를 비롯한 시문학 강연과 워크숍 등이 열린다. 시인의 시비를 찾아 기형도문화공원과 안양천 햇무리광장까지 돌아봤다. 시인의 삶은 멈췄지만 시는 남아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

광명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도시의 향기

광명에 가면 전통 시장에 들러 '홍두깨 칼국수'와 '원조 광명 할머니 빈대떡'을 먹은 다음 '크로레라 제과'에서 빵을 사 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광지보다 시장 구경이 재미있다는 말도 들었다. 심지어 의식주의 '주(집)'를 제외하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고도 했다. 광명전통시장은 1970년대 초반부터 닻새마다 열리는 작은 오일장에서 시작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사이 블록을 전부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이곳에는 현재 400여 개의 점포가 입점했다. 취급 품목에 따라 구역이 나뉘는 어느 대형 시장과 달리 모두 뒤섞여 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그 때문에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파랑 거리와 빨강 거리가 시장 중앙을 관통하고, 평행한 두 거리 사이를 주황·노랑·초록·남색·보라색 거리가 사다리처럼 연결한다. 장을 보러 온 동네 사람과 맛집을 찾아온 여행자, 안양천을 따라 뛰어온 러닝족과 자전거족까지 더해져 시장 골목이 북적인다. 어머니와 아들이 운영하는 기름집, 모녀가 함께 하는 떡집, 장모와 사위가 꾸려 나가는 채소 가게 등대를 이어 자리를 지키는 집이 많아 이야깃거리도 풍부하다.



1

1기형도문학관 2층에는 시인의 대표작 '안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노동식 작가의 설치 작품 '안개의 방'이 자리한다. 2오일장으로 시작해 현재 400개가 넘는 점포가 입점한 광명전통시장. 경기 3대 전통시장 중 하나로, 대를 이어 운영하는 노포가 많다.

제작 지원 광명시장



Lives That Still Shine Ori Yi Won-ik and Poet Ki Hyung-do

The legacies of two figures closely associated with Gwangmyeong, Ori Yi Won-ik and poet Ki Hyung-do, live on at Chunghyeon Museum and Ki Hyung-do Literary Museum. Chunghyeon Museum was established by the descendants of Yi Won-ik's family. A fourth-generation descendant of Prince Iknyeong, the 12th son of King Taejong, Yi Won-ik served as Chief State Councilor under three kings: Seonjo, Gwanghaegun, and Injo. Beginning in the 1960s, Hwang Geum-ja, the family's 13th-generation matriarch, searched through the dust-covered residence where she had begun her married life, collecting and preserving more than 1,800 artifacts. She also researched and documented over four centuries of family history. The museum was later opened in a modern building constructed beside the ancestral home.

Ki Hyung-do Literary Museum is dedicated to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literary legacy of poet Ki Hyung-do, whose work continues to resonate with generations of readers. On display are valuable materials including handwritten notebooks, awards and certificates, his Dong-A Ilbo Spring Literary Contest plaque, and manuscripts published during his lifetime. A popular destination for literature enthusiasts, the museum also features exhibition galleries, a book café, an auditorium, and reading spaces.

Address 5-6, Ori-ro 347beon-gil, Gwangmyeong-si, Gyeonggi-do (Chunghyeon Museum), 268, Ori-ro (Ki Hyung-do Literary Museum)



新 광명구(9)경

전문가심사를 거쳐
광명대표 관광지
아홉 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시민 6711명이 직접
뽑았다.



2경 광명전통시장



4경 광명 안양천



1경 광명동굴



3경 도덕산 출렁다리



5경 KTX 광명역



6경 충현박물관



7경 기형도문학관



8경 안터생태공원



9경 새빛공원

1경 광명동굴

일제강점기에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1912년부터 개발했다. 1972년 폐광된 이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역사·문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총길이 7.8킬로미터 중 2킬로미터 구간을 개방하며 원형광장, 빛의 공간, 동굴 예술의전당, 동굴아쿠아리움 등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공간을 조성했다.

주소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문의 070-4277-8902(방문자센터)

2경 광명전통시장

1970년대 초 오일장으로 시작해 현재는 400여 개 점포가 입점한 경기 3대 전통시장 중 하나로 성장했다. 쾌적하게 관리된 아케이드에 첨단 시스템으로 안전함을 더하고, 편리한 주차시설까지 갖췄다. 전통의 정취와 현대적 편의 시설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며, 40년 이상 대를 이어 운영하는 노포가 많아 깊은 맛과 내공을 느낄 수 있다.

주소 광명시 광일로 13번길 17-5 문의 02-2614-0006

3경 도덕산 출렁다리

도덕산 인공 폭포 상부와 등산로 두 곳을 연결하는 높이 20미터의 Y자형 출렁다리다. 2022년 8월 개통 이후 광명동굴과 함께 광명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했다. 다리 중앙부에서 인공 폭포를 배경으로 한 인증 사진 스폿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오후 7시까지 인공 폭포가 가동된다.

주소 광명시 도덕로 86 문의 02-2680-6298

4경 광명 안양천

광명을 관통해 흐르는 도심 속 휴식처다. 주변에 산책로, 데크, 보행로, 경관 조명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물놀이장과 안양천 햇무리광장, 찬빛광장 등이 자리해 즐길 거리도 많다. 낮에는 꽃과 나무가, 밤에는 조명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며, 광명출신 기형도 시인의 시화판과 함께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주소 광명시 철산동 일원 문의 1688-3399

5경 KTX 광명역

대한민국 최고의 철길 대청형 건물로 크기가 축구장 6.7배에 달한다. 유리 천장을 통한 자연 채광이 매력적으로, 한옥 처마와 버선의 곡선을 형상화해 전통미를 살렸다. 낮에는 공항을, 밤에는 우주선을 연상케 하며, 특히 야경이 아름다워 인기 출사지로 손꼽힌다.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AK플라자 등 대형 쇼핑몰과 가깝다.

주소 광명시 광명역로 21 문의 02-898-9053(KTX 광명역 관광안내소)

6경 충현박물관

전국 유일의 종가 박물관으로, 조선 시대 청백리 재상 오리 이원익과 그 후손들의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원익 관련 자료와 종가의 생활용품이 전시돼 있으며, 인조가 하사한 관감당과 종택 등 역사적 건물도 잘 보존돼 있다. 특히 관감당에는 탄금암과 수령 400년 된 측백나무가 복원되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소 광명시 오리로 347번길 5-6 문의 02-898-0505

7경 기형도문학관

광명 대표 문학관으로 기형도 시인의 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며 연구·전시·교육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다. 기형도 시인의 육필 노트, 각종 상장, <동아일보> 신춘문예 상패, 생전 발표 원고 등 귀중한 자료를 상설 전시해 문학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시실, 북카페, 강당, 도서관 공간을 갖췄다.

주소 광명시 오리로 268 문의 02-2621-8860

8경 안터생태공원

생태계를 복원한 도심 속 내륙습지로, 물 순환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고자 살개천을 조성해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를 포함해 7종의 양서류·파충류가 살고 있다. 애기부들 등 식물 66종, 버들봉어 등 어류 6종, 식물닭 등 조류 27종 등이 서식해 도심 속 소중한 자연 학습장 역할을 한다.

주소 광명시 안재로 1번길 27 문의 02-897-8577(광명시환경교육센터)

9경 새빛공원

대표적인 기피·혐오 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후 지상에 조성한 6만 6000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녹지 공간이다. 다양한 테마의 산책로가 있고, 넓은 호수 같은 자연저류지는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방재 시설로,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중 기능을 담당한다. 곳곳에 귀여운 조형물이 많아 사진 촬영하기도 좋다.

주소 광명시 일직동 417 문의 02-2680-6462

박승원 광명시장이 제안하는 상생과 순환의 광명 여행

경기 광명은 도심과 자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광명이 지닌 고유한
콘텐츠는 여행객을 도시 깊숙한
곳으로 이끌며 광명을 활기차게
만든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광명 여행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매력은 '반전과 공존'에 있습니다.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5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광명동굴의 신비로운 공간을 만납니다. 또한 도덕산·구름산·가학산·서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안양천·목감천의 물길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죠. 이러한 공존은 지역과의 상생으로 확장됩니다. 시민이 직접 가꾼 정원이 관광자원이 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 로컬 콘텐츠를 함께 만들고, 광명동굴 입장으로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여행의 즐거움이 소상공인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무는 것만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순환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가치 있는 여정, 그것이 바로 광명 여행의 본질입니다.

광명을 처음 찾는 이들에게 여행 코스를 제안해주세요.

광명의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 예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여정을 추천합니다. 먼저, 광명동굴에서 더위를 식히며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동굴의 매력을 느낀 다음, 충현박물관에서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되새기고, 기형도박물관을 찾아 영원한 청춘의 시인을 만나 봅니다. 광명동굴에서 환급 받은 지역화폐로 광명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긴 후 화려한 불빛이 더해진 도덕산 출렁다리와 연못을 따라 산책하며 야경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명구(9)경 중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풍경은 무엇인가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만큼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소들이지만,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이자 버려진 광산을 창의적인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지속 가능한 자원 재생의 상징'인 광명동굴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은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자원 재생, 지역 경제 순환, 문화 예술 향유가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KTX매거진> 독자 여러분도 광명에 오셔서 지역과 상생하는 가치 있는 여행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덜 알려졌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여행지나 체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광명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광명역사관을 추천합니다. 도시의 진정한 매력은 그 땅을 지켜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2025년 10월 광명문화재단 2층에 개관한 광명역사관은 광명의 역사적 인물과 시민의 삶을 함께 조명하며 지역의 기억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 무의공이

순신 장군,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민화빈 강씨, 대를 이어 청백리의 삶을 실천한 정원용 선생 등 위인들의 삶과 함께 시민들이 기증한 생활사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명은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2024년 7월 하안동으로 이전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버려진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최초의 업사이클 예술·문화 공간입니다. 작품을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일상 속 폐자원을 활용해 나만의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어 보는 에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깨닫는 생생한 교육의 장이죠. 또한 안양천과 한내천 정원, 안터생태공원, 새빛공원 등은 도시의 중요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 공간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 자체가 탄소 중립 여행입니다.

여행은 도시의 미래를 보여 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광명을 어떤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나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도시'를 꿈꿉니다.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공동체와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연대경제를 관광과 결합해 지역에 이익이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문을 여는 광명시 사회적 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굿모닝 광명' 로컬 브랜드 육성과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통해 여행객의 소비가 지역에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광명은 '공동체의 힘'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머무는 것만으로도 삶과 상생의 가치가 느껴지는 여행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유쾌한 여름 놀이터, 목포

스릴 넘치는 스포츠에 도전하고, 바다를 놀이하듯 탐험하며, 섬과 연안의 생물을 관찰하는 시간. 전남 목포에는 더위를 잊게 하는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오감으로 누비는 해저 전시장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이제 막 바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아이와 목포를 찾는다면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으로 향하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천장에 은빛 물고기 오브제가 떼를 지어 유영하고 벽면에는 고래와 돌고래, 오징어, 대왕문어가 그려져 있어 마치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하다. 전시 공간은 수심에 따라 깊은 바다와 중간 바다, 얕은 바다 세 구역으로 나뉜다. 먼저 수심 1000미터 아래 깊은 바다에 들어서면 짙은 남청색 조명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의 가장 큰 매력은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레버를 움직이며 해양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해산과 해구로 꾸민 해저 지형을 오르내리고, 수압 체험 장치에 손을 넣어 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압력을 느껴 본다. 수심 200~1000미터의 중간 바다에서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펭귄과 귀신고래, 돌돔이 내는 소리를 비교하고, 눈앞의 모든 것이 180도로 활짝 펼쳐 보이는 물고기의 시야를 경험한다. 스스로 빛을 내는 도끼고기, 가슴지느러미와 꼬리로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홍어, 콧처럼 수면 위로 솟구치는 오징어를 볼 땐 저마다 다른 생존 방식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수심 200미터 내외의 얕은 바다에서는 수조 속 모형을 통해 조력발전과 파력발전, 조류발전의 원리를 살펴본다. 탐험의 끝은 4D 입체 영상관이다. 심해에 고립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먼바다로 떠나는 모험을 그린 입체 영상에 물, 바람, 진동 등 특수 효과를 더해 몰입감을 높인다. 영상을 보고 나온 아이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바닷속 모험 이야기를 이어간다.

주소 전남 목포시 삼학로92번길 98 문의 061-242-6359



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의 바다상상홀. 노란색 잠수정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해양 탐험에 나선다. 2 바다 물결의 유선형 곡선을 살린 건물 외관. 3 '피아노 발판'을 발로 밟으며 펭귄과 귀신고래, 돌돔이 내는 소리를 비교해 본다. 4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전시장 입구. 짙은 남청색 조명이 심해의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1 연구자의 방에서 아이들은 연구원이 되어 전자현미경으로 동식물 표본을 들여다본다. 2 새 먹이인 열매와 씨앗 표본을 관찰하는 어린이 체험실. 3 본관 맞은편에 자리한 한국섬온실에서는 갯벌과 해안 사구에 사는 갯섬바귀, 제주에 자생하는 제주상사화, 울릉도 고유종인 울릉장구채와 섬남성 등을 만날 수 있다. 4 2000여 점에 달하는 생물 표본과 골격을 보여주는 상설 전시실.



2



3



4

주소 전남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문의 061-288-7800

2

신비로운 섬, 생물 다양성의 보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록적인 불볕더위와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요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일이 잦아졌다. 최근 급증한 러브버그를 마주할 때도 그렇다. 주로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지의류가 제주에 이어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발견되고, 구상나무와 분비나무 같은 고산 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현상 역시 기후변화의 단면이다. 위기에 놓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나섰다. 2021년 목포 고하도에 들어선 이 기관은 섬과 연안의 생물 자원을 발굴·연구하고 전시와 교육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상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2000여 점에 달하는 생물 표본과 골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균류부터 포유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까지 종류도 셀 수 없이 많다. 뼈죽 솜은 털과 살짝 굵은 앞다리, 풍긋 세운 귀까지 세밀하게 재현한 표본은 금세라도 움직일 듯 생생하다.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유아 놀이터와 어린이 체험실이다. 담비와 너구리 그림을 색칠하고, 새 먹이인 열매와 씨앗 표본을 살펴보고, 동물의 생김새에 맞는 카드를 찾는 게임을 즐기며 생태계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체험 프로그램도 알차다. 연구자의 방에서는 전자현미경으로 두꺼비, 해당화 등 동식물 표본을 들여다보고, 바이오 스튜디오에서는 전시와 연계한 창작 활동을 한다. 학교·단체와 개인·가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매달 진행한다. 7월에는 야간 조명에 모여드는 곤충을 관찰하는 ‘밤 곤충 대탐사’, 조류 전문가에게 빠꾸기의 생존 전략과 멸종 위기 종인 저어새의 생태를 배우는 ‘차이나는 탐조 클래스’ 등이 준비되어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hnibr.re.kr)에서 가능하다.



1

3

한계를 뛰어넘는 실내 어드벤처 목포플레이파크

주로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찾던 갯바위 문화타운에 새로운 즐길 거리가 생겼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전남 최초의 스포츠형 실내 테마파크인 목포플레이파크다. 약 2300제곱미터 공간에 디자인 암벽, 점핑 타워, 스카이 로프 코스, 집객 등 액티비티 체험 시설 14종을 알차게 갖췄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북적인다. 이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집객, 8미터 상공의 레일을 따라 학생 한 명이 허공을 가르며 빠르게 날자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온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바닥에 도착했지만 얼떨떨한 표정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즐기는 체험이지만 속도감보다 성취감에 초점을 맞춘 시설도 있다. 바로 스카이 로프 코스다. 7미터 높이의 철제 구조물 위에서 흔들다리와 외줄타기 등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어드벤처 시설로, A·B·C 세 코스 가운데 원하는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다. 최고난도인 C 코스에 도전한 학생은 잠시 주춤했다가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떨어지는 다리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간다. 마침내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는 순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뿌듯한 미소가 번진다. 이 밖에도 전신을 심 없이 움직이며 강도 높은 유산소운동을 하는 트램펄린, 7미터 높이에서 자유낙하에 가까운 스릴을 경험하는 수직 슬라이드, 높이 10미터 인공 암벽을 빠르게 등반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등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가득하다. 한계라고 여겼던 난관을 하나씩 넘어설 때마다 자신감도 덩달아 커진다. 안전상 이유로 만 5세부터 입장 가능하며, 키 10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일부 시설은 이용이 제한된다.



2

주소 전남 목포시 남농로 115 문의 061-272-8663

1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액티비티 체험 시설 14종을 갖춘 목포플레이파크. 2 전남 최초의 스포츠형 실내 테마파크 외관. 3 7미터 높이의 수직 슬라이드를 타면 자유낙하에 가까운 스릴을 경험할 수 있다.



3

낭만이 흐르는 목포의 밤 **별빛 물결 시티투어**

도보 여행자가 목포의 야경을 가장 쉽게 즐기는 방법은 버스를 타고 대표 야경 명소를 한 번에 둘러보는 '별빛 물결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목포역 광장 시티투어 승강장에서 출발한 버스는 목포항의 야경을 굽어보는 유달산을 시작으로 바닷가 산책로가 아름다운 유달유원지, 시원한 물줄기와 화려한 조명에 음악이 어우러진 춤추는 바다 분수, 천연기념물 목포 갯바위 풍화혈을 만나는 해상보행교 등을 차례로 지난다. 이어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자리한 삼학도와 목포박물관·목포자연사박물관 등이 모여 있는 갯바위 문화타운까지 둘러보면 목포의 황홀한 밤마실이 완성된다. 이 중 여행자의 발길을 가장 오래 붙드는 곳은 유달유원지다. 해 질 무렵 풍경이 압도적인데, 주홍빛 태양이 목포대교 주탑에 걸리면 목포스카이워크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보는 위치에 따라 돛을 펼친 범선 같기도 하고, 가오리가 날개를 편 모습 같기도 하다. 황금빛 노을이 사라지고 하늘이 군청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목포스카이워크에도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목포스카이워크로 이어지는 데크를 따라 걸으며 목포해상케이블카와 고하도 해상 데크, 목포대교, 다도해를 차례로 바라본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전망에 시선을 맡기면 어느새 일상의 소란이 저만치 사라지는 듯하다.

목포스카이워크에 조명이 켜지자 미래 도시의 한 장면처럼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1



2

1 춤추는 바다분수는 7월 중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8시, 8시 30분, 9시에 각각 20분간 운영한다. 2, 4 유달산조각공원에 오르면 다양한 조각 작품과 함께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3 사람이 삿갓을 쓴 듯한 형상의 갯바위에 조명을 비춘 모습. 수천 년간 이어진 풍화가 빚어낸 천연기념물과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한 풍경 안에 공존하는 모습이 묘한 감흥을 일으킨다.



3



4



별빛 물결 시티투어

별빛 물결 시티투어는 목포역광장 시티투어 승강장에서 출발해 유달산, 유달유원지, 평화광장, 갯바위 해상보행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둘러본 뒤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야간 코스로 운행한다. 소요시간은 3시간 10분.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목포의 역사와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곳곳의 기념사진 명당까지 알려 준다. 덕분에 이동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며 목포 여행의 추억을 남기기 좋다. 별빛 물결 시티투어는 7~8월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운영하며, 오후 7시 30분에 출발한다. 사전 예약제인 만큼 원하는 날짜에 이용하려면 목포문화관광 홈페이지(mokpo.go.kr/tour)에서 잔여 좌석을 확인한 뒤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요금은 성인 6000원, 국가유공자·장애인·경로우대자 3000원이다. 박물관과 전시관 입장료 및 체험비는 별도다.

예약및접수 061-245-1814(나나고속관광)



Mokpo, a Playground for Summer Fun

1 Mokpo Marine Science Museum for Children

For families visiting Mokpo with children who are just beginning to discover the wonders of the ocean, Mokpo Marine Science Museum for Children is an ideal destination. Children can climb across displays modeled after underwater landforms such as mid-ocean ridges and ocean trenches, then place their hands into pressure simulators to experience how water pressure changes with depth. In the exhibit dedicated to the ocean's midwater zone, they can compare the sounds made by penguins, gray whales, and rock bream, and even experience the remarkably wide field of vision enjoyed by fish. The adventure concludes at the 4D theater. A three-dimensional film follows a journey across the ocean to rescue a friend stranded in the deep sea, while special effects including water, wind, and vibration bring the story to life. ends, children often leave with excited expressions, eager to continue talking about their underwater adventure.

Address 98, Samhak-ro 92beon-gil, Mokpo-si, Jeollanam-do **Contact** 061-242-6359

2 Honam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Opened on Gohado Island in Mokpo in 2021, the Honam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is dedicated to discovering and studying the biological resources of Korea's islands and coastal regions. Through exhibi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it also helps visito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immediately captures attention with more than 2,000 biological specimens and skeletal displays. The collection spans an impressive range of species, from fungi and mammals to fish, amphibians, reptiles, and birds. Young visitors are often drawn to the children's play area and hands-on learning zone. Here, they can color illustrations of martens and raccoon dogs, examine samples of fruits and seeds eaten by birds, and match animal characteristics through interactive games. The institute also offers engaging educational programs. In the Researcher's Room, participants take on the role of scientists and use electron microscopes to observe specimens such as rugosa roses and toads.

Address 99, Gohadoan-gil, Mokpo-si, Jeollanam-do **Contact** 061-288-7800



A time to challenge yourself with thrilling sports, explore the sea, and discover the creatures that inhabit islands and coastal waters. In Mokpo, play, hands-on experiences, and learning come together to create countless ways to forget the summer heat.



3 Mokpo Play Park

Mokpo Play Park is Jeollanam-do's first sports-themed indoor adventure park, featuring 14 activity attractions packed into a 2,300-square-meter space. From climbing walls and jumping towers to sky rope courses and ZipZag, the park offers plenty of opportunities to test your courage and agility. The moment you step inside, the energy is unmistakable. Students on school trips fill the facility, and many have gathered around the ZipZag attraction. As one student races through the air along a rail suspended eight meters above the ground, cheers and applause erupt from every corner. The ride lasts less than 30 seconds, but the exhilarated expression on the rider's face lingers much longer. The excitement continues throughout the park. The Sky Rope Course challenges visitors to cross swinging bridges and balance obstacles atop a seven-meter-high steel structure. Trampolines provide a full-body workout packed with high-energy movement, while the Vertical Slide delivers a near free-fall experience from seven meters above the ground. Sports climbing walls reaching 10 meters high invite visitors to race upward against the clock. For safety reasons, most activities are available to children aged five and older. Some attractions may have height restrictions for visitors under 100 centimeters tall.

Address 115, Namnong-ro, Mokpo-si, Jeollanam-do **Contact** 061-272-8663

4 Starlit Waves City Tour

For travelers exploring on foot, one of the easiest ways to experience Mokpo after dark is aboard the Starlit Waves City Tour. The evening bus tour brings together many of the city's most celebrated nighttime attractions in a single journey. Departing from the city tour stop in front of Mokpo Station, the route begins at Yudalsan Mountain, where sweeping views of Mokpo Port unfold below. The tour continues to Yudal Amusement Park, known for its scenic waterfront promenade, and the Dancing Sea Fountain, where powerful water jets, colorful lighting, and music combine in a lively performance. Passengers then pass the Marine Pedestrian Bridge, which offers views of Gatbawi Rock, a natural monument shaped by centuries of wind and waves. The route continues through Samhakdo Island, home to the Mokpo Marine Science Museum for Children and the Kim Dae-jung Nobel Peace Prize Memorial Hall, before arriving at Gatbawi Culture Town, where museums dedicated to art, history, and natural science are gathered in one area. Together, they complete a magical night tour of Mokpo.

Reservation 061-245-1814 (Nara Express Tour)





한여름 밤의 불꽃 피날레 2026 목포해상W쇼

밤이 되면 전남 목포의 평화광장 앞바다가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모한다. 화려한 불꽃과 색색의 빛, 음악이 어우러진 목포해상W쇼가 한여름 밤을 뜨겁게 달군다.

목포 앞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목포해상W쇼가 올해 마지막 두 차례 공연만을 남겨 두고 있다. 2021년 평화광장에서 시작한 이 행사는 화려한 불꽃과 춤추는 바다 분수, 수준 높은 라이브 공연이 어우러진 이색 볼거리로 주목받으며 목포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 9일 한국 록 밴드 국카스텐의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목포해상W쇼는 올해 8월 1일 물불쇼와 9월 19일 글로벌불꽃쇼를 앞두고 있다. 물불쇼에서는 휴가철 피서객의 더위를 식힐 시원한 물줄기와 불꽃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글로벌불꽃쇼에서는 해외 팀이 참여해 개성 넘치는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 해상 무대에서는 노라조를 비롯한 K-팝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져 현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관람이 무료인 점도 매력적이다. 바다와 하늘을 무대로 수놓은 눈부신 빛의 축제가 한여름 밤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2026 목포해상W쇼

일시 8월 1일, 9월 19일 오후 8~9시
장소 전남 목포 평화광장 해상 무대
문의 061-272-2171



목포에서 즐기는 여름 보양

남도 미식 여행 1번지, 전남 목포. 여름철 기력을 북돋아 줄 대표 보양식을 소개한다.

민어로 채운 보양식 한 상, 청자횃집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최고급 여름 보양식 민어로 차린 한 상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청자횃집이 제격이다. 목포 항동시장 골목에 자리한 청자횃집은 1980년대 중반 문을 연 이후 40여 년간 민어 요리 외길을 걸어온 곳이다. 서남해안산 민어를 일정 기간 저온 숙성한 뒤 주문 즉시 손질해 회로 내고, 조리법을 달리해 민어전과 민어초무침, 민어곰국을 코스로 선보인다. 민어의 진가는 특수 부위에서 빛을 발한다. 쫄득한 부레, 탱글한 뱃살, 씹을수록 기름진 풍미가 번지는 껍질까지 부위마다 식감과 맛이 뚜렷해 서로 비교하며 음미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노릇하게 부쳐 낸 민어전은 담백한 살 맛을 온전히 전하고, 새콤달콤한 민어초무침은 입맛을 돋운다. 식사 대미를 장식하는 요리는 삼민탕이다. 민어 머리와 아가미 옆쪽 살이 붙은 뼈를 가마솥에 넣고 8시간 이상 푹 고아 낸 민어곰국에 수삼을 더해 영양까지 챙겼다. 진득한 감칠맛이 나는 국물에 수삼의 알싸한 향이 더해져 목직한 뒷맛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 뜨끈한 삼민탕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솟아나는 듯하다.

주소 전남 목포시 수강로 13-2 문의 061-242-0633

제철 덕자의 참맛, 홍길동선어회

농어목 병어과에 속하는 덕자는 몸길이가 최대 60센티미터에 달하는 바닷물고기다. 표준어는 '덕대'지만 전라도 방언인 '덕자'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다. 7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로, 이 시기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지방이 풍부해져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절정을 이룬다. 여름철에 덕자 단일 메뉴를 선보이는 홍길동선어회는 1996년 여자연 대표가 문을 연 뒤 딸 홍은혜 대표가 가업을 물려받아 30여 년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된다는 홍길동선어회 덕자조림 맛의 비결은 쌀뜨물이다. 재료 손질부터 조리의 전 과정에 쌀뜨물을 사용한다. 새벽 5시 목포 선어회직판장에서 가져온 덕자를 쌀뜨물에 삶아 낸 뒤 냄비에 무와 감자를 깔고 특제 양념장을 더해 팔팔 끓이면 푸짐한 덕자조림이 완성된다. 덕자가 얼마나 큰지 상 위에 오른 냄비 바깥으로 꼬리가 삐죽 튀어나와 웃음을 자아낸다. 매콤달콤한 양념이 깊숙이 뱀 덕자조림을 갖 지은 밥 위에 올려 한 입 먹으면 고소한 풍미가 번지고 뒤따르는 감칠맛이 입안에 오래 남는다. 당일 잡은 덕자만 사용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날짜에 맛보려면 사전 예약을 권한다.

주소 전남 목포시 비파로43번길 42-1 문의 061-283-8540



강진·해남·영암 천연 워터파크

폭염은 레드 레드, 물놀이는 그린 그린!
'강해영 프로젝트'가 추천하는 자연 물놀이장으로
참방참방 물놀이 가자.

기차게 청량하고 싱그러운 영암

하늘을 뒤덮은 녹음 아래 암벽에서 떨어지는
계곡물의 물보라를 보고 있으면 신선이 부럽지
않다. 월출산 계곡 천연 암반수가 빚은, 기차게
청량한 전남 영암이 우리를 기다린다.

물놀이하러 계곡에 갔더니 배경이 무려 월출산이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진 월출산 아래 위치한 기찬
랜드는 자연 친화적 테마파크다. 천연 지하 암반수를
이용해 물놀이장을 조성했다. 야외에는 계곡을 따라
일곱 개의 풀장이 길게 이어진다. 어린아이가 안전하
게 놀 수 있는 깊이 0.5미터 풀장부터 성인도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깊이 1.5미터 풀장까지 갖췄다. 야외 물놀
이장 옆에 놓인 평상에 앉아 영암 특산 과일인 멜론, 수
박, 무화과 등을 나눠 먹으면 속까지 시원해진다. 한여
름 강한 햇살이 부담되거나 비가 내려 기온이 내려갔
을 때 이용하기 좋은 실내 물놀이장도 있다.

월출산 기찬랜드 물놀이장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시설로, 올해는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장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며,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물을 교체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한다. 영암군국민여가캠핑장, 월출산기찬랜
드기찬밧길, 기찬자연휴양림, 기찬재 게스트하우스
를 비롯해 조훈현 바둑기념관, 가야금산조기념관, 영
암곤충박물관 등이 가까이 있어 물놀이와 함께 캠핑
이나 숙박, 관광, 산책을 즐기기도 좋다.

신비한 곤충의 세계, 영암곤충박물관
월출산 기찬랜드 안에는 살아 숨 쉬는 곤충과 교감할
수 있는 영암곤충박물관이 자리한다. 700점이 넘는
세계 각국의 곤충과 파충류를 관찰하는 공간이다. 희
귀 곤충 전시에 머물지 않고, 살아 있는 곤충과 파충

류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만져 보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다. 1층 표본관에는 희귀 곤충 표본을 전시했고, 어두운 조명으로 깊은 숲 환경을 재현한 숲속곤충관에서는 조명을 들고 곤충 찾기 체험을 할 수 있다. 2층에는 곤충과 파충류를 직접 관찰하고 만져 보는 곤충관과 파충류관이 자리한다. 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톱사슴벌레를 비롯해 목도리도마뱀, 크레스티드 게코 등 자연 다큐멘터리에 나올 법한 생물들과 교감하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각 전시관은 30분 단위로 해설을 진행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영암곤충박물관은 어린이 중심의 교육·놀이형 콘텐츠로 채웠는데, 신기하게도 어른들이 더 흥미로워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보와의 특별한 만남, 영암도기박물관
한국 최초로 유약 도기를 생산하던 구림도기가마터에 들어선 영암도기박물관에 올여름 특별한 유물이 찾아온다. 8월 2일까지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이 열리는 것. 진천, 영암, 의령, 고창, 성주, 청도 등 전국 6개 지역 공립 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보 순회전 중 하나로, 영암에서는 백제인의 섬세한 미감과 뛰어난 기술

이 담긴 백제 문양 벽돌을 만날 수 있다. 문양 벽돌은 건축물 벽면이나 기단 등을 꾸미던 장식 벽돌이다. 백제 문화가 꽃피었던 사비 시대에 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과 물, 연꽃, 구름, 도깨비, 용, 봉황 등 다양한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문양 벽돌이 처음 발견된 곳은 충남 부여다. 1937년 주민 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나섰고, 이후 150여 점이 추가로 확인되며 백제 미술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됐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보물로 지정된 용무늬 벽돌이다. 백제금동대향로 받침에 새겨진 용과 비슷해 더욱 눈길이 간다. 산수풍경 무늬 벽돌은 한국에서 자연 풍경을 표현한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다.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 문양 벽돌 8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영암도기박물관 옆에는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자리한다. 재일 교포 동강 하정웅이 평생 수집한 작품을 기증하면서 건립한 미술관으로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야외 전시실로 나뉜다. 전시는 하정웅 컬렉션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라기보다 기증자의 미학과 메세나 정신을 배우는 곳에 가깝다.



국립영암도기박물관



국립영암도기박물관



국립영암도기박물관

1.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들의 놀이터, 영암곤충박물관.
2. 미술품을 감상하며 메세나 정신을 배우는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 3, 4.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국보 순회전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이 열리고 있다.

다도해가 비단처럼 펼쳐지는 해남

잔잔한 바다와 금빛 모래사장, 푸른 송림이
어우러진 한반도 최남단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다도해가 비단처럼 반짝이는 비경을 찾아
전남 해남의 땅끝 전망대로 향한다.

다도해가 수평선을 대신하는 해남 송호해수욕장은 한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수욕장이다. 해변가에 소나
무 숲이 울창하고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하다 해서 붙
은 이름이다. 수심이 깊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 어린이
도 안전하게 물놀이하기 좋다. 간조 때 넓게 드러나는
갯벌에서 고둥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송호해수욕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송림이다. 수
령 200년 정도 된 600여 그루의 해송이 제방을 따라
1킬로미터가량 이어진다. 이 숲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아 주고, 한낮에는 따가운 햇살을 피할
그늘을 만들어 주며, 때로는 야영객의 집이 되어 준다.
조용히 앉아 바다를 감상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여름철에는 축제와 공연,
체험 행사도 열려 한적한 풍경에 활기를 더한다. 지난
해에는 패들보드, 바나나보트, 플라이보트, 래프팅보
트 같은 수상 레저와 워터 슬라이드를 운영하고 노르
딕 워킹, 버스킹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그 외 시간에는
해수욕이 금지된다. 송호해수욕장 남쪽에는 땅끝오
토캠핑장이, 북쪽에는 땅끝황토나라테마촌이 있다.

바다 위에 펼쳐진 다도해를 찾아
풍수지리적으로 땅끝은 백두대간이 남으로 내달려
와 마지막 용틀임을 하며 멈춘 곳으로, 백두대간의 시
작이자 끝이라 불린다. 특히 갈두산 사자봉은 한반도



© 안종민



© 전제호

1 원양어선 선장이 전 세계 바다에서 수집한 4만여 점의 소장품을 전시한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2 땅끝마을에서 땅끝전망대까지 7분 만에 데려다주는 땅끝모노레일.
3 한반도 서남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땅끝전망대.



© 안종민

의 기가 가장 많이 뭉친 곳이기도 한데, 그 기로 하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 신성한 제를 올리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땅끝마을에서 하늘과 바다를 향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백두산에서 뺏어 내린 능선이 긴 꼬리를 남해 바다 속으로 감추는 한반도 최남단 사자봉으로 향했다. 땅끝마을에서 양증맞은 노란색 땅끝모노레일을 타고 땅끝전망대에 올랐다. 7분 만에 해발 150미터가 넘는 사자봉 정상에 닿았다. 올라가는 동안 모노레일 뒤쪽으로 남해안 절경과 쪽빛 바다가 따라온다. 햇불을 형상화한 땅끝전망대는 과거 봉수대 역할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전망대에 오르자 진도에서 완도까지 한반도 서남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맑은 날에는 저 멀리 제주 한라산까지 보인다고 한다. 전망대 1층에는 해남의 상징물과 땅끝마을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기 좋은 포토부스가 자리하며, 향긋한 차와 함께 여유를 즐기는 카페도 들어섰다. 트레킹을 좋아한다면 땅끝마을에서 산책로를 따라 땅끝전망대까지 걸어 올라가도 좋다.

생태계의 신비,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마을에는 작은 고등부터 대형 고래상어까지 모두 모형이 아닌 실물로 전시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다. 자료는 원양어선 선장이던 임양수 관장이 30여 년에 걸쳐 바다를 누비며 수집한 것으로 4만 점에 넘는다. 건물 입구에서 압도적인 크기의 해양 생물 모형이 관람객을 맞는다. 거대한 문어가 다리를 늘어뜨린 채 옥상에 앉아 있는 박물관에 들어가려면 상어 입을 통과해야 한다. 박물관은 4개의 전시 공간으로 나뉜다. 제1전시실 '시작海'에서는 선캄브리아대부터 고생대·중생대·신생대에 이르는 대표 화석을, 제2전시실 '대단海'에서는 25미터 길이 대왕고래의 골격을 중심으로 연안에서 심해로 이어지는 디오라마를 볼 수 있다. 제3전시실 '다양海'는 심해 디오라마와 세계패류관으로 구성되며, 제4전시실 '소중海'는 남극관과 포유동물관으로 꾸몄다. 생명과 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아이에게는 관찰력과 상상력을 키워 주고 어른에게는 잊고 지냈던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깊은 파랑과 짙은 초록의 강진

바다가 있지만 해수욕장이 발달하지 않은 전남 강진에는 바다를 품은 산이 있다. 여름철 보은산 V-랜드는 듣기만 해도 시원한 물소리와 선선한 그늘, 울창한 초목이 가득한 무릉도원이 된다.

강진에 여름이 오면 사람들은 보은산 V-랜드를 찾는다. 공원, 물놀이장, 연꽃방죽, 수국길, 편백나무 숲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 테마 공원으로, 시원한 천연 계곡 물을 이용한 물놀이장을 개장하기 때문이다. 바다는 있지만 해수욕장이 발달하지 않아 물을 즐기기 위해 멀리 외지까지 나가야 했던 주민들을 위해 조성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피서객이 모여드는 물놀이 명소가 됐다.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에는 4개의 풀장이 있다. 최근 리노베이션을 통해 풀장 두 곳의 수심을 조정하고, 바디슬라이드 1개와 물놀이 미끄럼틀 2개를 추가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늘렸다. 평상과 원두막형 퍼즐러, 파라솔, 테이블, 몽골 텐트 등 휴식 공간도 많아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다. 단, 취사를 금지하니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만 문을 여는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은 올해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화요일은 휴장한다. 보은산 등산로 및 금곡사·고성사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연결돼 물놀이 전후 산책하기도 좋다.

조선 선비의 풍류가 깃든 백운동원림
월출산 옥관봉 남쪽 경사지 아래 위치한 백운동원림은 한국 전통 원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별서다. 조선 중기 문신 이담로가 계곡 옆 바위에 '백운동'이라 새기고 원림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백운동은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



© 강진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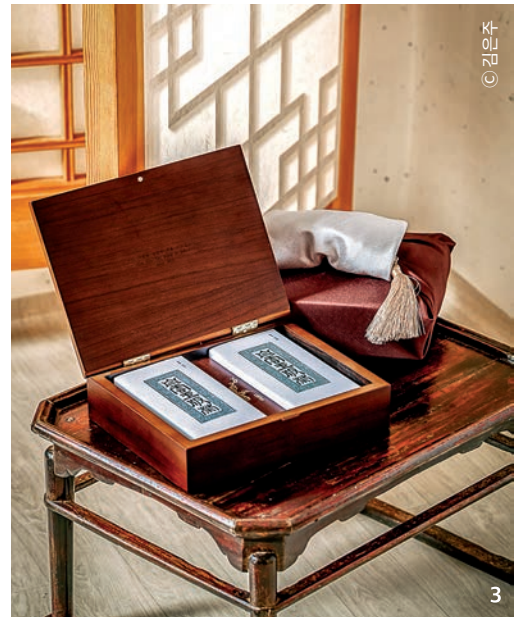
1 강진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
시절 차를 즐기고
제다법을 완성한
곳이다.
2 조선의 선비
정신이 깃든
백운동원림의
대나무밭.
3 다산이 즐겨
마신 떡차와
일제강점기에
한국 차의 정체성을
지킨 백운옥판차를
맛볼 수 있는
백운차실.



2

© 안중범

제작 지원 강원강진군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영암문화관광재단



© 정민이

3

가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지, 1812년 이곳을 다녀간 다산 정약용은 벗인 초의선 사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고, 백운동원림의 12승 경을 노래한 시문을 남겼다. 현재 건물은 이를 근거로 재현한 것이다. 옥판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그냥 보 내기 아쉬웠던 이담로는 아홉 굵이 유상곡수를 만들고 정자를 앉혔는데, 이곳에서 계곡을 바라보다 봉우리 리로 시선을 옮기며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더위가 절 로 잊힌다.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백운동원림 은 담양 소쇄원, 완도 보길도 세연정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으로, 조선 중기 선비들의 은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하늘과 맞닿은 차밭
차잎이 잘 자라려면 온도와 햇빛, 수분이 적절해야 한다. 월출산이 매서운 북풍을 막아주는 강진 성전면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연중 기온이 13.5도로 온화하며,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높아 유독 차향이 깊고 진하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 시절 차를 즐기고 제다법을 완성 한 곳도 강진이다. 백운동원림을 나서면 녹차밭이 푸 른 물결처럼 너울지는 강진다원을 만나게 된다. 스승 정약용에게 차를 보내기 위해 제자 이시헌이 차밭을 일군 것이 수백 년간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다. 강진다

원을 찾은 이들은 녹차밭 사이를 거닐며 차향에 취하 고, 계절별로 운영하는 차잎 수확 체험이나 다도 체험 을 통해 녹차 문화를 경험한다.
강진다원 인근에는 이한영차문화원이 있다. 정약용 이 유배에서 풀려나 남양주로 돌아갈 때 1년간 재배한 차와 제자들의 연구 업적을 매년 제공하겠다는 약속 에서 유래한 공간이다. 이시헌의 후손인 이한영은 정 약용과 초의선사로부터 시작된 한국 차 역사의 맥을 이어 온 인물로,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나는 차가 일 본 차로 둔갑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대한민국 최 초의 차 상표 ‘백운옥판차’를 만들었다.
이한영차문화원은 백운차실과 이한영 생가로 나뉜 다. 백운차실은 이한영의 고손녀 이현정 원장이 운영 하는 공간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의 고택 차실에서 다 산이 즐겨 마신 떡차와 백운옥판차를 맛볼 수 있다. 월 출산과 싱그러운 차밭 풍경이 액자처럼 담기는 창가 자리에서 차담을 나뉘도 좋고, 월산차와 다과, 다구, 온수가 담긴 보온병, 돛자리 등으로 구성된 피크닉 바 구니를 들고 잔디밭이나 숲에서 티타임을 즐기는 ‘차 소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
차밭 옆 물놀이장, 자연이 좋은 사람들
‘자연이 좋은 사람들’은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국립공원 경포대 입구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름이면 워터파크버금가는 물놀이장이 개장한다. 미끄럼틀,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춰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메인 수영장 외에 0.6미터 깊이의 유아용 수영장도 있다. 물놀이장은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 강진군

코타키나발루에서 보낸 자연주의 휴가

코타키나발루의 매력은 아름다운 바다나 석양에만 있지 않다.
가야섬의 고요한 새벽과 생명력 넘치는 맹그로브 숲, 푸근한 원주민
문화까지, 자연과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이야기가 곳곳에 가득하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자연주의 휴가를 만끽했다.



1, 4 가야섬에 위치한 가야아일랜드 리조트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맹그로브 숲에 둘러싸여 있다. 일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쉼을 누리기에 최적의 장소다.
2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에서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다양한 활동도 한다.
3 키나발루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말레이시아의 최고봉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키나발루산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은 곳. 보르네오섬 북단,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주도인 코타키나발루는 산과 바다 중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여행자에게 최적의 선택지다. 툰쿠 압둘 라만 해양공원은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가야섬, 사피섬, 마무틱섬, 술룩섬, 마누칸섬 등 다섯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가야섬은 뾰족한 원시 열대우림과 맹그로브 숲으로 덮여 있고, 약 20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이킹 트레일과 고운 백사장이 있어 여행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한 우리 일행도 첫 여정으로 가야섬을 찾았고,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에 짐을 풀었다. 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웰컴 음료를 마시고 나니 그제야 산뜻한 바다와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빌라들이 눈에 들어온다. 잔잔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카약을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도시에서의 복잡한 상념이 스르르 사라진다. 배를 타고 고작 20여분 이동했을 뿐인데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온 느낌. 현지 PR 컨설턴트인 신시아에게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의 첫인상을 말하자, “이곳에서는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답한다.

긴꼬리원숭이가 사는 가야아일랜드 리조트

가야아일랜드 리조트는 총 121개의 프라이빗 빌라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사바(Sabah)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객실은 열대우림 언덕에 자리한 바유 빌라, 맹그로브 숲속에 지은 캐노피

빌라, 바다와 말레이시아 최고봉인 키나발루산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키나발루 빌라, 그리고 2층 구조의 수리아 스위트까지 네 가지 타입이 있다. 모든 빌라는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가 머문 곳은 키나발루 빌라. 객실로 다가서자 원숭이 두 마리가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다. 순간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의 보존 총괄 디렉터이자 자연학자인 저스틴의 말이 떠올랐다. “원숭이들이 노크를 하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와 눈을 마주치는 건 좋지 않아요. 원숭이는 그걸 공격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자극하지 않는 한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가야섬에는 긴꼬리원숭이뿐 아니라 왕도마뱀, 도마뱀붙이, 코뿔새, 대벌레 등 다양한 생물이 숲과 해안을 오가며 살아간다. 산책길을 걷다 야생동물과 마주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 이들은 불청객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 속에서 인간과 오랜 시간 공존해 온 섬의 원주민 같은 존재다. 객실에 들어서니 발코니 너머로 반짝이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코타키나발루는 석양으로 유명하지만, 가야아일랜드 리조트는 섬 동쪽에 자리해 일출 또한 아름답다. 날이 맑으면 침대에서도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이른 아침, 발코니에 마련된 커다란 테이블데에 누워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바다 위의 섬 같은 거대한 키나발루산 너머에서 봉긋하게 떠오른 해가 수면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물론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선셋도 놓칠 수 없다. 가야섬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일몰 장면을 만나려면 선셋 크루즈가 답이다. 프라이빗 요트인 리틀 프린세스(Little Princess)에 몸을 실었다. 해





가 저물기 시작하자 선착장을 떠난 보트가 천천히 섬과 섬 사이를 지나간다. 칵테일과 샴페인을 마시며 인증 사진을 찍는 사이, 짙은 에메랄드빛을 띤던 바다가 어느새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하늘은 오렌지빛, 붉은빛, 분홍빛이 층층이 겹쳐진 거대한 캔버스가 되고, 태양이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 빛을 쏟아 냈다.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선셋을 마주했지만 코타키나발루가 왜 최고의 석양 명소인지 실감했다.

생물학자에게 듣는 맹그로브 숲 이야기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에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다. 리조트에서 맑은 둘째 날, 해양생물학자와 함께하는 스노클링에 참여했다. 배를 타고 30여 분 달려 스노클링 포인트에 닿았다. 다양한 해양생물이 보존된 산호 삼각지대 서쪽 경계에 위치한 툰쿠압둘라만 해양공원은 에메랄드빛 바다 아래로 산호초와 해초 군락이 이어지며 수백 종의 열대어와 바다 거북이 살아간다. 스노클링을 하며 바닷속을 보니 물고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종류는 그 어느 바다보다 많았다. 형형색색의 산호 정원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음에는 부러진 산호를 보살피며 바다로 돌려보내는 머린 센터를 찾았다. “오늘 스노클링을 한 포인트는 2년 전에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해양학자 스콧의 말은 위험수위를 넘은 지구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여행자들은 머린 센터에서 산호 양식 교육을 받고, 직접 심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산호가 자라는 데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어떤 산호는 정말 거대하고 수 세기에 걸쳐 성장합니다. 파괴하는 건 쉽지만 회복하는 속도는 매우

느려요. 마치 건강처럼 말이죠.”

가야아일랜드 리조트는 산호 복원 활동 외에도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카약을 타고 맹그로브 숲을 도는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다. “맹그로브 숲은 단순한 나무숲이 아니에요. 건강한 맹그로브 숲은 바다로 흘러드는 퇴적물과 오염원을 걸러 산호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스틴의 안내를 받으며 카약을 타고 맹그로브 숲을 탐험했다. 물길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거미줄처럼 얽힌 뿌리와 열대우림이 나타나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듯하다. “가야섬의 맹그로브 숲에는 희귀한 맹그로브 종이 서식합니다. 거의 멸종된 종으로 가야아일랜드 리조트 300그루 정도만 남아 있어요.” 저스틴은 맹그로브 복원 프로젝트와 야생 조류 구조 및 방생, 바다거북 구조 등 자연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액티비티를 한 후 스파 빌리지로 향했다. 정글 한가운데 자리한 스파 빌리지는 단순히 마사지를 받는 공간이 아닌, 보르네오의 자연과 사바 원주민 문화에 몸을 맡기는 웰니스 공간이다. 스파를 받을 때 비가 내렸는데, 고요한 숲속에 온갖 새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해 그 자체로도 온전히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의 매력 중 미식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매끼를 섬 안 리조트에서 해결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 루프톱에 자리한 ‘피셔맨스코브’에서 랍스터, 타이거 새우 등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먹고, ‘피스트 빌리지’에서는 수영장과 해변, 키나발루산을 감상하며 조식과 중식을 즐겼다. 철판 요리가 일품인 ‘오마카세’에서는 셰프가 즉석에서 요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현지 쌀로 만든 와인 ‘리힝’과 함께 대관야기, 샤부샤부, 나베 등 세 가지 스타일의 일본식 오마카세 다이닝을 경험했다.



- 1 스파 빌리지는 단순히 마사지를 받는 공간이 아닌, 자연과 사바 원주민 문화에 몸을 맡기는 웰니스 공간이다.
- 2 가야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카약을 타고 맹그로브 숲을 탐험한다.
- 3 마리마리 민속촌에서는 원주민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원주민 가족과 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 4 채소, 과일, 건어물 등을 파는 필리피노 마켓에 활기가 넘친다.





© shutterstock.com

'블루 모스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시티 모스크. 맑은 날이면 수면에 비친 푸른 돔과 첨탑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활기 넘치는 코타키나발루 시내 풍경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야섬에만 머무는 것이 아쉬워 마지막 날은 보트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섬에서 벗어나면 전통 시장과 모스크, 해변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펼쳐진다. 코타키나발루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는 시티 모스크(City Mosque)다. 건물의 돔과 첨탑이 푸른빛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 모스크'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이 모스크는 규모가 어마어마해 최대 1만 2000명을 수용한다. 모스크를 둘러싼 인공 호수는 마치 건물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 맑은 날이면 수면에 비친 푸른 돔과 첨탑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내부를 관람하려면 입장료 5링깃과 전통 의상 대여비 5링깃을 내야 한다. 아름다운 타일로 장식한 모스크 안에는 견학 온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곳저곳을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다.

현지인의 일상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기에 시장만큼 좋은 곳은 없다. KK 워터프런트 호텔 북쪽에서 수공예품 시장 뒤쪽을 지나 중앙 시장 전까지 이어지는 필리피노 마켓으로 향했다. 코타키나발루에 이주한 필리핀 사람을 중심으로 열리던 작은 시장에 현지인까지 모여들며 규모가 점점 커졌다. 채소와 과일, 건어물 등을 파는 매대는 물론 현지인들이 식사하며 맥주를 즐기는 노점까지, 맛있는 냄새와 함께 흥겨운 열기가 가득하다. "짜다 짜!" 유창한 한국어로 호객하는 과일 가게 청년에게 사바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밤방안'이라는 야생 망고와 망고스틴을 사서 안주 삼아 워터프런트에서 맥주를 마셨다. 해가 질 무렵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탄중아루 비치로 모여든다. 코타키나발루의 일몰 명소로, 현지인들은 해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여행자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저마다 황홀한 순간을 기록한다.

도시를 벗어나 조금 더 깊은 사바를 만나고 싶다면 마리 마리 민속촌(Mari Mari Cultural Village)을 추천한다. 코타키나발루에서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마리 마리아'. '오세요, 오세요'라는 뜻. 마리 마리 민속촌은 사바 지역에 거주하는 5개 부족의 전통 가옥과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한 마을이다. 원주민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5개 부족이 살았던 독특한 가옥들을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사바에서 가장 큰 부족인 두순족의 집에서는 쌀로 만든 술을 맛보고, 룡구스족의 집에서는 대나무와 코코넛을 비벼 불을 붙이는 경험을 해 본다. 해상을 떠돌던 바자우족이 직조한 화려한 수공예품을 구경하는 것도 흥미롭다. 다양한 체험은 물론, 전통주와 먹거리로 배를 채우다 보면 반나절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원주민 대다수가 숲을 떠났지만 키나발루산 계곡에는 극소수의 원주민이 아직 남아 있다. 마리 마리 민속촌 투어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뱀부 댄스를 신나게 추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코타키나발루, 어떻게 갈까?

에어아시아항공편을 이용하면 코타키나발루에 쉽게 닿는다.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AK)가 주 4회(월·수·금·일요일)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을 운항한다. 코타키나발루행 항공편(AK1624)은 오전 9시 20분 인천을 출발해 오후 1시 30분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한다. 인천행 항공편(AK1623)은 오전 1시 55분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해 오전 8시 20분 인천에 도착한다. 시차는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1시간 느리다.

made in

강릉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GANGNEUNG

no.19

월화거리 야시장

강릉의 별미를 한자리에서 맛보고 싶다면 중앙시장으로 향할 것.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여름밤의 낭만도 즐기고 싶다면 월화거리가 정답이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월화거리에서 흥겨운 야시장이 열린다. 월화거리는 강릉역에서 부흥마을에 이르는 2.6킬로미터 구간 의 거리 공원이다. 말나눔터공원, 풍물 시장, 역사문화광장, 생활문화광 장 등 네 구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강릉옥천동은행나무가 시원한 그늘 을 드리우는 역사문화광장에서 야시장이 열린다. 2023년에 시작된 월 화거리 야시장의 백미는 청년 사업가들이 선보이는 먹거리다. 은은한 불 향이 매력적인 파닭고치, 토치로 표면을 익혀 고소한 소고기불초밥, 불 에 구워 먹는 아이스크림, 바삭한 크루아상과 붕어빵 등 20여 종의 메 뉴가 여행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야시장 한편에서는 지역 작가들 이 만든 액세서리와 가방, 향수 등을 파는 플리마켓이 열리고, 타로 마스 터가 연애 운과 궁합을 봐 주기도 한다. 또 월화거리 곳곳에서 마술 쇼와 버스킹 공연이 열려 흥겨운 분위기를 더한다. 시원한 물줄기와 색색의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월화교 분수 쇼도 놓치기 아깝다. 남대천을 사이 에 두고 성남동과 노암동을 잇는 총연장 160미터의 월화교에 100여 개 의 분수 노즐과 빔 프로젝터, 무빙 라이트가 동원되고, 웅장한 사운드가 더해져 마치 물줄기가 춤을 추듯 역동적인 무대를 펼쳐 보인다. 월화교 분수 쇼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 30분과 9시 2회 운영한다. 올해 월 화거리 야시장은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주소 강원 강릉시 옥천동 61번지(강릉옥천동은행나무)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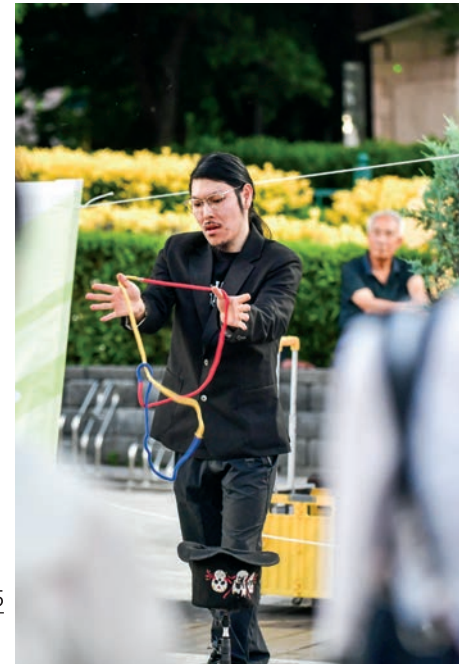


3



4

1 월화거리 야시장에 20여 개의 먹거리 부스가 들어서 여행자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2 월화거리와 연결되는 월화교 위를 걸으며 화려한 분수 쇼를 볼 수 있다. 3 야시장 한편에는 지역 작가들이 만든 액세서리와 가방, 향수 등을 파는 플리마켓이 열린다. 4 토치로 표면을 익혀 고소한 소고기불초밥. 5 야시장이 열리는 날 월화거리 곳곳에선 마술 쇼나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진다.



5



1

1 정동항과 심곡항을 잇는 약 3킬로미터의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2 바닷길을 걷다 보면 한국에서 해안과 가장 가까운 윤슬카페를 만난다. 3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의 포토 포인트. 빨간색 등대가 프레임 안에 꼭 들어온다. 4 투구를 쓴 장군이 동해를 호령하며 서 있는 듯한 투구바위. 250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생긴 해안단구가 신비롭다.

2



3

연건립의 세월이 빛나 블루로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강릉 바다의 아름다움을 가장 생생하게 만끽하는 방법은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걷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동해를 향해 거대한 부채를 펼쳐 놓은 듯해 '바다부채길'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길은 250만 년 전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천연기념물)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일반인의 발길을 허락한 때는 2016년 10월. 1996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20년 동안 군사 경계 정찰로로 사용하다 드디어 푸른 속살을 드러냈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의 총길이는 약 3킬로미터. 정동항(정동 매표소) 또는 심곡항(심곡 매표소)에서 출발하며 편도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계단이 없는 완만한 무장애 데크 길로 시작하고 싶다면 정동항을, 곧바로 웅장한 해안 절벽을 마주하고 싶다면 심곡항을 출발지로 삼기를 추천한다. 거대한 바위가 바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 놓은 듯한 모양의 부채바위, 투구를 쓴 장군이 동해를 호령하며 서 있는 듯한 투구바위, 수천·수만 개의 몽돌이 구르며 '사르르' 귀여운 소리를 내는 몽돌 해변 등 오랜 시간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던 바닷길을 걷다 보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경이로운 풍광을 마주하게 된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의 오아시스 같은 곳, 한국에서 해안과 가장 가까운 카페인 윤슬카페도 빼놓을 수 없다. 파라솔 그늘 아래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으면 에메랄드빛 바다가 시원하게 가슴을 파고든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관람 시간은 하절기(4~10월)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이용료는 어른 5000원이다. 심곡항과 정동항을 잇는 마실버스(958번)가 다니며, 개인 차량을 목적으로 이동해 주는 택승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주소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13(정동 매표소), 심곡리 114-3(심곡 매표소)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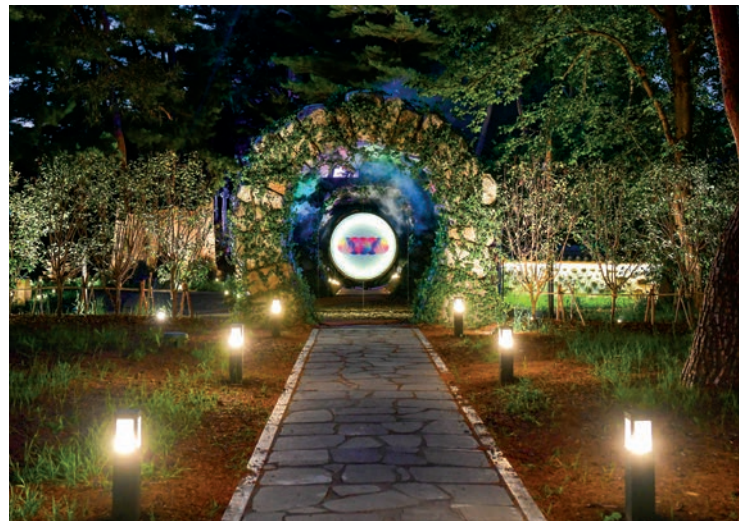
1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와 술방울 조형물이 어우러진 숲숲은 동화 속 한 장면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2 아트 쇼가 펼쳐지는 숲숲으로 향하는 길. 강릉의 사계절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가 여행자를 맞는다. 3 아치형 출입구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스모그가 뿜어져 나와 신비로움을 더한다.
4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의 하이라이트. 대형 LED 화면을 중심으로 숲 전체를 하나의 입체적인 무대로 연출했다.



4



2



3

빛과
소리로
물든
숲숲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

강릉의 푸른 밤,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소나무 숲이 거대한 무대로 변모했다.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옆 숲숲에서 야간 체험형 실감 콘텐츠인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가 펼쳐지는 것이다. 하늘에 새하얀 달이 뜨고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 즈음 관람객은 아치형 돌 문을 지나 환상의 세계로 진입한다.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와 술방울 조형물, 하늘이 그대로 담긴 연못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마치 동화 속 거인의 숲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행사의 주무대는 울창한 숲숲에 스며들듯 자리한 대형 LED 화면과 그 주변이다. 야외에 스크린을 설치해 영상을 보여 주는 단편적인 형식을 넘어, 콘텐츠 기업 닷밀과 협업해 숲 전체를 하나의 입체적인 무대로 연출했다. 경포의 '다섯 개의 달' 전설을 바탕으로 하늘에 뜬 달, 바다에 드리운 달, 호수에 투영된 달, 술잔에 담긴 달,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달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한 내용이 영상에 담긴다. 서늘한 흙 내음이 번지는 숲숲은 미디어 아트 스크린이 되고, 서사에 맞춰 사방으로 치솟는 무빙 라이트와 정교한 레이저 빔은 관람객을 무아지경의 세계로 안내한다. 숲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 스모그와 정교하게 조향한 향은 아트쇼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압도적 미장센으로 극찬받은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는 매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3회 상영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주소 강원 강릉시 초당동 474-4



1

1, 2 강릉 대표 여름 축제. 올해는 경포섬머페스티벌, 강릉비치비어페스티벌, 강릉버스킹전국대회를 하나로 통합해 대규모 축제가 펼쳐진다. 3 축제 기간 경포해변에는 대형 워터파크 시설을 설치해 여름 물놀이의 즐거움을 더한다. 4 주말에는 강릉비치비어페스티벌의 감성을 접목한 '비어가든'을 확대 운영한다.

점
음
의
열
기
로
가
득
한

2026 경포여름해변축제

한여름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강릉 경포해변으로 달려가자.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26 경포여름해변축제'가 열리는 것. 그동안 개별적으로 열리던 경포섬머페스티벌, 강릉비치비어페스티벌, 강릉버스킹전국대회를 하나로 통합해 대규모 축제가 펼쳐진다. 그 시작은 더위와 갈증을 한 번에 풀어 줄 강릉비치비어페스티벌(7월 3일~5일)이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브루어리와 수제 맥주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며, 올해는 특별히 백사장에 바다 조망 비치 존과 감성 스탠딩 공간을 대폭 확대한다. 여름 성수기의 정점인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는 2026 경포여름해변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경포섬머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해변 특설 무대를 인기 가수 공연과 짜릿한 EDM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장식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리바위 다이빙대와 대형 플로팅 브리지도 조성해 바다 위를 걷고 달리며 즐기는 균형 잡기 게임과 미션형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말에는 강릉비치비어페스티벌의 감성을 접목한 '비어가든'을 확대 운영해 밤바다의 낭만을 이어 간다. '강릉버스킹전국대회'는 축제 전 기간에 경포해변에서 열린다. 감성 어쿠스틱, 밴드, 재즈, 인디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공연을 선보이며 8월 15일 대망의 결선 무대가 열린다. 다양한 굿즈 상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존 등 70여 개의 부스도 운영한다. 2026 경포여름해변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먹고 자고 즐기며 머무르는 체류형 축제로 진화했다. 은빛 모래사장에서 시원한 수제 맥주를 마시며 감미로운 버스킹 선율에 온몸을 맡겨 보자.

주소 강원 강릉시 강문동 산1



2



3



4



1 바이닐 강릉의 1인 창가 좌석. 안목해변의 짙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음악을 들을 수 있다. 2 2인석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나란히 앉아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 3 바이닐 강릉은 한국 가요부터 팝, 재즈, 클래식, 영화 OST까지 2500여 장의 명반을 갖추고 있다. 4, 5 전문 로스터리 카페,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강릉점. 빵과 함께 스페셜티 핸드 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다. 6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강릉점의 루프톱 좌석.

1



2



3



4



5

안목해변의 감성무드

바이닐강릉 &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강릉점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든 안목해변에 아날로그 감성 물씬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윤슬이 별처럼 부서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온전히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곳, 바이닐 강릉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4년간 지금 자리에서 드로잉 카페를 운영하던 주인장이 제주의 한 카페에서 영감을 받아 강릉 최초의 바이닐 카페를 열었다. 공간은 철저히 음악과 바다에 집중하도록 설계됐다. 1인석 16석과 두 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2인석 10석이 마련되어 36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1인당 입장료 1만 8900원(음료 포함)을 내면 웨이팅이 없는 평일에는 사치스러운 만큼 평화로운 시간을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다. 주말이나 이용객이 몰릴 때는 2시간의 매너 타임이 적용되지만 온전한 몰입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바이닐 강릉이 소장한 음반은 2500여 장. 한국 가요부터 팝, 재즈, 클래식, 영화 OST까지 마음을 사로잡는 명반이 가득하다. 유리창 없이 탁 트인 공간에서 제대로 된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전문 로스터리 카페인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강릉점을 추천한다. 4개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맨 위층의 루프톱 좌석. 좌식 소파에 편안히 기대어 앉아 바리스타가 정성껏 내린 스페셜티 핸드 드립 커피를 음미할 수 있다.

주소 강원 강릉시 창해로2번길 32(바이닐 강릉), 창해로14번길 28(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강릉점)



6



1

1 메타세쿼이아 길이 그림처럼 펼쳐진
경포생태저류지. 4인용 커피 잔 보트와
2인용 커피 콩 보트를 타고 동동 떠다니는
재미가 특별하다. 2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 안전 요원의 철저한 안내를 받으며
보트 체험을 즐긴다. 3 오죽헌 주변
경포생태저류지에 첫선을 보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시설. 6인용 목선은
운영자가 직접 배를 몰아 준다.



2

3

경포생태저류지를 유람하는

오죽헌전통뱃놀이

오죽헌 주변을 거닐다 보면 푸른 들판 너머 잔잔한 물 위로 커피 잔들이 동동 떠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커피의 도시 강릉에 등장한 커피 잔 모양 배라니, 깜찍한 발상에 호기심이 발동한다. 그 정체는 지난 4월 경포생태저류지에서 첫선을 보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시설이다. 경포생태저류지는 경포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폭이 좁아 집중호우 때마다 주변 지역 제방이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5만 제곱미터, 최대 수량 70만 톤 규모로 조성했다. 이곳이 본래 목적 외에 관광지로 주목받게 된 건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 덕분이다. 백로·청둥오리·두루미 등 다양한 철새가 모여들고, 넓은 들판에 벚꽃·양귀비꽃·코스모스 등 철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가 하면, 바우길16구간(학이시습지길)에는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 길이 장관을 이뤄 강릉의 촬영 명소로 사랑받았다. 이토록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뱃놀이를 즐기면 얼마나 낭만적일까. 오죽헌 전통 뱃놀이는 이런 상상 속에서 실현됐다. 현재 운영하는 배는 모두 세 종류. 조선 시대 선비들이 경포호수와 이어지는 물길에서 풍류를 즐기던 목선을 재현한 전통 배 1척, 커피 잔 모양의 4인용 보트 10척, 커피콩을 닮은 2인용 보트 15척 등 모두 26척의 배가 경포생태저류지 풍경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보트는 매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5회, 전통 배는 하루 한 번 오후 4시에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인 6월 30일까지는 무료이며,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소 강원 강릉시 죽헌동 754





1

1, 3 레드망치 강릉 1호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패브릭, 카펫, 라탄 제품, 테이블웨어 등 층마다 개성 넘치는 아이템이 가득하다.
2 레드망치 강릉 2호점에선 퀄리티 높은 패브릭을 자체 제작하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 고객 만족도가 높다. 4, 5 체육실, 미술실, 음악실 등 학교를 콘셉트로 꾸민 프로젝트 심도. 여행 사진으로 만든 엽서와 포스터가 인상적이다.



4

레드망치 & 프로젝트 심도

2020년 강릉 올곡로에 첫선을 보인 레드망치는 '집과 삶을 새롭게 두드리는' 인테리어 리빙 브랜드로, 현재 강릉에 1·2호점 두 곳을 운영 중이다. 1호점은 다양한 컬러와 패턴의 패브릭과 튀르키예 카펫, 라탄 제품을 비롯해 그릇·컵·도마 등 테이블웨어와 레드망치 자체 제작 상품 등 눈이 번쩍 뜨이는 아이템이 가득하다. 여기서 100미터 거리에 있는 2호점은 카펫과 원단이 중심 테마다. 개성 넘치고 퀄리티 높은 패브릭을 자체 제작하는 것은 물론, 커튼이나 가림막 등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 고객 만족도가 높다. 레드망치의 욕심 나는 제품들은 서울 서촌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임당동 골목 주택가엔 반전 매력을 지닌 소품 숨 프로젝트 심도가 자리한다. 문을 여는 순간 뜻밖의 시공간으로 순간 이동한 듯한데 체육실,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등이 차례로 등장하며 방문자를 학창 시절의 추억 속으로 데려간다. 프로젝트 심도는 무인 운영이 특징. 주인장을 만날 순 없지만 공간을 채운 오브제를 살펴보면 그의 지난 시간을 상상하게 된다. 단서는 여행 사진을 이용해 만든 엽서와 포스터. 평화로운 바람과 부드러운 햇살, 낯선 골목의 온기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진에 당시 상황과 감상이 적혀 있어 그때의 감동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주소 강원 강릉시 올곡로 2890-1/2912(레드망치 1호점/2호점),
강릉대로194번길 14(프로젝트 심도)



2



3

5



no.19

GANGNEUNG



월화거리 야시장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

2026 경포여름해변축제

바이닐 강릉 &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강릉점

오죽헌 전통 뱃놀이

레드망치 & 프로젝트 심도

EDITOR 최현주 • PHOTOGRAPHER 봉재석

제작 지원 강릉시청

지금 여기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과 나눈 식물 이야기 | 리움미술관의 1세대 설치미술 여성 작가 그룹전
신비의 섬 울릉도에서 보낸 2박 3일 | 전북 익산으로 떠난 레트로 여행



나의 오랜 나무 친구를 소개합니다

전국 각지의 사연 많은 나무를 찾아다니는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을 만났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와도 짧은 교감을 나눴다.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이 편집부 사무실에 도착했다. 모든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책은 <고규홍의 나무>. 30년 가까이 나무를 연구해 온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이 4년여에 걸쳐 집필한 신간이다. 4억 년 전 출현한 나무가 인류와 관계 맺으며 살아온 긴 역사를 집대성한 13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나무의 탄생' '나무의 생명력' '나무와 사람' '공생의 생태계' 총 4부로 구성됐다. 600여 건의 참고 문헌에서 책에 담긴 남다른 애정이 느껴진다. 고규홍 작가가 나무와 연을 맺게 된 때는 1999년. 12년 동안 일간지 기자로 일하다 본격적으로 소설 집필에 몰두하기 위해 회사를 나왔다. 퇴사 후 천리포수목원에 머물렀는데,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하는 풍경이 그를 나무의 세계로 인도했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한 생명체에 얹힌 사연을 들었다. 2000년에 숲숭닷컴 홈페이지를 개설해 '고규홍의 나무 편지'라는 사진칼럼을 매주 신기 시작했고, 26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연재했다. <나무가 말하었네>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 특강> <천리포수목원의 사계> 등 지금까지 38권의 책을 냈으며 대학교 강의도 병행하고 있다. 오랜 시간 나무를 기록하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 경외감과 호기심을 안고 나무박사를 만나러 인천으로 향했다.





1

오감으로 느끼는 인천수목원

“서울 근교에서 노거수를 만날 곳이 있을까요?” 인터뷰 장소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고규홍 작가가 인천 장수동을 제안했다. 수령 8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장수동을 지키는 데다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에 도심형 수목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다양한 종의 나무를 만나러 수목원을 찾았다. 인천의 주요 식물종을 수집 및 보전·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인천수목원은 2008년에 정식 개원했다.

술문으로 들어서 몇 걸음 채 떼지 않았을 때 반가운 식물을 발견했다. <고규홍의 나무> 제3장 ‘나무 이전의 식물’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이끼와 고사리다. 식물학에서는 각각 선태식물과 양치식물로 분류한다. 6억 년의 적막을 깨고 땅 위로 올라온 첫 번째 식물인 이끼는 극단적으로 건조한 곳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지역에 서식한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 다른 화려한 식물에 비해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작가는 작아서 더 아름다운 생명체라고 말한다. “이끼는 꽃, 열매, 씨앗이 없고 심지어 뿌리마저 없어요. 그저 이리저리 쏠려 나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바닥을 붙들고 있을 뿐이죠. 뿌리처럼 보이는 조직을 헛뿌리라고도 해요.” 이

끼가 번성하던 시기, 또 다른 생물체인 고사리가 세상에 나타난다. 잎과 뿌리가 뚜렷하게 분화하고, 이들을 잇는 관다발을 갖췄다는 것이 이끼와 다른 점이다. 이날 만난 건 청나래고사리. 고사리류가 포자로 번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 도깨비와 요정이 씨앗을 가로챌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는 책 내용이 생각나 청나래고사리를 보자마자 미소가 지어졌다.

고작가가 나무 덕을 가리킨다. “식물을 밟지 말라고만 든 거예요. 사람이 계속 드나들어 흙을 밟으면 흙 사이 공기가 눌러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요. 흙을 보존하고 식물을 지키기 위해 덕을 설치한 거죠. 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 사람에게도 좋아요.” 자주색 꽃을 피우는 안개나무, 꽃이 크고 탐스러워 함박꽃이라고 부르는 작약, 꿀샘이 풍부해 벌에게 인기 많은 덩굴나무, 매끄러운 수피에 얼룩무늬가 선명한 모과나무, 콩과에 속하는 작은키나무 조록싸리 등 거침없이 앞서가는 나무 박사의 뒤를 쫓으며 식물의 특징을 익혔다. 수목원 나들이는 그렇게 작가의 식물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토티어스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매실나무도 소개받았다. 구불구불한 가지가 용틀임을 연상시켜 ‘용틀임 매실나무’라는 별명이 붙은 재배 품종이다. 친숙한 열매에 눈을 반짝이니 작가가 덧붙인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식물 입장에서선 임종을 준비한다는 뜻이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종족을 번식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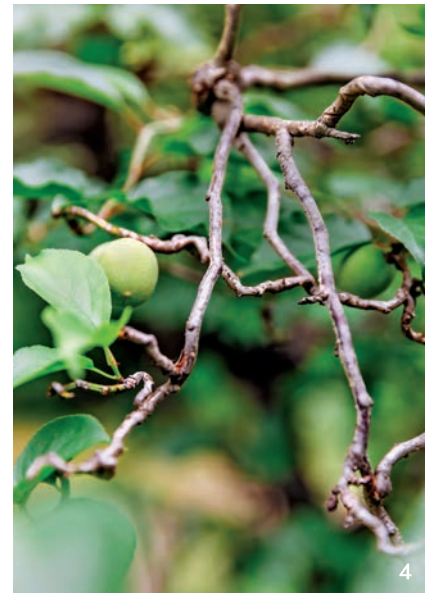
인천대공원에는 메타세쿼이아 숲길도 조성됐다. 나무가 내준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한다. 전국 각지에서 흔히 보이는 메타세쿼이아가 한때 멸종했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화석으로만 존재가 확인돼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1940년대 중국 양쯔강 상류에서 발견됐다. 이런 종류를 식물학에서는 ‘나자로 분류군’이라고 부른다. 이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한국에서는 전남 담양에 집중적으로 심기 시작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난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도로 확장 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무를 담양 군민들이 가로수 지키기 운동을 벌여 보존했으니, 모진 수난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날 메타세쿼이아의 또 다른 생존 전략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광합성에는 햇빛, 물, 이산화탄



2



3



4

- 1 모과나무를 설명하는 고규홍 작가.
- 2 인천수목원에서 만난 청나래고사리.
- 3 <고규홍의 나무>는 4억 년 전 출현한 나무가 인류와 관계 맺으며 살아온 긴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다.
- 4 ‘토티어스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매실나무는 구불구불한 가지가 특징이다.
- 5 흙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나무 덕을 걸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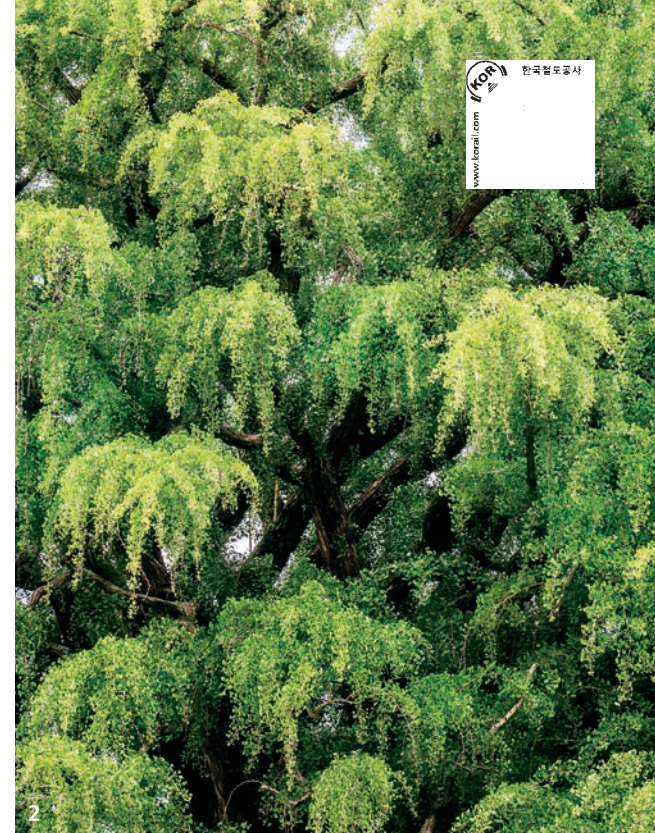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다.
잠시 숨결을 나눈 나무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 그날을 기억할 것이다.

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햇빛을 받기 위해 높게만 자라
면 뿌리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 물이 문제가 되죠. 그래
서 이 나무는 높은 나뭇가지에 돌아난 잎이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여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충당합니다.”
멸종한 줄 알았다가 새로 발견되고, 군민들의 단합으
로 지켜 낸 숲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 독특한 생존 전략을 마련한 메타세쿼이아.
앞으로 출장지에서 이 나무를 마주할 때마다 강한 생
명력이 떠오를 것 같다.

800년 세월이 깃든 장수동 은행나무
식물의 생명력을 논할 때 은행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은행나무는 육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네 종류의 식
물 중 하나다. 무려 2억 300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
리 곁을 지켜 왔다. “대개 생물들은 멸종 같은 위기를
겪게 되면 자신의 본성 가운데 하나를 잃는다고 해요.
빙하기를 비롯해 대멸종기를 여러 차례 겪은 은행나무
도 본성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했죠. 그중 하나가 스스
로 번식하는 능력이에요.” 긴 수명과 뛰어난 공기 정화
능력을 갖췄고,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심근성 나무라
도로 상태를 망가뜨리지 않아 도시 가로수로 사랑받
지만 자생하는 은행나무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 동식물의 위험
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고규홍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금세 장수동
은행나무가 자리한 곳에 다다랐다. 높이 28.2미터, 둘
레 9.1미터의 거대한 나무를 가만히 올려다본다. 은행
나무가 지나온 800년 세월을 상상하니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어 다행이지 싶다. 장수동 은행나무는 뿌
리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다섯 개로 고르게 갈라지면
서 높이 솟아올랐고, 나뭇가지가 수양버들처럼 늘어
진 생김새가 특징이다. 오래전부터 영험한 나무로 알
려져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액운이 들거나 마을에 들



림병이 들 때면 이 나무에 제물을 차려 놓고 치성을 올
렸다고 전해진다. 1992년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된 후
몇몇 사람이 은행나무 지킴이를 자처하며 나무의 가
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중 한 명이 고 작가였
다. 2021년 민속적 의미와 자연·학술적 가치를 인정받
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근대
개항의 중심 역할을 한 인천도심 한복판에서 800년이
라는 긴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켰고, 사람들은 그 은행
나무를 보호하려 애썼다.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영
양 송하리 줄참나무와 당숲 등도 그의 진심이 닿아 천
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나무는 살아 있다.” 고규홍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
기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나무를 열매와 목재로만
여기는 게 안타깝다며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기 위
한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다. “나무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30초면 됩니다.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
소가 나무의 광합성 재료가 되고, 나무가 내뿜는 산
소는 몸속으로 들어오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
는 건 나무가 살아 있기 때문이라는 걸 체감하는 거에
요.” 집 근처의 나무 앞에서 30초만 시간을 보내면 어
떨까. 나무는 지구 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다.
잠시 숨결을 나눈 나무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 그날을 기억할 것이다.

1 인천대공원의
메타세쿼이아
숲길.
2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동
은행나무는
나뭇가지가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생김새가
특징이다.

미술관에서 노는 법

벽에 걸린 그림도, 좌대 위의 조각도 없다. 시대를
앞서갔지만 미술사에서 지워졌던
여성 작가 11명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 신발을
벗고, 눕고, 마음껏 거닐면 된다.





산업 재료, 빛과 공간, 움직임을 매개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타니아 무로의 '한때 우리는 알았다' 네온 조명이 내장된 유리 패널로 만든 직육면체 구조로, 관람객은 작품 안으로 들어가 움직이며 바닥과 천장을 통해 끝없이 반사하는 무한 공간을 경험한다.

미술관이 가벼운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기분 좋게 출렁인다. 빨간 상자 안으로 들뜬 그림자들이 무성영화처럼 지나가고, 신발을 벗은 아이들이 매트리스에 누웠다가 무지갯빛 비닐 터널 속에서 슬래집기를 한다.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다른 공간 안으로> 여성 작가들의 공감각적 환경 1956-1976>의 풍경이다. 리움미술관이라는 어쩌면 엄숙했던 공간에 깃든 반가운 무드와는 별개로, 이번 전시의 미술사적 의미는 좀 특별하다. 1949년 루치오 폰타나가 처음 선보인 설치 작업 '환경(Ambiente)'은 그림이나 조각을 바라보기만 했던 관람자가 작품 안으로 걸어 들어가 빛, 소리, 색, 움직임, 온몸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예술 형식이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설치미술은 바로 '환경'에서 비롯됐으며, 이 파격적인 장르를 주도적으로 개척한 건 여성 작가들이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용어가 '설치미술'로 대체되는 동안 그 이름들은 미술사에서 지워졌다. 이번 전시는 그 빈 공간을 복원한다.

누락된 미술사, 되살아난 공간

이 전시는 2023년 뮌헨의 하우스 데어 쿤스트에서 시작된 순회전으로, 로마 국립 21세기 미술관(MAXXI)과 홍콩 M+를 거쳐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다. 전시를 처음 기획한 안드레아 리소니 예술감독과 마리아 푸글리에세 밀라노 문화 박물관 관장의 말대로, 여성 작가들은 '미술사와 환경 예술의 역사 양쪽에서 잊히거나 지워지는 이중의 소외'를 겪었다. 환경 작업은 여성 작가들에게 해방의 공간이었지만 회화와 조각 중심으로 쓰인 남성 중심 미술사에서 가장 먼저 제외됐고, 전

시 종료와 함께 해체되는 특성상 기록도 남지 않아 또 한 번 지워졌다. <다른 공간 안으로>전은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불행히도 사라졌던 존재들을 다시 미술관으로 불러들인다. 4년여에 걸쳐 진행한 복원 프로젝트는 스펙터클 그 자체였다. 미술사가, 보존 연구가, 유족이 협업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서신과 건축 도면, 당시의 기사 등을 모았고, 그렇게 11명의 공간이 오늘날의 미술관 안에서 되살아났다. 전시장 입구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는 건 아마자키 쓰루코의 작품 '빨강'이다. 지면에서 살짝 떠 있는 거대한 빨간 박스 안으로 몸을 낮춰 들어가면 붉은 우주에 침잠하는 듯 생경한 감각이 밀려온다. 밖으로 나가고 싶기도 하고 안에 머무르고 싶기도 한 묘한 기분을 느끼며 공간 속을 거니는 동안, 밖에서는 안에 들어간 관람자의 움직임을 그림자로 볼 수 있다. 1956년 일본 아시아 공원에서 열린 <구타이 미술전>에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여성 작가가 만든 최초의 환경 작업으로 기록되며, 이번 전시의 시대적 기준점이 된다. 역사적인 빨간 박스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숨이 턱 막혀 온다. 한가운데 자리한 육중한 스테인리스 스틸 탑 주변으로 14개의 조명이 쏟아 내는 열기가 쉼 없이 45도까지 치솟고, 불쾌한 소리가 끊임없이 고막을 자극한다. 강한 열과 빛, 소리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며 겨우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관람객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뒀지? 미술관에 이런 걸 전시하는 게 맞지 않지?' 타니아 무로의 작품 '한때 우리는 알았다'가 의도한 낯설고 강렬한 불편함이다.

불쾌한 소리를 송출하는 탑 주위로 뜨거운 조명을 세워 내부 온도가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도록 설계한 타니아 무로의 '한때 우리는 알았다'.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금기의 공간을 통해 '타자화'된 여성의 공간을 재각각해 한다.

© Tania Mouraud 사진: 홍철기, 리움미술관 제공



여성 작가가 만든 최초의 '환경' 사례이자 이번 전시의 시대적 기준점이 된 작품 아마자키 쓰루코의 '빨강'. 1956년 일본에서 처음 선보인 당시 지면에서 약 70센티미터 떨어진 형태로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공개됐다. 빨간 직육면체 안으로 들어간 관람객들은 작품의 일부가 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바깥의 관람객들과 연결된다.

© Tsuruko Yamazaki 사진: 홍철기, 리움미술관 제공

지워진 이름, 정강자

검은색 장막으로 가려진 공간 앞에 다다르자 이번 전시를 담당한 큐레이터가 눈을 반짝인다. “재미난 점은 도시마다 콘셉트를 일부 변형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확장하거나 다양한 장르를 다룰 수도 있죠. 저희가 주목한 것은 한국 작가의 발굴이었습니다.” 둘러쳐 보건대 한국 미술사에도 지워진 여성 작가들이 존재한다. 리움미술관이 찾아낸 이름은 정강자다. 1960~1970년대에 실험적 예술을 선보이며 기존 관념에도 도전했던 그가 1970년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전위적인 작품 ‘무체전(無体展/Incorporeal Exhibition)’이 50년 만에 마침내 재현됐다.

장막을 걷고 캄캄한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 드라이아이스가 천천히 발밑을 덮고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며 관람객의 얼굴에 광선이 비춰진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사방을 주시하고 있노라면 AI로 복원한 작가의 음성이 묵직하게 들려온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빛과 소리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암시했던 이 전위예술은 당시 정부에 의해 정치 선동으로 오인되어 강제 철거됐고, ‘무체전’은 그렇게 지워졌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무려 56년 전, 한국 여성 작가가 시도한 최초의 공감각적 환경을 미술관으로 옮겨 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고증을 통한 재구성이 필요했다. 당시 보도기사는 물론, 유족이 제공한 사진과 기록, 작가의 생전 인터뷰 등을 모았다. 작가의 원래 의도를 살리되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한 재료를 선택했고, 그렇게 ‘무체전’이 미술관으로 돌아왔다. 큐레이터는 리서치 과정에서 작가의 일기를 읽었다고 했다. “경찰에 여러 차례 잡혀 가고, 분신 같은 작품을 강제 철거당한 작가는 3년 후 한국을 아예 떠났습니다. 1980년대에 돌아오셨지만 그때부터는 자아를 탐구하는 회화에만 집중하셨어요. 이러한 내막을 알고 나니 사망감 같은 게 생겼어요. 못다 이룬 꿈을 이뤄 드리고 싶었달까요.” ‘무체전’ 안으로 들어간 관람객은 긴장감 속에서 작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1970년의 공간이자, 어쩌면 2026년의 공간이기도 한 그곳에서.

나일론 천과 네온 조명 등으로 만든 여섯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알렉산드라 카수바의 ‘스펙트럼 통로’. 색, 빛, 음악이 결합된 이 환경은 탄성, 질, 지혜, 재생, 깨달음, 영성, 무한 등을 상징하며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경계를 넘어 미술관에서 놀기

아르헨티나의 거장 마르타 미누힌이 손수 꿰매고 채색한 매트리스 조각으로 만든 ‘뒹굴고 살아라!’는 이미 어린이들에게 점령당했다. 어른들이 주저하는 사이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 눕고 만지며 온몸으로 작품을 감각한다. 인간이 인생의 절반을 보내는 매트리스를 ‘사랑하고, 잠자고, 꿈꿀 수 있는 해방의 공간’으로 제시한 작가의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발걸음을 멈추는 곳은 주디 시카고의 ‘깃털의 방’이다.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인증 사진이 업로드되며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깃털이 따라와 있다” 같은 재밌는 리뷰들이 달리는 바로 그 작품이다. 무려 136킬로그램의 거위털로 채운 백색 공간에 들어서면 마치 구름 위를 거니는 듯

경계와 중력 감각이 흐릿해진다. 어릴 적 한 번쯤 상상해 본 공간 속에 있다는 벅찬 느낌은 관람객을 무장해제시킨다. 1966년에 선보인 이 작품이야말로 차갑고 딱딱한 강철 소재가 지배하던 미니멀리즘 시대에 던진, 가볍고 부드러운 역발상이자 완전한 전복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거대한 규모의 무지개빛 놀이터, 알렉산드라 카수바의 ‘스펙트럼 통로’가 펼쳐진다. 나일론 천과 네온 조명으로 만든 여섯 개의 통로를 지날 때마다 구스타브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이 한 악장씩 울려 퍼진다. 탄생과 죽음, 재탄생이라는 거창한 의도를 몰라도 좋다. 몸을 구부리고 코너를 돌며 색과 빛, 음악을 온몸으로 통과하는 동안 관객 스스로 작품의 일부가 된다.

그 옆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투명 터널, 레아 루블린의 ‘침투/배출(플루비오 셉튬날에서)’이 있다. 1970년 아르헨티나의 도시와 도시를 잇는 지하 터널 준공 기념식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작가는 환경 파괴에 저항해

사람이 삶의 절반을 보내는 공간 ‘매트리스’를 감각할 수 있는 환경을 선보인 마르타 미누힌의 ‘뒹굴고 살아라!’
© Marta Minujin 사진: 홍철기, 리움미술관 제공



시대를 앞서갔지만 지워졌던
여성 작가11인의 기묘한 공간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놀이터다.

무려 56년 만에 미술관으로 돌아온 정강자의 ‘무체전’. 1970년 작가의 첫 개인전에 선보였던 이 작품은 빛과 소리, 촉각적 요소를 결합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암시하는 한편, 예술의 개념과 경험 방식을 확장한 시도였다.
© Jung Kangja 사진: 홍철기, 리움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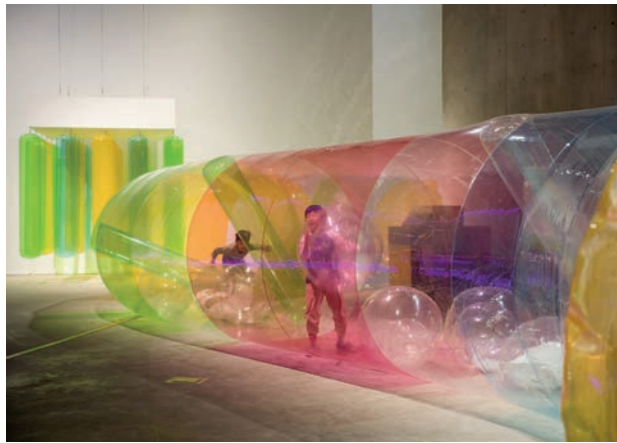
이번 전시를 통해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마리안 자질라, 라 몬테 영, 최정희의 '리움 261IV 29 서울 하우스: 사운드와 빛의 환경' © Marian Zazeela, La Monte Young, Jung Hee Choi 사진: 홍철기, 리움미술관, MELA재단 제공

인간의 생식 과정을 암시하는 거대한 공기 주입식 튜브 터널을 만들었다. 당시 작품을 의뢰한 공무원들이 그 풍자적 메시지를 알지 못했듯이(아마 그랬을 것이다), 오늘날의 어린이 관객들 역시 무거운 정치적 맥락을 뒤로하고 비좁은 틈을 헤집고 들어가 유쾌하게 술래잡기를 한다. 어떤 고정관념도 없이 기꺼이 예술에 침투했다가 배출당하는 그 폭발적 몸짓이야말로 어쩌면 작가가 원했던 가장 순수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은 마리안 자질라와 라 몬테 영, 그리고 한국 작가 최정희가 함께 만든 '리움 261IV 29 서울 드림 하우스: 사운드와 빛의 환경'이 장식한다. 네온 간판이 설치된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을지로의 험한 바에 온 듯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서면 컬러 필름으로 물든 창문과 움직임에 따라 겹쳐지는 모빌의 그림자, 공명하며 증폭되는 사운드가 관객의 시청각을 완벽히 사로잡는다. 위치를 바꿀 때마다 달라지는 사운드와 그림자의 조응에 몰입하다 보면 창문 너머 한 남동의 풍경조차 유럽의 낮선 마을처럼 완전히 달라 보이는 예술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관람객들은 이 공간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재밌는 건 유럽과 남미, 아시아를 막론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관람객을 작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안과 밖의 경계를 흐리게 하기. 지금처럼 정보와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

관람객이 비닐 튜브를 직접 만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레아 루블린의 '침투/배출(플루비오 섹슈날에서)' © Lea Lublin 사진: 홍철기, 리움미술관 제공



음에도 이들의 관심사는 놀랍도록 같았다.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다같이 역사속에서 지워졌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무게감을 갖는 이유다.

“엄마, 미술관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 놀이터잖아!” 처음으로 전시장에 온 큐레이터 아들의 이 순수한 질문이야말로 이번 전시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다. 미술관은 없어도 되지만 놀이터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도, 미술관을 잊고 살았던 어른들에게도 이곳은 완벽한 해방의 공간이다. 시대를 앞서갔지만 지워졌던 여성 작가 11명의 기묘한 공간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놀이터다.



© 가브리엘 오르스코 사진: 정희승, 리움미술관 제공

+ 가브리엘의 정원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 애니시 커푸어의 '큰 나무와 눈' 등 거대한 조각들이 자리 잡았던 리움미술관 야외 정원이 새 옷을 입었다. 리움이 2004년 개관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커미션 정원 프로젝트다. 멕시코 출신의 거장 가브리엘 오르스코는 대형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관람객이 거닐고 머무르며 온몸으로 경험하는 수평적 정원을 설계했다. 조경과 건축, 풍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 정원은 그의 예술 세계를 관통하는 '원의 배열' 모티브 위에 세워졌다. 여기에 독특한 거울을 건디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뜻하는 '세한삼우(歲寒三友)' 개념을 더해 화려함 대신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았다. 백당나무, 설유화, 찔레나무, 물매화 등 흰 꽃 중심의 식물이 차분한 색채를 이루고,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나무 숲은 명상과 휴식의 시간을 선사한다. 정원은 미술관 운영 시간 동안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 있다.



엘렉신드라 카수바의 '스펙트럼 통로',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작가는 공간을 '제우스' 작품이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완성되는 물인형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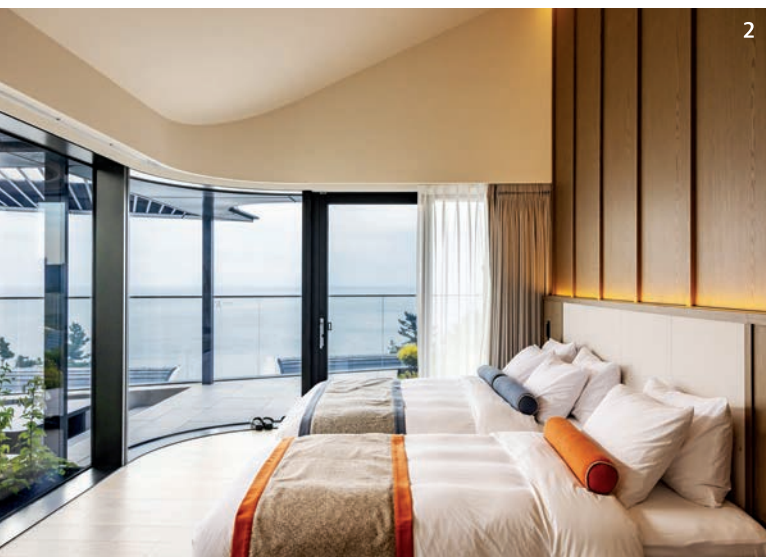


대자연의 선물, 울릉도를 걷다

한반도 동쪽 끝자락에 떠 있는 신비의 섬 울릉도로 떠났다. 대자연의 기운을 담은 리조트,
코스모스 울릉도에 머무르며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1 빌라 코스모스와 빌라 페레로 구성된 코스모스 울릉도가 빌라 쏘메를 새롭게 공개했다. 2 해안 암벽 위 해풍의 진기를 받은 석향에서 영감을 받은 객실 '향'. 3 빌라 쏘메 로비에 설치한 태양과 울릉도를 표현한 디오라마. 4 동해 바다를 형상화한 푸른 그릇에 담아낸 전복구이. 5 2단 찬합에 담아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



달력을 보니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 새해를 맞아 다짐한 것들은 잊혔고, 체력과 열정도 소진된 상태였다.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행지를 물색하던 중 코스모스 울릉도에 다녀온 방문객의 후기를 발견했다.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을 기반으로 설계한 이 리조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건축미로 오픈할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2017년에 개장한 빌라 코스모스와 빌라 페레로 각종 건축·디자인 상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리조트 빌라 쏘메를 공개했는데, 이곳에서 운영하는 순환 상생 프로그램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느껴졌다. 매력적인 숙소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경북 울릉도에서 부정적 에너지를 비워 내고 맑은 기운을 채워 오기로 했다.

대자연의 기운을 받으러 울릉도로 가다
울릉도행 배가 드나드는 주요 항구는 강원 동해와 경북 포항에 있다. 포항에서 출발하기로 한 건 흔들림이

적다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지난 4월에 운행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새벽 기차를 타고 포항역에서 내린 뒤 포항여객선터미널로 이동해 오전 9시 50분에 출항하는 배에 올랐다. 캡슐처럼 독립된 공간인 퍼스트 석에 기대어 눈을 감으니 멀미 걱정이 무색하게 금세 꿀아떨어졌다. 도착을 알리는 안내 방송에 정신을 차리고 도동항에 내리자 깃발을 든 가이드와 하늘을 나는 갈매기가 여행객을 반긴다. 복적이는 항구 풍경을 감상하고 해안 길을 거닐다 보니 코스모스 울릉도에서 보낸 차량이 도착했다. 다정한 환영 인사와 함께 물수건, 용출수, 간식 키트를 건네받았다.

구불구불한 해안 도로를 지나 목적지에 다다르자 우뚝 솟은 송곳산이 시선을 압도한다. “송곳산과 성인봉, 나리분지의 기맥이 모이는 이곳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명당으로, 대자연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품고 있어요.” 총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선 빌라 쏘메에는 비경을 뿜내는 울릉도 산봉우리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김찬중 더시스스템랩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빌라 쏘메가 송곳산에서부터 이어지는 산등성이와 연결되도록 설계했고, 울릉도 전통 가옥인 너와집을 모티브로 건축물을 구상했다. 10개의 오션 뷰 객실은 향, 설, 운, 순이라 이름 붙였다. 이 중 해안 암벽 위 해풍의 진기를 받은 석향에서 영감을 받은 향 객실에 이틀간 머물기로 했다.

비우고 채우는 순환 상생의 여정

코스모스 울릉도에서의 모든 여정은 순환 상생의 기회(木), 성공(火), 행복(土), 건강(金), 풍요(水)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웰컴 티 세리머니도 마찬가지다. 울릉도





식재료로 블렌딩한 아로니아차와 다식을 즐긴 뒤 오행 펜던트 중 행운과 번영을 의미하는 '기회'에 해당하는 팔찌를 골라 착용했다. 이벤트 룸인 '룸 떼레'로 장소를 옮겨 나만의 오행주도 빚었다. 알코올 도수가 30도인 담금용 술에 사과, 레몬, 계피, 레몬그라스를 넣고 비정제 원당으로 당도를 조절해 기회주인 애플 시나몬주를 만들었다. “울릉도 송곳산의 좋은 기운을 담아 숙성시킨 뒤 보내 드릴게요.” 한 달 뒤에 받을 섬의 기운을 상상하니 뿌듯함이 차올랐다.

오후 6시,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래코드와 협업 제작한 안내복을 입고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라 울로' 내려갔다. 라 울에서는 울릉도에서 난 최상의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순환 상생의 철학이 담긴 보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낸다. 울릉 컨템퍼러리 요리를 지

향하는 구진광 총괄 셰프는 사찰 음식을 기반으로 한 비건 코스도 새롭게 선보였다. 이날 준비한 일곱 코스 중 가장 인상적인 요리는 동해 바다를 형상화한 푸른 그릇에 담아낸 전복구이다. 송곳산을 모티브로 한 오브제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 전복에 내장 소스를 얹어 맛을 보자 입안 가득 고소한 풍미가 느껴져 다음 요리가 기대된다. 독도 새우, 빨소라, 해초류에 라임 쏘를 올려 완성한 요리 '라울의 바다'도 울릉도의 건강한 맛을 제대로 보여 준다.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붉은 노을과 함께 마스카르포네 크림치즈를 활용한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식사를 마쳤다.

첫째 날 여정의 마무리는 스톤테라피다. 마지막 입장이 오후 8시라 서둘러 테라피복으로 갈아입고 지하 1층 '르 플로로' 향했다. 스톤테라피는 천연 암석인 테라스톤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파동을 활용해 체내에 축적된 각종 유해 성분을 배출하는 과학적 디톡스 온열 요법이다. 먼저 테라스톤에 큰 수건을 깔고 누웠다. 자연의 에너지를 시각화한 미디어 아티스트 정윤수의 영상 작품이 눈앞에 펼쳐지고, 웰니스 브랜드 숨쉬는고래의 김부진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명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마음도 편안한 상태에 접어든다. 플로 라운지로 나와 용출수로 수분을 보충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1시간 동안 체험이 진행됐다. 객실로 돌아와 오랜만에 뒤척이지 않고 숙면을 취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하루를 아쉬움 없이 보냈다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하루였다.



1 코스모스 울릉도는 인피니티 풀과 객실 자쿠지 등에 31년 자연 정화를 거친 송곳산 용출수를 사용한다. 2 울릉도 식재료로 블렌딩한 차와 다식을 즐기는 웰컴 티 세리머니. 3 이벤트 룸인 룸 떼레에서 나만의 오행주를 빚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송곳산 바로 아래 자리한 빌라 쏘메. 5 빌라 쏘메에서 코끼리바위와 함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경북 포항과 울릉도를 잇는 대저페리의 대형 초쾌속 여객선이다. 높은 파도에 강한 파랑 관통형 쌍동 여객선으로 좌석은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있다.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울릉도까지 2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오징어잡이 배를 기다리는 저동마을 주민들이 일출 감상에
실패한 여행자에게 정겨운 위로를 건넨다. “일출은 어디에서나 항상 예뻐요.”
그 말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로 들렸다.





1

1 나리분지에서 성인봉 기슭에 이르는 숲길은 울릉도의 원시림이 잘 보존된 생태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다. 2 울릉도 개척기부터 춘궁기에 명을 이어 준 식물이라 해서 '명'이라고 부르는 울릉산마늘의 꽃. 3, 4 도동항에서 저동항 촛대바위까지 이어지는 행남해안산책로는 기암괴석과 햇빛에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져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2

성인봉 원시림에서 느끼는 숲의 생명력
둘째 날 아침,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침대에서 겨우 벗어나 조식을 먹으려 라 울로 갔다. 평상시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만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려면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 한다. 울릉도 메바리 고추장조림, 뽕소라 무침, 돔으로 만든 어만두, 제철 나물 모듬, 고로쇠 흰 쌀밥 등 2단 찬함에 담아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받고 꼭꼭 씹으며 맛을 음미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울릉도 유일의 넓은 평야 지대인 나리분지다. 성인봉 북쪽 갈데라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화구원으로, 이 일대에 섬말나리가 많이 자라 나리분지라는 지명이 탄생했다. 이곳에서 성인봉 기슭에 이르는 숲길은 울릉도의 원시림이 잘 보존된 생태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다. 신

령수약수터까지 가는 길은 가파르지 않은 데다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돼 트레킹 초보자도 도전할 만하다. 숲길안내센터에 주차한 뒤 숲길로 들어서자 열은 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친다. 울창한 나뭇잎이 만든 그늘 아래에서 새소리를 듣고 초록빛으로 물든 풍경을 바라보니 평화롭기 그지없다. 곳곳에 자리한 안내판은 울릉도가 낯선 여행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준다. 울릉도 개척기부터 춘궁기에 명을 이어 준 식물이라 해서 '명'이라고 부르는 울릉산마늘, 해발 300미터부터 성인봉 정상 주변까지 분포하는 울릉도 특산 식물 우산고로쇠, 해안가 주변과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울릉국화 등 각 식물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며 성인봉 원시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특징을 익혔다.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을 발견했다면 신령수약수터까지 10분 남았다는 뜻이다. 나무의 독특한 생김새를 관찰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땅의 신성한 기운을 받아 가려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시원하게 들이켰다.

화산섬의 탄생 과정을 따라 걷다

다음 목적지는 울릉도 여정의 필수 코스인 행남해안산책로다. 도동항에서 저동항 촛대바위까지 이어지는 울릉해담길 1코스로, 과거 주민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지나다니던 길을 산책로로 조성했다. 국가지



4



3

질공원 지질명소 중 하나인 만큼 해안 절벽과 천연 동굴을 따라 난 교량을 걸으며 화산 지형의 진면목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산사태로 암석 조각이 운반되어 만들어진 채퇴적쇄설암, 뜨거운 상태에서 화산재가 쌓여 생성된 이그니브라이트 등 이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지질 구조가 화산섬의 탄생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기암괴석과 햇빛에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져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산책로를 걷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낙석 위험으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는 안내판과 맞닥뜨렸다. 가파른 숲길을 올라 저동항까지 갈 것인가, 도동항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래 걸리더라도 완주하자는 생각에 다시 발걸음을 땀다. 약 20분 동안 좁은 길을 헤쳐



1

가다 보니 나선형의 소리계단이 나타난다. 탁 트인 전망에 에메랄드빛 바다를 다시 마주하자 속이 뽕뽕리는 듯하고 뿌듯함이 밀려온다. 저동 해안산책로에는 초기 화산활동 당시 형성된 화산암, 주로 현무암이 분포한다. 용암 속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해 생긴 기공,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생성된 타포니 등을 관찰하며 해안길 풍경을 두 눈 가득 담았다. 저동항이 가까워지고 1코스의 종착지인 촛대바위가 행남해안산책로 트레킹의 마무리를 알린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동항 인근에 위치한 삼정본가식당으로 이동했다. 울릉도에 오면 한 번쯤 먹어 봐야 한다는 오징어내장탕, 홍파밥, 따개비칼국수를 주문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홍파밥은 홍합과 따개비의 은은한 감칠맛이 매력적이다. 양념장을 넣지 않고 반찬을 곁들여 먹어도 조화롭다. 새콤달콤한 미역무침과 명이 김치, 매콤한 멸치볶음, 고소한 부지깽이나물무침 등 자꾸만 손이 가는 밑반찬이 많다. 오징어내장탕의 칼칼한 국물로 마무리하면 입안이 개운하고, 따개비칼국수에서 풍기는 진한 바다 내음은 컷가를 간지럽히던 파도소리를 상기시킨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차창 너머로 울릉도에서 세 번째로 큰 부속 섬 관음도가 보인다. 2012년 보행연도교가 놓이면서 접근이 쉬워졌다. 동백나무, 섬괴불나무, 후

박나무 등 울릉도 자생식물의 서식지로 유명하고, 고양이와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는 꿩이갈매기의 번식지으로도 알려졌다. 새하얀 몸통에 잿빛 날개가 달린 꿩이갈매기 수백 마리가 풀숲에 둥지를 틀어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보거나 섬 근처를 훨훨 날아다닌다. 이어서 울릉도 3대 해양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선암을 마주한다. 삼선암은 원래 본섬의 일부였지만 파도에 의한 오랜 침식작용으로 분리되었다. 바다 위로 우뚝 솟은 세계의 바위섬에는 파도와 바람에 깎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울릉도 풍경에 반해 하늘로 돌아갈 시간을 놓친 선녀 세 명이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자쿠지에 물을 채웠다. 울릉도 어성초가 함유된 배스 티백을 물에 띄우고 몸을 담갔다. 30년 넘게 자연이 정화한 송곳산 용출수가 온몸을 부드럽게 감싼다.

다음 날 새벽, 다시 저동항으로 향했다. 섬을 떠나기 전 일출은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호기롭게 길을 나섰지만 짙은 해무 때문에 목표 달성은 하지 못했다. 대신 오징어잡이 배를 기다리는 저동마을 주민들에게 정겨운 위로를 받았다. 한 주민이 그동안 찍은 일출 사진과 촛대바위에 걸린 해 사진을 보여주며 건넨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일출은 어디에서나 항상 예뻐요.” 그 말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로 들렸다. 반복되는 일상에 싫증이 날 때면 이 말이 떠오를 것 같다. 오후 2시 20분, 내일 아침은 조금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안고 포항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2



3

1 울릉도에서 세 번째로 큰 부속 섬인 관음도는 2012년 보행연도교가 놓이면서 접근이 쉬워졌다. 2 저동항 인근에 위치한 삼정본가식당의 따개비칼국수. 3 포항으로 돌아가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타기 위해 다시 찾은 도동항. 4 올라웰컴하우스는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저동 여행자 센터다.



울릉도에서 에디터가 다녀온 곳

코스모스울릉도

주소 경북 울릉군 북면 추산길 88-13 문의 054-791-7788

나리분지숲길

주소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문의 054-790-6316(울릉군 숲길안내센터)

행남해안산책로

주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34 문의 054-790-6572(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

삼정본가식당

주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12-8 문의 054-791-5870

관음도 & 삼선암

주소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문의 054-791-6022(관음도)

올라웰컴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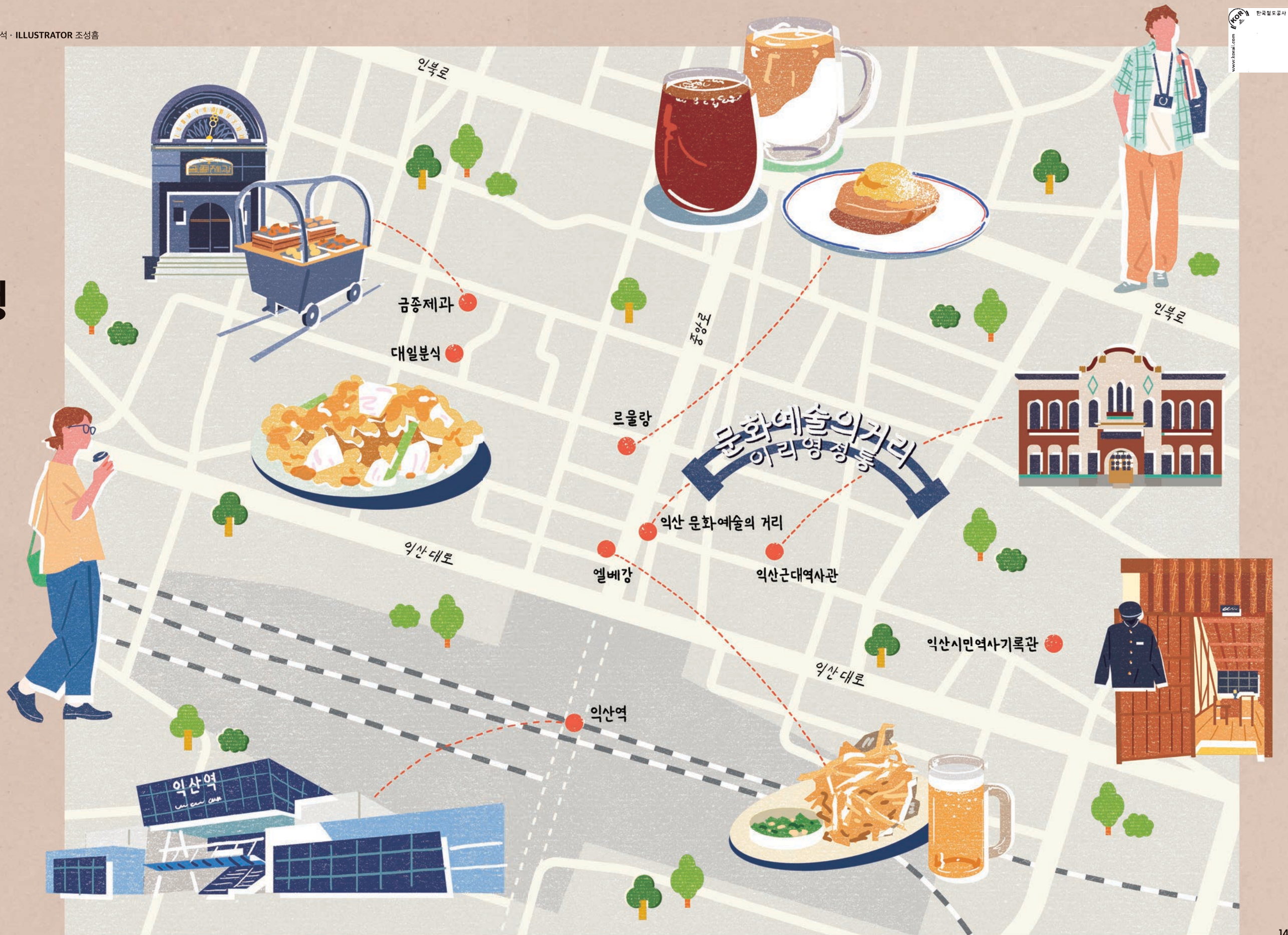
주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71 문의 054-791-7781



4

익산 레트로 여행

KTX 호남선의 주요 거점,
전북 익산역. 인근의 옛 거리에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 온
분식집과 맥줏집, 박물관과 함께
감각적인 공간들이 들어섰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익산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기차역을 통째로 들인 베이커리 카페 금종제과

익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 건물 을 개조한 금종제과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다. 공간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우서울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한 곳으로, 호남선의 중심 거점인 익산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투영한 독창적인 기차역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금빛 종소리'라는 의미를 담은 금종제과에 들어서면 바닥을 가로지르는 철로와 철도 신호등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치 은하철도999를 타고 머나먼 시간 여행을 떠났던 듯한 기분. 벽면에 걸린 대형 기차시계와 철도 감성의 빈티지한 오브제들은 정교한 세트장을 연상시킨다. 플랫폼 1, 2, 3으로 구분된 주문 창구는 간이역에서 기차표를 끊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1층은 베이커리 공간, 2층은 식음 공간, 3층은 익산시 홍보 캐릭터인 '마롱' 굿즈 숍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팝업 스토어로 운영한다. 아트리움 구조로 1층부터 3층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어 개방감이 뛰어난 것도 매력적이다. 금종제과의 시그너처 메뉴는 신선한 제철 과일을 듬뿍 올린 '와르르 보름 케이크'.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소금빵과 군고구마 빵도 인기 메뉴다.

주소 전북 익산시 중앙로5길 27 인스타그램 @geumjong_bakery

영화 속 흑백 감성의 아카이브 익산시민역사기록관

현대식 아파트 단지와 낡은 골목이 교차하는 경계 지역에 자리한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첫인상부터 묘한 시각적 대비를 이룬다. 1930년 건립해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로 사용하던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90년이 넘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 낸 붉은 벽돌 외관은 물론, 1930년대의 맨사드 지붕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특히 3층은 시인 윤동주의 생애를 그린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의 배경이 되어 크게 주목받았다. 과거 쌀 수탈의 아픈 역사가 깃든 건물이지만, 지금은 세련된 조명과 근대적 감성이 어우러져 사진을 남기기 좋은 포토존이 여럿이다. 이곳에 전시된 빛바랜 졸업 앨범과 옛 버스 회수권 등의 기록물은 모두 익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다. 아날로그 감성에 최신 첨단 실감 기술을 결합해 방문객이 직접 사진을 찍고 아카이브 스크린으로 전송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1년 후에 엽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기록우체국 서비스 등 이벤트 공간도 활발히 운영된다.

주소 전북 익산시 평동로1길 28-4 문의 063-859-4620



살얼음 맥주와 레트로 바의 낭만 엘베강

익산역 앞 골목에 위치한 엘베강은 살얼음 맥주의 원조로 통하는 지역의 전설적인 대포집이다. 1982년 문을 연 이래 40년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맥주를 대접하고 싶어 잔을 통째로 얼려 내놓던 것이 오늘날 살얼음 맥주 공법의 시초가 됐다. 이곳의 시그너처 메뉴는 냉동고에서 열린 맥주잔에 살얼음이 갇힌 상태로 서빙해 가슴속까지 뽕 뚫리는 생맥주다. 여기에 수십 년간 고수해 온 방식으로 노릇하게 구워 낸 오징어입, 황태, 쥐포 등 소박한 건어물 안주가 곁들여진다. 오랜 단골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특제 간장 마요네즈 소스는 알싸한 청양고추를 더해 중독성이 강하다. 내부는 길게 뻗은 바 형식의 좌석을 중심으로 설계해 레트로 감성을 살렸다. 바에 앉아 낯선 여행자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맥주잔을 기울이는 역전 대포집만의 감성이 살아있는 곳이다.

주소 전북 익산시 중앙로 7 문의 063-855-7402





익산에서 만나는 프랑스의 맛 르물랑

프랑스 감성의 베이커리 카페. 붉은 벽돌과 세련된 외관이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프랑스어로 몰레방이라는 뜻의 ‘르물랑’은 프랑스인 오너 베이커 말레 마르탱이 기본에 충실한 빵을 구워 내는 곳이다. 프랑스산 밀가루와 고메 버터 등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는 르물랑의 대표 메뉴는 프랑스 정통 레시피를 재현한 크림 브뤼레다. 차가운 커스터드 크림 위에 설탕을 올린 뒤 토치로 그을려 만든 얇고 바삭한 캐러멜 토핑을 손가락으로 깨뜨려 먹는 재미가 특별하다. 풍미가 좋은 피낭시에와 카놀레도 내놓기 무섭게 팔리는 인기 메뉴다. 카페 안쪽에는 작은 문으로 연결된 비밀스러운 공간, 밀책방이 자리한다. 예술, 여행, 문학 관련 책을 세심히 큐레이션한 독립 서점으로 아늑한 분위기 덕분에 어느 책이든 펼쳐 읽고 싶어진다.

주소 전북 익산시 중앙로3길 3 문의 063-855-2420



100년 전 시간 속을 걷다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역 동부광장 건너편으로 뻗은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는 일제강점기 지역에서 가장 변화해 ‘작은 명동’ 혹은 ‘영정동’이라 불린 중앙동의 중심지다. 한때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인파가 넘쳐 났지만 구도심의 쇠퇴와 함께 발전이 멈췄다. 그러다 최근 양복점 또는 이발소였던 건물들이 감도 높은 공방이나 갤러리, 독립서점 등으로 변모해 골목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거리 중심에는 익산의 옛이야기를 간직한 공간들이 묵직하게 자리한다. 1922년에 건립한 구 삼산의원 건물을 원형 그대로 이전·복원한 익산근대역사관이 대표적이다. 벽면에 수평의 띠 모양을 돌출시킨 코니스 장식과 건물 입구의 아치형 포치 등 근대 초기 건축양식의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한때 도시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건물을 103개의 부재로 완전히 해체한 뒤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정교하게 재조립했다. 여행자의 로컬 베이스캠프를 표방하는 복합 문화 공간, 미지에서는 전북 곳곳의 지역 생산자가 만든 개성 넘치는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인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 다양한 트릭아트 포토존이 설치된 익산아트센터도 함께 둘러보면 좋다.

주소 전북 익산시 중앙로 12-39(익산아트센터) 문의 063-843-8812(익산아트센터)



시장 골목의 얼큰한 한 그릇 대일본식

익산중앙시장의 한 골목을 묵묵히 지켜 온 대일본식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사랑받는 노포다.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인 간판과 아담한 매장은 정겨운 동네 분식집의 정석을 보여 준다. 이곳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일등 공신은 양배추와 오징어를 아낌없이 넣은 짬뽕라면. 강한 화력으로 쫄깃하게 끓여 낸 면과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은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옛날식 탕수육도 필수 메뉴. 새콤달콤한 소스를 끼얹은 바삭한 탕수육은 짬뽕라면의 매운맛을 중화해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이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넘쳐 나는 요즘, 투박한 양은 냄비와 낡은 탁자에서 배어나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추천한다.

주소 전북 익산시 중앙로3길 26-7 문의 063-852-2374



카트 끌고 약 사는 시대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하며 약국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진화하는 약국 유통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약국에 카트가 생겼다. 대형 마트에서 생수와 과자를 고르듯 진열대 사이를 오가며 감기약과 영양제를 집어 담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2025년 6월 경기 성남에 처음 문을 연 창고형 약국에는 330제곱미터가 넘는 공간에 2500여 종의 일반 의약품과 건강 기능 식품이 진열돼 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서울과 인천에서 찾아오는 원정 고객도 줄을 이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요원까지 배치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성남에 첫 매장을 연 지 불과 1년 만에 창고형 약국은 전국 40여 곳으로 확산됐다. 처음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충남, 전북 등 지방에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아직 진출하지 않은 지역은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다섯 곳이다.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약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는 무려 2000제곱미터가 넘는 초대형 매장이 들어섰다. 창고형 약국의 확산과 함께 메디컬 리테일(medical retail), 즉 건강 관련 제품 유통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흐름이다. 소비자들은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 편의점에서 여러 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하는 소비 방식에 익숙하다. 라면이나 삼푸처럼 약도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약을 고를 수 있어 좋다”라는 이용 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했다. 결국 창고형 약국은 익숙한 리테일의 편의성을 의약품 시장에 접목한 결과물이다.

창고형 약국, 기회인가 위협인가

약국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자마자 이른바 ‘창고형 약국 대응 TF’를 꾸리고 입법 추진과 실태 조사, 여론 형성에 나섰다. 지난 4월 창고형 약국 인근의 일반 약국 5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사의 81.6퍼센트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매출 타격과 운영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당 기반 품목인 영양제와 상비약 매출이 각각 72.8퍼센트, 53.3퍼센트 감소해 약국 시장의 변화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회는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창고’ ‘메가’ ‘팩토리’ 등 대량 유통을 연상시키거나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단어를 약국 명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도 올해 11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논란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처방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일반 의약품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된 약이다. 일반 약국에서도 원하는 약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 선택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계산대에 약사가 상주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면 소비자 편의와 전문성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리 경험한 일본과 미국의 사례

해외 사례는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쟁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의 대형 드러그스토어 체인은 의약품과 건강 기능 식품, 의료 기기를 한 공간에 배치한다. 여기에는 일본 사회에 자리 잡은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문화가 깔려 있다. ‘스스로 치료한다’ 뜻의 셀프 메디케이션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요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지 않고 시판 약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일본에서

는 드러그스토어에 약사뿐 아니라 의약품 판매 관리사도 상주한다. 이들은 증상을 듣고 의약품, 건강 기능 식품, 의료 기기 가운데 가장 적합한 선택지를 제안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돕는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건강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드러그스토어 모델은 과도한 병원 진료를 줄여 소비자 비용은 물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형 약국 체인의 의약품 시장을 주도했다. CVS와 월그린은 단독 매장을 중심으로 전국 체인망을 구축했고, 월마트는 대형 마트 내에 자체 약국을 운영한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CVS가 수년간 약 1000개의 매장을 정리하며 몸집을 줄이고, 지난 4월 시카고에 처방 약과 일부 일반 의약품만 취급하는 소형 약국 전용 매장을 새로 열었다. 이어 2026년까지 미시간, 텍사스, 뉴욕 등지에 비슷한 형태의 약국 전용 매장 10여 곳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은 성인의 80퍼센트가 대면 약국 서비스를 선호하고 소매 약국 전문가의 75퍼센트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는 2025년 하반기 CVS 자체 조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결국 약국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장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의 미래를 묻다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사례는 한국의 약국 시장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의약품 시장에서도 소비자 경험과 접근성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답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으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공간, 그것이야말로 메디컬 리테일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소비자 역시 편의성이 커진 만큼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약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어떤 약이 나에게 맞는지,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건강 지능’이 화두가 된 웰니스 시대에 약을 구매하는 경험은 질병 치료를 넘어 건강을 관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약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약국과 소비자 모두의 몫이다.

이혜원 트렌드 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 Vol.1~2, <미래 트렌드 연구실> 시리즈 공저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고려대학교 국토계획공기업 고급정책과정에서 ‘소비사회와 트렌드’를 강의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정책홍보자문위원이자 서울시 평생학습 싱크탱크 위원회 위원이다.

NEWS



**프랑스 파리
신규 관광·문화 콘텐츠 확충**
프랑스 관광청은 지난 6월 4일 서울에서 한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파리 지역 관광 워크숍'을 열어 최신 관광 동향을 소개했다. 몰입형 향수 박물관 '테아트르 뒤 파르팡'이 문을 열었고, 유럽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컬렉션 15만 점을 소장한 '퐁피두 센터 프랑실리앙'은 내년 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에펠탑, 몽파르나스 타워에 이어 파리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트리아앵글 타워는 업무·숙박·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건축물로, 2027년 초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홈페이지 www.france.fr/ko



**한여름의 클래식 축제
2026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1920년에 시작한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시 전역 19개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사랑(Liebe)'을 주제로 오페라와 연극, 실내악 등을 통해 인간의 가장 보편적 감정을 다각도로 탐색한다. 무료로 축제의 열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지멘스 축제의 밤'을 추천한다.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카피텔 광장에 설치한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오페라와 콘서트를 매일 밤 중계한다.

홈페이지 www.austria.info/ko/



**멕시코 신규 리조트 '아만바리'
사전예약 돌입**
멕시코 바하이스트 케이프에 들어서는 신규 리조트 아만바리(Amanvari)가 8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바다와 사막, 하구가 만나는 곳에 자리한 아만바리는 전용 온수풀과 테라스가 딸린 18개의 프라이빗 객실을 갖췄다. 투숙객은 프라이빗 요트 클럽과 챔피언십 골프 코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보 폴로 해양 국립공원 스노클링, 시에라 데 라구나 오프로드 투어 등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액티비티 체험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aman.com/resorts/amanvari

VIDEO

〈마티 슈프림〉

무명의 탁구 선수 마티마우저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질주하는 과정이 펼쳐진다. 실제 미국 탁구 스타 마티 레이스만에게서 영감을 받았으며, 1950년대 탁구 문화와 뉴욕 거리 감성을 복고풍으로 재현했다. 마티마우저역을 맡은 티모시 살라메는 6년간 훈련에 매진해 경기 장면까지 직접 소화하며 극에 생동감과 입체감을 불어넣었다. 7월 1일 개봉.

출연 티모시 살라메, 기네스 팰트로 감독 조슈아 사프디



〈가스인간〉

1960년대 일본 특수촬영 영화 〈가스인간 제1호〉가 한국과 일본 제작진의 협업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번 작품은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총괄 프로듀서와 각본을, 〈간지발〉의 가타야마 신조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몸을 가스로 변형하는 가스인간이라는 원작의 독창적 설정에 서스펜스를 더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7월 2일 공개.

출연 오구리 슌, 아오이 유우 감독 연상호, 가타야마 신조 제공 넷플릭스

〈그림자 아이〉

3년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수안이 죽은 언니 수련의 얼굴을 한 소녀 재인을 만나며 '그림자 동화'의 비밀에 빠져드는 미스터리극이다. 〈두 번째 아이〉〈밤의 문이 열린다〉 등 독창적 세계관을 선보인 유은정 감독의 신작으로, 현실과 동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비로운 연출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7월 1일 개봉.

출연 박소이, 임수정 감독 유은정



〈킬러들의 쇼핑물 2〉

강지영의 소설 〈살인자의 쇼핑물〉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시즌 2로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액션으로 문을 여는 이번 시즌에서는 무기 쇼핑물의 새로운 주인이 된 조카 정지안이 살아 돌아온 삼촌 정진만과 함께 글로벌 세력 '바빌론'에 맞서 반격에 나선다. 지난 시즌에 이어 새로운 설정과 사건을 더해 세계관을 확장한 점이 돋보인다. 7월 공개.

출연 이동욱, 김혜준 감독 이권 제공 디즈니플러스



〈하나 코리아〉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탈북 여성 혜선의 여정을 따라가는 실화 모티브 영화. 덴마크 출신 프레드릭 실베르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으로, 5년간 30여 명의 탈북민을 인터뷰하며 이야기를 완성했다. 북유럽 특유의 정적인 미장센과 절제된 감정선 속 탈북 이주민의 현실을 담담하고 섬세하게 담았다. 7월 8일 개봉.

출연 김민하, 김주령 감독 프레드릭 실베르



〈오늘도 괜찮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인기 캐릭터 '취방울'이 지친 어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노는 것처럼 해야 오래 하지!" "혼자 다 끌어안지 마!" 처럼 특 던지는 한마디가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마음을 평하게 울린다. 총 4장으로 구성된 본문 말미에는 '마음 체크리스트' '나만의 이력서 다시 쓰기' '나를 지키는 문장 필사' 등을 수록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기록하도록 돕는다.

정혜영 지음 한시간کم 그림 대원앤북 펴냄

〈산곡미풍〉

〈인생〉〈허삼관 매월기〉〈원청〉 등 굵직한 소설로 중국 현대사 속 소시민의 삶을 그려 온 위화가 특별한 산문집을 펴냈다. 시원한 바람을 찾아 헤매던 어린 시절부터 약냄새가득한 병원과 정겨운 농촌 풍경, 처음 아빠가 되던 순간까지, 기억 속에 숨어 있던 감정과 의미를 천천히 되짚는다. 기쁨과 쓸쓸함이 순환하는 일상을 특유의 담백하고 유머러스한 문체로 풀어내며 독자에게 잔잔한 위로를 건넨다.

위화 지음 푸른숲 펴냄



BOOK

Information.

KTX

제15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동해를 달린다' © 고성현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KTX는 930mm, KTX-산천은 98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960mm입니다.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식음료 Refreshment	신문 Newspaper
			
KTX와 KTX-산천은 112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1060mm입니다.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수하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의약품 First-Aid Medicine	금연 No Smoking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 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2호차(4량: 1-2호차 사이, 6량: 2-3호차 사이),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및 스낵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2호차 또는 2·3호차, KTX-청룡 1·2·4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호차 또는 2·3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내 휴대품 기준 (2026년 7월 1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기준)

위험물	동물	이동 수단	기타 물품
			
철도안전법 제42조, 제43조의 위험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 위험 물품: 무기, 화약류,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하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 등에 넣은 경우 동반 가능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분해 후 전용 가방에 넣은 자전거 단,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 불가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제외)	기타 불결하거나 안 좋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반입 금지
리튬 배터리 제한		여객운송약관 제22조의 휴대품 대용량 리튬 배터리(160Wh 초과) 열차 내 휴대 제한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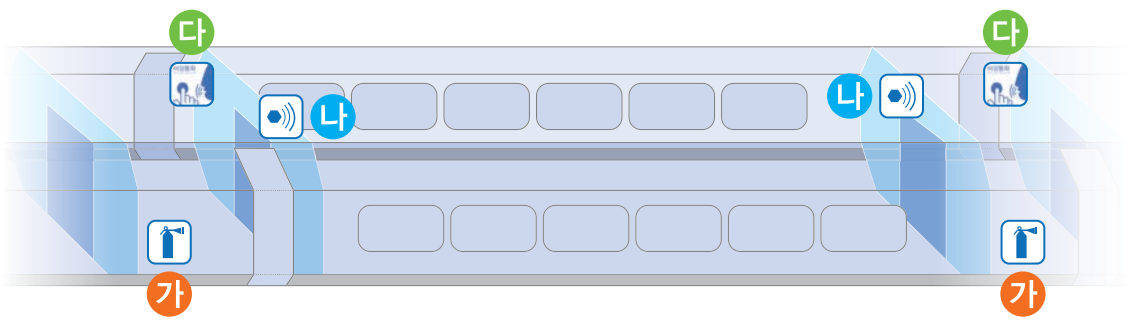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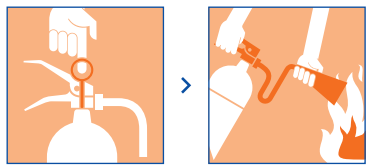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40%	70%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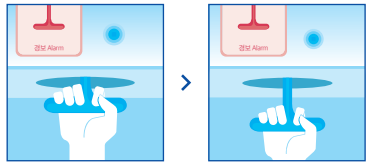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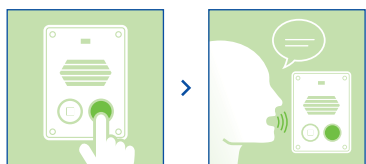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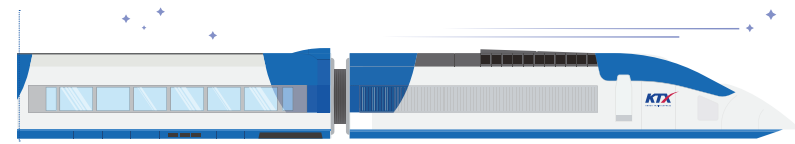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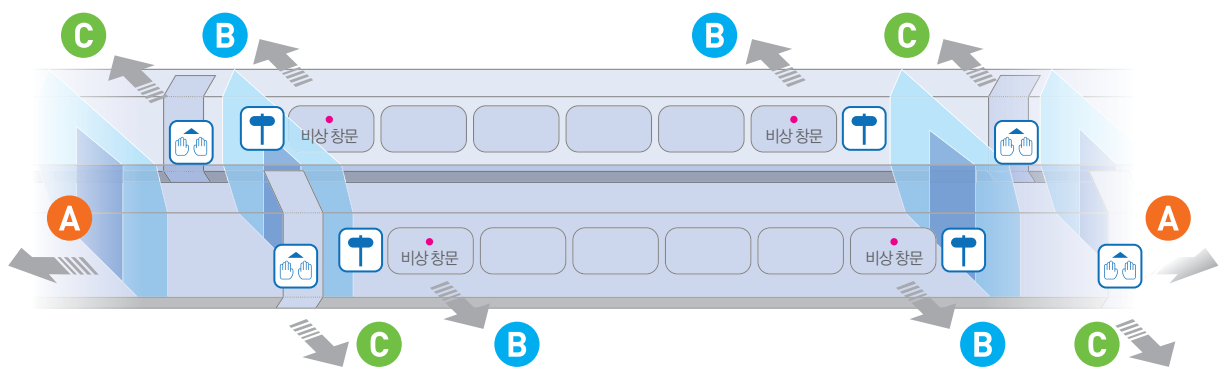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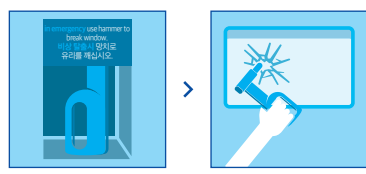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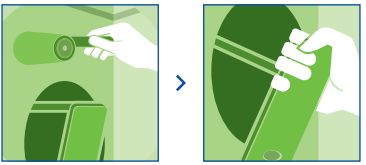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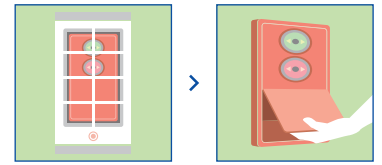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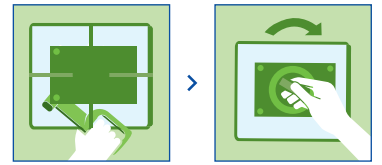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여유와 설빈과 떠나는 음악 여행

섬에서 노래를 만들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이
서로의 목소리에 차분히
음을 엮는다. 삶의 다양한
감정이 선율과 함께 흐르고,
시 같은 노랫말이 파도처럼
밀려든다.



음악 듣기



유유히 흘러가는 삶을 마주하는 플레이리스트

▶ 여유 추천곡

1 Last Train Home 팻 메스니 그룹
제목만 봐도 기차와 어울릴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들어도 좋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 기차에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 Time Flows Ever Onward 에반 콜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렌>에 나오는 곡이에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동안 여행하는 기분이었는데, 생각해
보니 이 음악이 자꾸 흘러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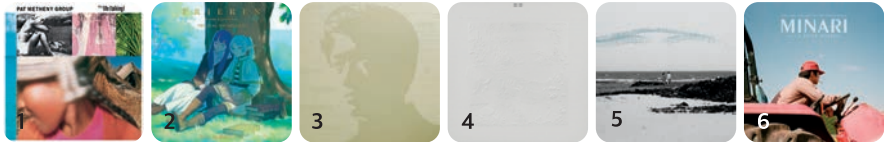
3 봉우리 김민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노래입니다. 언제
어디서 들어도 지금껏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해요. 들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싶을 때 들어 보세요.

▶ 설빈 추천곡

4 Wash. 본 이베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피아노 소리가 복잡한 머릿속을
말끔히 씻겨 주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흘려보내고 싶을 때
추천해요. 이 노래가 대신 싼고 가줄 거예요.

5 밤하늘의 별들처럼 여유와 설빈
3집 <희극>에 수록된 타이틀곡인데, 이 곡을 노래할 때
가장 투명해져요. 어딘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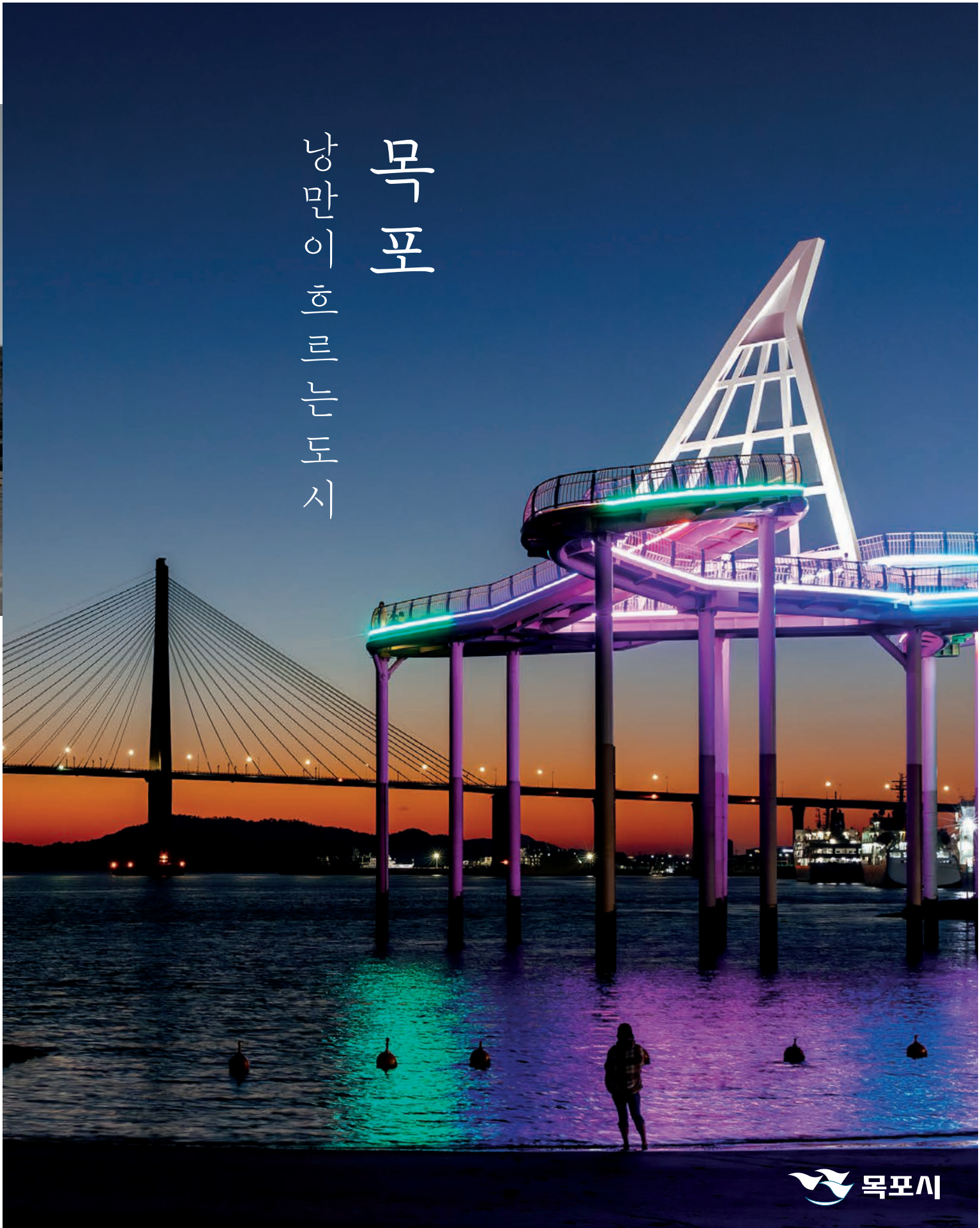
6 Rain Song 에밀 모세리, 한예리
영화 <미나리> OST 중 한예리 배우가 부른 노래예요. 동동
울리는 기타 소리가 공명하면서 토닥여 주는 듯한 느낌이 참
좋아요. 눈을 감고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 보세요.



시 박스
© 여와 설빈



여유와 설빈
기타 한대와 두 사람의 목소리로
깊은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는
포크 듀오. 2017년 정규 1집
<모든, 어울린 삶에 대하여>로
데뷔했다. 3집 <희극>으로 제21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노래 부문을 수상했으며,
EBS <스페이스 공감>이 선정한
'2000년대 한국대중음악
명반 100'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표곡으로 '밤하늘의 별들처럼'
'생각은 자유' '초록' 등이 있다.
7월부터 열리는 세종문화회관의
컨템퍼러리 시즌 '싱크 넥스트
26'에 참여해 제주에서 음악을
만든 시간과 기억을 무대에 옮긴다.



목포
낭만이 흐르는 도시

